

청 소 년



동



일

사



전

남북관계(통일문제) / 경제생활 / 교육제도·학교생활  
북한문화 / 북한 지리·지역 / 북한체제 / 사회생활



청 소 년  
통일사전



## 청소년 통일사전 머리말

이 책은 북한사회와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학습과 이해를 돕고자 발간된 일종의 참고 자료집입니다. 이 책의 내용 구성은 국립통일교육원이 발간하는 각종 자료를 기본으로 활용하되, 기타 보도자료나 논문자료, 그리고 신문 및 방송 자료 등의 최신 정보를 참조하였습니다. 북한과 통일 관련 문제에 대한 자료를 읽거나 학습하는 과정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이 책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구성은 북한 및 통일 문제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기본 개념 외에도 청소년 수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표제어를 선정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해당 표제어 관련 내용을 도식화하거나 일목요연한 정리를 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표제어와 관련된 영상자료가 있을 경우 관련 콘텐츠를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하였습니다.

북한사회 이해와 관련된 내용에 첨부된 사진자료가 북한사회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 특성상 스스로 허용하는 사진만 외부 매체에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러두기

- 1 본 자료집은 7개의 영역[남북관계(통일문제), 경제생활, 교육제도·학교생활, 북한문화, 북한 지리·지역, 북한 체제, 사회생활]으로 구성하였고, 각 표제어의 배열은 7개의 영역 안에서 일반 사전과 마찬가지로 한글 자모 순의 원칙에 따랐습니다.
- 2 표제어는 학교 현장에서(교사·학생) 궁금해 하는 개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 전체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 3 하나의 표제어에는 학습과 사고의 확장을 위해 '연관어', '더 알아보기', '더 생각해보기'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연관어'는 해당 표제어와 관련 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전 내의 다른 표제어를 알려 주기 위함이며, '더 알아보기'는 해당 표제어와 관련된 심도 있는 내용의 탐색 또는 남북한 비교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더 생각해보기'는 해당 표제어를 학습하면서 통일을 위해 관련 사고를 확장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 4 내용에서 '우리나라'는 '남한'과 '한국'을 혼용하여 표기 하였습니다.
- 5 자료의 출처는 각 영역이 끝나는 말미에 첨부하였습니다. 집필에 참고한 발간자료나 논문자료는 포괄적으로 정리하되, 신문 자료나 검색자료는 인용 부분에 미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필진 일동



## 목차

### 1 남북관계(통일문제)

개성공단	08
겨레말큰사전	09
공동어로구역	10
군사분계선(휴전선)	11
남북도로·철도연결	12
남북정상회담	14
분단비용	16
북한이탈주민	17
비무장지대	19
서해교전	20
신탁통치	21
6.25전쟁	22
이산가족	23
통일방안	25
통일편익	26
판문점	28
체육교류	30

### 2 경제생활

계획경제	34
배급제	35
분조관리제	36
신용카드(나래카드, 전성카드)	37
외화벌이꾼	38
종합시장	39
7.1 경제관리개선조치	40
화폐	41

### 3 교육제도·학교생활

경연(경시대회)	44
고급중학교	45
교복	46
교원	47

꼬마 과제	48
김일성종합대학	49
대학	50
대학입시	52
만경대혁명학원	53
방학	54
사교육	55
사회주의 도덕	56
상벌	58
소년단	59
소년단 아영소	60
소조 활동	61
소학교	62
시험	63
영재교육	64
예술학원	66
입학식과 졸업식	67
외국어교육	68
유치원	70
제1중학교	71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72
직통생	73
진로	74
초급중학교	76
컴퓨터교육	77
평양학생소년예술단	78
학생소년공전	79
현장체험학습	80

### 4 북한문화

가요	84
간편 먹거리	85
개성만월대	86
게임	87
놀이	88
놀이공원	89
드라마	90
반려동물	91

만화영화	92
문화재	94
북한대표음식	96
스포츠	97
여가생활	98
연예인	99
외식 문화	100
영화촬영소	101
영화	102
음악단	104
인민대학습당	105
종교	106
집단체조	107
패션	108
화장품	109

## 5 북한 지리·지역

강과 산	114
광물자원	115
금강산관광	116
주요 도시	118
평양거리	119
행정구역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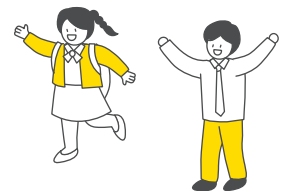
## 6 북한체제

내각	124
북한인권	126
붉은청년근위대	128
사상교육	129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130
선군정치	131
인민재판(형벌제도)	132
일인지배체제	133
재판소	134
정치범수용소	135
조선노동당	1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37
주체사상	138
집단주의	139
천리마운동	140
최고인민회의	141
출신성분	142
핵무기(미사일)	143

## 7 사회생활

가족제도	148
결혼	149
고난의 행군	150
광명성절	151
국제아동절	152
군복무	153
노동신문	154
대중교통	155
독보	156
문화어	157
사회주의 명절	158
생활총화	159
스마트폰	160
업간체조	161
의복	162
이동(여행)	163
인민체력검정	164
조선중앙통신	165
정보통신	166
조선중앙텔레비전	168
지하철	169
주택	170
직업	172
태양절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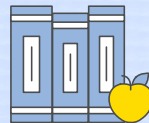






**PART 1**

**남북관계  
(통일문제)**



# 개성공단

연관어 금강산관광,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성시에 조성된 공업단지로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활용한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2004년에 첫 시범 단지가 운영되었다.

**개성공단의 전개 과정** | 남북의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개성공단은 2016년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여전히 재가동되지 않고 있다. 2022년에는 북한에 의해 남한 재산이 불법적으로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현재까지 남북 간의 갈등 상황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연도	전개 내용
2000년	남한의 기업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함께 공장을 지어 물건을 생산하기로 합의서를 체결
2004년	여러 기업이 입주를 시작하여 섬유, 기계,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여 개가 넘는 회사들이 공장을 운영
2016년	남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 이에 대응한 북한 정부의 공단 폐쇄 및 남한 인원 추방
2020년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내 당국 간 협의가 이루어지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sup>1</sup>
2022년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한 공장 일부 무단 가동 정황 <sup>2</sup>

**개성공단의 의의** |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힘을 합하여 함께 만든 최초의 공단이었다. 공단 가동이 중단되기 전까지 누적 생산액은 32.3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경우 5년 안에 약 26조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sup>3</sup> 2018년 9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북한은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2020년)하는 등 개성공단 재개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 개성공단의 통일 냄비

개성공단의 첫 생산품은 2004년 12월 생산되어 판매되기 시작한 '통일 냄비'이다. 통일 냄비 1천세트는 출고 당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이틀만에 모두 팔리며 큰 관심을 끌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경우 2006년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100개 품목이 우리나라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아 특혜 관세 혜택을 적용받았으며, 2014년 한중FTA에서는 생산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아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 관세 혜택을 받게 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섬유,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식품, 목재, 비금속광물 등의 상품들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개성공단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한때 서울 시내에서 운영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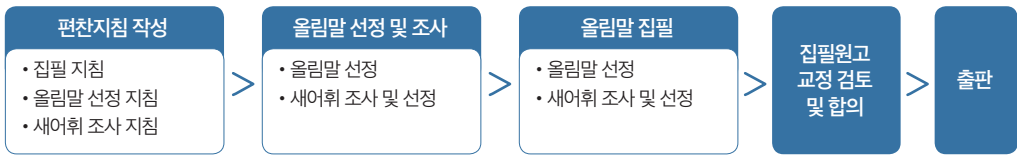
# 겨레말큰사전

연관어 남북정상회담

겨레말큰사전은 남북한의 언어 통일을 목적으로 남북한 국어학자들이 공동으로 만드는 국어대사전이다.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목적과 의의** |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 달라진 단어나 뜻 뿐 아니라 해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말을 정리하여 민족의 언어 유산을 한데 모으는 사업이다. 이는 말과 글을 통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 최초의 민간교류 사업이다.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과정** | 2004년 4월 5일 남한의 '통일맞이'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의 약속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편찬 과정은 남북공동편찬위원회의 심의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을 바탕으로 남북의 공통 단어를 추리고 서로 차이가 나는 단어는 합의 과정을 거쳐 '올림말'을 선정하였다. 또한 남북 및 해외동포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도 조사하여 '새어휘'도 선정하고 뜻풀이를 하였다.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어문 규정 등을 통일하기 위해 서울, 평양 등지에서 남북공동편찬회의가 2015년까지 총 25회 개최되었다.



## 더 알아보기 겨레말큰사전에 등재될 '새로 찾은 겨레말'

새로 찾은 겨레말은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이나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실려있지 않은 단어를 조사하여 선별한 것이다.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고시생', '방영권', '매력덩어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교묘한 수단으로 재치 있게 잘 둘러대는 것을 의미하는 '능갈치기', 느끼기에 남다르고 특별한 데가 있다는 의미의 '자벌스럽다', 겨울의 맵짠 바람을 이르는 말인 '송곳바람' 등이 이에 포함된다.

# 공동어로구역

🔍 **연관어** 남북정상회담, 서해교전, 휴전선, 비무장지대

공동어로구역이란 남한과 북한이 함께 어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공동어로구역은 공동어로수역이라고도 불린다.



**공동어로구역의 기능** | 바다는 육지에 비해 남북이 서로 나뉘는 선을 정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남북은 바다에서 경계선을 어디로 할지 계속 갈등을 빚었으며, 이 부근에서 무력충돌도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서로 넘어오면 안 되는 경계선을 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긴장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은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이 구역을 함께 활용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2018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남북은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남북 선박이나 사람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동의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공동어로구역의 위치** | 공동어로구역을 어디로 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략 서해에서 남북이 나뉘는 곳 근처로 논의되었다.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논의는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있었지만, 어디를 공동어로구역으로 할지 의견이 달라 무산되었다. 이후,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진전되어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로 설정하자는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 더 알아보기

###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바다의 휴전선 근처인 백령도·대청도·연평도 등 서해5도 북쪽 해역은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남북 대치 상황을 이용하여 중국 어선들은 불법 조업을 해왔다. 남북한이 모두 조업을 할 수 없어 황금어장이 형성된 곳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 우리 해군·해경이 단속을 위해 접근하면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는 등 우리 군·경의 단속을 따돌려 온 것이다. 중국 어선은 2018년 기준 하루 평균 46척에 이를 정도로 틈만 나면 우리의 어족자원을 채겨갔다.<sup>4</sup>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은 남북공동 순찰을 통해 불법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다른 나라 어선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군사분계선(휴전선)

연관어

남북정상회담, 비무장지대, 판문점, 6.25전쟁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은 1953년 7월 27일, 22시 6.25전쟁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생긴 경계선이다.

**휴전의 과정** | 정전협정이란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군사 협약으로 6.25전쟁 중지에 합의하면서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이 체결한 협정을 의미한다. 전쟁이 시작된 후 약 1년간 치열한 전면전이 진행되었으나, 1951년 7월 10일부터는 휴전회담이 진행되면서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한 상태로 휴전을 맞이하기 위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전투가 이루어졌다. 현재 설정된 군사분계선은 이러한 전투 결과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의 접촉선을 기준으로 형성되었다. 이후 남과 북은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휴전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았다.



**군사분계선의 현재** | 군사분계선은 철책선이나 담을 설치하지는 않아 눈에 보이는 실제 선은 아니다. 대신 한강 입구부터 강원도 고성군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표지판들이 세워져 있다. 또한 군사분계선이 설정된 이후에는 서로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 양쪽으로 2km 씩, 너비 4km 구간으로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를 만들었다. 쌍방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허락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없다.



## 더 알아보기

### 군사분계선과 38선의 의미

군사분계선과 38선은 만들어진 시기, 주체, 근거 기준 등이 모두 다르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38선에 의한 분할 당시 북한의 영토였던 설악산 일대가 군사분계선 설정 이후 남한의 영토로 설정되었으며, 남한의 영토로 설정되었던 개성시 등이 휴전협정 이후 북한의 영토로 설정되었다.

	군사분계선	38선
만든 시기	정전협정 당시(1953.7.27)	광복 직후부터 6.25전쟁 이전
주체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총사령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에 온 미국과 소련
근거 기준	정전협정 당시의 군사 접촉선	한반도의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북위 38선



# 남북도로 · 철도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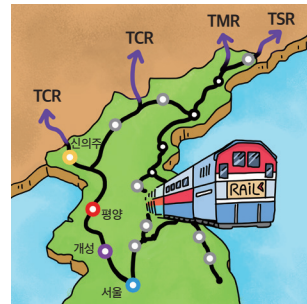
연관어 통일편의

남북도로연결은 서울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도로와 동해안을 잇는 동해선 도로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남북철도연결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를 잇는 경의선과 강릉에서 북한의 나진까지의 동해선을 다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남북도로연결의 진행 과정** | 남북도로연결은 공사 구역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만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평가하고, 지뢰 등 위험물 제거작업을 거쳐 추진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0년	남북 간 도로연결에 대한 합의 및 도로 연결공사 시작
2003년	경의선 도로, 개성공단 개발 준비 과정에서 차량 임시통행 동해선 도로, 임시도로 개통식 이후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 실시
2018년	'남북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 구성 합의 남북도로 시설 재정비 사업을 통해 경의선은 개성에서 평양까지, 동해선은 고성에서 원산까지 도로를 확대하기로 결정

**남북철도연결의 진행 과정** | 남북철도연결은 남북간의 육로통행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추후 대륙철도연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경의선의 일부 구간은 복구되어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약 1년간 운행되었는데, 총 222회 남북을 가로질러 개성공단 관련 물자를 수송하였다. 구체적인 진행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000년	남북 간 철도연결에 대한 합의 및 철도 연결공사 시작
2007년	경의선, 남한 측 도라산역과 북한측 판문역 간의 화물열차 정기 운행 시작
2008년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로 인한 남북 간 화물열차 운행 중단
2015년	남한, 서울에서 북한의 원산까지 연결하는 경원선 철도의 남한 구간 복구 시작
2018년	동해선과 경의선을 연결하기 위한 남북 공동조사 진행

**남북도로·철도 연결의 기대효과** | 남북의 교통망을 연결하면 대륙과 지상연결이 불가능하였던 남한의 중심지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대륙과 연결될 수 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많은 이득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육로를 활용한 유럽 수출길이 열리면 배를 이용할 때보다 컨테이너 1대당 1천 달러가량이 절감된다. 또 철도를 이용하여 전력, 가스 등의 에너지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다. 더 큰 경제효과는 중국, 러시아, 유럽 등과 교류하면서 유라시아 경제권에 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동해선을 통해 금강산관광을 활성화한다면 동해지역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남북 간 교통망 연결은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일된 우리나라에서 휴가를 맞은 시민들이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중국과 러시아 나아가서는 유럽으로까지 여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대륙과의 육로 교통이 가능해져 외국과 보다 쉽게 교류할 수 있게 된다면 한반도의 산업, 기술, 문화가 더욱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생각해보기**

남북도로·철도 연결과 대륙철도연결이 이루어지면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며, 내가 직접 접할 수 있는 세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더 알아보기**

**대륙철도연결과 주요 철도**

대륙철도란, 중국, 러시아 등의 대륙의 넓은 땅을 이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철도를 의미한다. 이 중, 중국횡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는 러시아, 독일을 거쳐 유럽의 서쪽 끝부분에 있는 네덜란드까지 이어진다. 남한에서 복구하고 있는 경원선은 바로 남북철도와 대륙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해당한다. 남북철도 연결이 완성되면 한반도를 넘어 중국,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가 열리게 된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를 유라시아 철도라고 하는데,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잇는 한반도 종단철도가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되어 대륙철도까지 이어지면 철도를 통한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철도의 명칭	연결 구간
중국횡단철도(TCR)	중국의 칭다오를 지나 카자흐스탄을 거쳐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블라디보스토크까지 9,288km를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만주횡단철도(TMR)	러시아의 자바이칼 지방과 블라디보스토크 지방을 연결하는 철도
몽골횡단철도(TMGR)	중국의 단둥과 베이징을 거쳐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지나 러시아의 울란우데에서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는 철도
바이칼-아무르철도(BAM)	제2의 시베리아철도라 불리며, 제1시베리아철도와 연결되는 러시아 횡단 철도

# 남북정상회담

연관어

판문점, 휴전선, 통일방안,  
평화체제, 공동어로구역

남북정상회담이란 남한과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남북한 문제를 놓고 협의하는 회담을 의미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직접 방문,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합의하고 서명한 문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일부내용 발췌)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10.4 선언** | 두 번째 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이루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개성-평양 간 육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하여, 남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하였다. 정상회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4일에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10.4 선언’이라고 한다. 10.4 선언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발전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조치들이 담겨 있다.

1.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 2018년에는 문

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총 세 번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2018년 1차 정상회담이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았고,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만난 남북의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남북의 공동의 목표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더 생각해보기**

여러번의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가시적인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일부내용 발췌)

5월 26일에 진행된 2018년 2차 정상회담은 남북한의 필요에 따라 즉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2018년 3차 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8일~20일에 평양을 방문하여, 예술교류·비핵화 등 남북의 평화를 위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그 결과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발표하였다.

**더 알아보기**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주요 남북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에도 남과 북은 서로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의미 있는 문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발표 문서	주요 내용
7.4 남북공동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2년 7월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남북 간 최초의 공식 합의문서</li> <li>• 당시 남북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체결 및 발표됨</li> <li>•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을 발표</li> </ul>
남북기본합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1년 12월 남북고위급회담(남북한 국무총리회담)의 결과물</li> <li>• 남북 사이의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해 합의한 문서</li> <li>• 남북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의</li> </ul>



근별 최대성 썸의 한반도 통일 역사

# 분단비용

연관어

남북한 통일방안, 이산가족, 통일편의, 휴전선

분단비용이란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분단비용의 특성** | 분단비용은 분단이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우리가 분단된 1945년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으며, 미래에도 분단이 계속되는 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분단비용 중 대부분은 정확히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분단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무감각해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실제 부담하는 것보다 과소평가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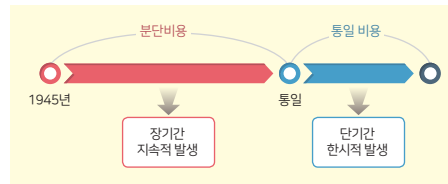
**분단비용의 분류** | 분단비용은 그 특성에 따라 직접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비용, 간접적이면서 잘 드러나지 않는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분류에 해당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직접적 분단비용	간접적 분단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대를 유지하고, 각종 최신 무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국방비</li> <li>-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외교 경쟁 비용</li> <li>- 육로를 통한 대륙 이동이 제한됨으로써 생겨나는 무역 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으로 인해 헤어진 이산가족 문제</li> <li>-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li> <li>- 전쟁의 위협과 서로에 대한 긴장감</li> <li>- 남북 주민들 간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로 인한 갈등</li> </ul>

## 더 알아보기

### 통일비용의 의미와 특성

통일비용이란, 통일 이후 양측 간의 격차를 좁히고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남북한의 완전한 통합을 이룰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투입되는 비용이다. 이러한 통일비용은 통일되는 시점의 경제력 격차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또는 무력충돌을 겪으면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 북한이탈주민

🔍 연관어 | 이산가족, 6.25전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즉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간단히 ‘탈북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용어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 북한이탈주민의 명칭 변화

시기	~199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	2005년~	2008년~
명칭	귀순자(귀순용사)	탈북자(귀순북한동포)	새터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의미	적으로 맞서던 상황에서 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	북한을 탈출한 사람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현재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

##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과정 | 북한이탈주민

은 강압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로부터 자유와 희망을 찾아 남한으로 탈출한 이들이다. 이들의 탈출은 생명의 위협을 동반한 험난한 과정을 동반한다.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경로는 ① 중국을 경유, ② 중국~동남아(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를 경유, ③ 중국~몽골을 경유 하는 등 먼 길을 돌아 우리나라에 마침내 입국한다. 북한 국경수비대가 삼엄하게 국경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 | 이렇듯 힘든 과정을 거쳐 입국한 이들이지만, 남한에서의 생활에서도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첫째, 심리적 어려움이다. 탈북과정에서의 험난함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가족과 떨어지면서 우울함을 겪기도 한다. 또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편견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의 생활 기반이 없고 전혀 다른 체제에 갑자기 적응하기 어려우므로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 취업 이후에도 임금 격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셋째, 문화적 어려움이다. 북한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의 자유, 경쟁을 중시하는 남한의 개인주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기도 한다. 외래어를 자주 사용하는 남한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것도 불편한 점이다.

더 생각해보기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더 실시할 수 있을까요?  
또, 북한이탈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나는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더 알아보기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후 정착과정

임시보호 조치 및 조사(국정원)	- 입국 후 국정원이 보호 결정 여부를 위한 신원 조사 및 긴급한 치료 등 임시보호 조치 실시	
보호결정(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 결정	
정착준비(하나원)	하나둘학교	- 만 24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대상 '한국어 특별반' 등 연령 및 학력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나의원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 지원
	마음건강센터	-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지원
거주지 보호(5년)	-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 의료급여) - 취업지원 : 미래행복통장,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보호담당관 : 거주지 취업, 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민간 참여 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종합 서비스 제공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 전국 25곳) 지정 운영 - 정착도우미 제도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서비스	

# 비무장지대

🔍 연관어

6.25전쟁, 휴전선, 군사분계선, 판문점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란 교통로를 확보하거나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기 배치, 군사시설 설치를 금지한 곳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한 간의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비무장지대의 위치** |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남북한의 경계가 되는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씩의 구간에 설정된 지대이다.



**비무장지대의 현황** | 비무장지대는 군대나 무기, 군사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약속한 곳이며, 비무장지대 부근에는 군사시설의 보호와 보안을 위하여 군인이 아닌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민간인 통제 구역을 설정하였다. 그래서 오랜 시간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고 개발이 정지된 상태로 있어, 희귀생물종과 다양한 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의 보고가 되었다. 최근에는 철원에 'DMZ생태평화공원'을 만들어 일반 시민들에게도 해당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 또 2018년 11월에는 비무장지대의 남북한 감시초소(GP) 중 20개를 시범적으로 철거하기도 하였다.<sup>6</sup>

## 더 알아보기

### 비무장지대 안의 마을

비무장지대는 원칙적으로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남북 비무장지대에 각각 1곳씩 마을은 둔다'라는 규정에 따라 당시 거주중이던 주민들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는 우리 지역에 대성동 '자유마을'과 북한 지역에 기정동 '평화마을'이라는 민간인 거주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대성동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교육권과 참정권이 인정되지만 비무장지대 안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납세와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대성동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지만,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유엔군 사령부의 통제하에 있다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성동과 기정동 두 마을 사이 거리는 불과 800m 정도이며, 대성동에서는 기정동 주민들의 생활 모습과 개성 송악산 전경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 서해교전

연관어

분단비용, 통일편의, 휴전선, 6.25전쟁, 공동어로구역

서해교전이란 북한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우리 측 해군 함정에 먼저 공격을 가함으로써 남북한 해군함정 사이에 벌어진 전투로, 1999년 이후 2009년까지 세 번의 교전이 있었다.

**제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 서해 바다에는 정확한 휴전선이 없어 항상 긴장감이 맴돌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한간 총 세 번의 전투가 발생하였다.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발생일	1999년 6월 15일	2002년 6월 29일	2009년 11월 10일
주요 사건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경비정 세 척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남한 바다로 넘어옴</li> <li>북한군의 사격으로 인해 전투가 시작됨</li> <li>남북 모두 피해를 입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경비정 두 척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옴</li> <li>경고하는 우리측 함정에 북한군은 집중적인 사격을 가함</li> <li>남북 모두 함정이 부서지고 전사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경비정 한 척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옴</li> <li>우리측 경고방송에 북한의 경비정이 응하지 않아 전투가 시작됨</li> <li>우리측 인명피해 없이 전투를 끝냄</li> </ul>

**서해교전과 북방한계선** | 1953년 유엔군 사령부에서 설정한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은 실질적인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의 역할을 해왔다.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발표할 때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인정하는듯 하다가, 제1차 연평해전 직후 1999년 9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이로 인한 무력 충돌이 계속되자, 남과 북은 2018년 9.19 군사 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을 명시하고 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논의하였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sup>7</sup>



## 더 알아보기

###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서해교전 이후에도 아래 표와 같이 서해 해상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사건이 발생하였다.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발생일	2010년 3월 26일	2010년 11월 23일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 침몰한 사건</li> <li>우리 장병 46명이 전사</li> <li>이후 우리 정부의 남북교역 중단, 북한주민 접촉 제한 등 강력한 대북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측에서 연평도에 170여발의 포격을 가한 사건</li> <li>한국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li> <li>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공격한 중대한 무력도발 사건</li> </ul>

# 신탁통치

연관어 휴전선, 6.25전쟁

신탁통치란 한 나라가 정부를 통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국제연합(UN)의 감독 아래 다른 나라로 하여금 그 나라의 지역을 통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이후, 그해 12월에 미국, 영국, 소련의 외교부 장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문제처리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국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되, 이를 지원·보장하기 위해 5년간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이 신탁통치한다.”라는 내용을 결정하였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때까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한다는 것이었다.

## 신탁통치 이후 남북한 정부 수립 과정

광복 직후부터 한반도는 소련과 미국에 의해 지역적으로 분할되면서 체제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탁통치로 인한 민족 간의 갈등은 민족 내부의 정치적·이념적 분열을 초래하였다. 결국 신탁통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열렸던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면서 신탁통치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그러나 신탁통치 논쟁은 민족 간의 분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연도	남	북
1946~1947	미·소 공동위원회, 임시정부 수립 문제 논의 및 결렬	
1947.9.	유엔총회, 한국임시위원단 구성	
1947.11.	유엔총회, 유엔 감시 하에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결의	
1947.12.20.		북조선인민회의, 헌법 초안 확정
1948.1.		소련,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38도선 이북 지역 입북 거부
1948.2.	유엔 소총회,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만 총선거 실시 결의	
1948.5.10.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 실시	
1948.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 더 알아보기

### 신탁통치 반대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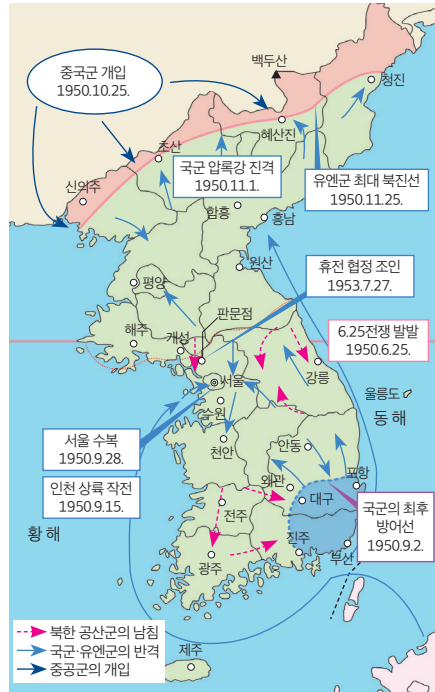
당시 신탁통치를 식민지배와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한반도에서는 김구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런데 처음에 신탁통치를 함께 반대하였던 공산주의자들은 이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이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지지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신탁통치 안을 두고 반대와 찬성의 입장으로 분열되기 시작하였다.

# 6.25전쟁

연관어 분단비용, 서해교전, 이산가족, 통일편의, 휴전선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발생되었으며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면서 남북한의 분단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6.25전쟁의 진행 과정** | 일제강점기 이후 광복을 맞은 한반도에서는 국제적인 냉전체제 흐름 속에서 남북한에 각기 다른 체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북한은 통일을 명분으로 1950년 6월 25일에 남침을 시도하였고 대한민국 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게 된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파병하여 1950년 9월에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전세를 역전시켰고,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1950년 10월에 중국 인민지원군이 북한군을 지원하여 참전함으로써 전세는 다시 역전되었고 1951년 1월 4일에 서울은 다시 북한군에 점령당했다. 1951년 여름부터 38선 일대에서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고, 소련은 유엔을 통해 휴전을 제의하였다. 이후 2년여의 장기간 협상 끝에 1953년 7월 27일에 최종적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6.25전쟁 경과

## 더 알아보기

### 6.25전쟁의 피해

6.25전쟁은 엄청난 인적·물적 손실을 안겨주었고 국토 주요 지역을 황폐화시켰다. 6.25전쟁으로 국군 및 유엔군 사망·실종자는 77만 6천여명, 피난민은 320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민간인 피해는 150만 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6.25전쟁 이후 남북으로 각각 2km씩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남북한은 서로를 경계하면서 막대한 안보비용과 유무형의 분단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6.25전쟁과 전쟁 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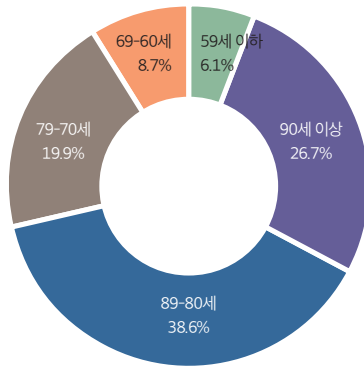
# 이산가족

연관어

금강산관광, 남북정상회담, 북한이탈주민, 휴전선, 6.25전쟁

이산가족이란 자신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남북분단 등으로 인해 서로 만날 수 없게 된 가족들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치적 이념과 제도를 뛰어넘는 인도주의적 사안이자 보편적 인류의 문제이다.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령화** | 이산가족 문제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만나지 못한 가족을 마음에 품은 채 사망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산가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1998년부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마련하여 이산가족의 자료 및 신청자를 관리하고 있다. 2022년 초 확인된 이산가족 생존자는 46,215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1만 명이 사망 등으로 인해 감소하였다. 생존자 가운데에서도 90세 이상이 26.7%, 80대가 38.6%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해소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산가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속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산가족종합정보시스템’ 등록 이산가족 생존자 연령별 현황

	90세 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 이하	계
인원수(명)	12,323	17,825	9,196	4,038	2,833	46,215
비율(%)	26.7	38.6	19.9	8.7	6.1	100

## 이산가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 정부는 2009년

3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고령 이산가족을 위해서는 2014년부터 이산가족이 사망하더라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에서의 이산가족의 상봉을 추진하여 이산가족 상봉 방식을 다양화하였다. 화상상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9년 전국 13개의 화상상봉장을 전면 개·보수하고 정기적인 시험가동을 통해 관리 및 점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화상상봉장 7개소를 추가로 증설하였다. 또 24,077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여 이를 보관하고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남북이산가족찾기’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0년 ‘이산가족 특집 열린음악회’, 2021년 ‘망향경모제’, ‘북한 고향사진전’ 등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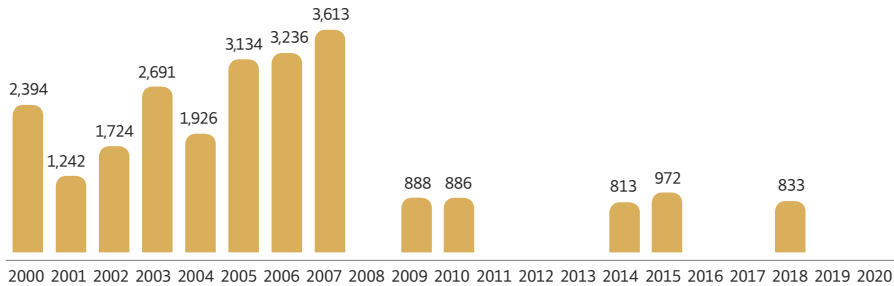
### 더 생각해보기

이산가족의 아픔을 고려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더 실시할 수 있을까요? 혹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 더 알아보기

### 이산가족 상봉 현황

1985년에 첫 번째 상봉이 이루어진 이후 2000년대에는 남북한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에 대해 남북간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00년 6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2000년 8월 15일에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시작되어 2018년 8월까지 21차례의 만남을 통해 20,604명의 대면상봉과 3,748명의 화상상봉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이산가족 수와 연령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횟수이다. 46,215명의 이산가족이 모두 만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80년이 더 소요될 것이다. 이산 가족 중 80세 이상의 고령에 해당하는 비율이 약 6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결국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15년에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의 경쟁률은 무려 663:1이었다고 한다.<sup>8</sup>



# 통일방안

🔍 [연관어](#) 통일편의

통일방안이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기본 철학과 원칙 등을 구체화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본 방침을 뜻한다.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 |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시한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처음 제시되어 1994년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으로 보완 및 발전되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의 기본 철학으로 제시한다. 또한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의 3원칙으로 제시하여,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민주적 절차에 입각한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함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 공영, 민족 복리의 3대 기조를 바탕으로 통일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3단계**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3단계 절차를 거쳐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화해협력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의 상호인정을 통한 대립관계 탈피, 공존 관계로의 변화</li> <li>• 분야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분단 상태의 평화적 관리</li> </ul>
남북연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등을 통해 남북연합 공동체 형성</li> <li>• 교류협력 제도화와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민족 통합</li> </ul>
통일국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연합 단계에서 만든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총선 실시</li> <li>• 통일국회 구성 및 통일정부 수립(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li> </ul>

## 더 알아보기

### 통일국가의 미래상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향해야 한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삼권분립, 법치주의, 의회제도, 시장경제, 시민사회 등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국가, 소외계층에게는 따뜻한 사회,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성숙한 세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통일편익

연관어

남북한 통일방안, 분단비용, 이산가족, 휴전선, 남북도로·철도연결

통일편익이란 통일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비경제적 이익과 혜택의 총체를 의미한다.

**통일편익의 분류** | 통일편익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제적 편익과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회적·심리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경제적 편익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편익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분단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었던 육로 활용이 가능해지는 것이 해당된다. 육로 교통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이 원활해지고 이를 통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전에는 교류하기 힘들었던 다른 나라들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경제적 편익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우수한 기술력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하여 낮은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경제가 발전된다면 이것도 경제적 편익에 포함된다.

한편 비경제적 편익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으며, 북한 정권 하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되어 남북한 주민들이 불안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비경제적 편익에 해당된다. 더불어 남북한 주민이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모습들이 통일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통일 이념과 체제를 공유하면서 함께 하나의 통합된 사회를 구성해나간다면 이 또한 비경제적 편익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통일편익	비경제적 통일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 확대</li> <li>- 우리나라 기업이 더 많은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 가능</li> <li>-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 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의 아픔 해결</li> <li>-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li> <li>- 전쟁의 위험 해소</li> <li>- 남북한 주민 간 이질성 극복</li> </ul>

**통일편익의 특성** | 통일편익은 비경제적 편익을 포함하고 있어 그 규모를 돈으로 쉽게 환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국가의 형성을 통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편익이라는 점에서 전체 규모는 무한대에 이를 수 있다. 통일편익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는 특성을 지니는데, 평화적인 과정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때 통일편익이 늘어날 수 있다. 평화적인 과정으로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전쟁의 위협 없이 다른 나라와도 더 쉽고 빠르게 경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찍부터 통일을 차근차근 미리 준비할 때 통일편익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는 것보다, 미래의 통일을 단계적으로 미리 준비하여 통일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생각해보기

통일 이후에 변화할 사회와 그 안에서 생활하는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자. 통일한국에서 새롭게 생길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더 알아보기

내가 얻을 수 있는 통일편익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2030 세대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난다. 관련 전문가들은 분단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임하고 있는 장기간 군복무의 부담이나 전쟁에 대한 불안감 등이 줄어들다면 청년들의 삶의 형태가 많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북한 지역의 사회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되며, 주거비용 역시 낮출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을 관통하는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여 유라시아 대륙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면 수출, 마케팅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판문점

연관어

남북정상회담, 비무장지대, 휴전선, 6.25전쟁

판문점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공동경비구역 (joint security area, JSA)을 대중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구역으로서 남북 간의 회담이 개최되는 건물을 포함하여 그 주변의 장소를 의미한다.

## 더 생각해보기

통일 이후에는 판문점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요?  
또 남북 관계에서 판문점의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판문점의 기능과 역할** | 6.25전쟁중 개성에서 개최된 휴전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당시, 주변 북한군이 무력시위를 하는 등 회담장소의 중립성이 문제가 되자 북한군은 새로운 회담 장소로 ‘널문리 주막 마을’을 제안하였다. 6.25전쟁 이전에는 경기도의 작은 농촌마을이었던 널문리, 즉 판문점은 휴전회담이 열리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장소가 된 것이다. 휴전 당시 유엔군, 중공군, 북한군의 회의 진행을 위해 처음 설정된 판문점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맺은 장소로 기능하였다. 휴전회담 이후 판문점은 포로교환이나 남북 왕래 등 사람이 넘나드는 통로로,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긴 휴전을 관리하는 곳이자, 남북간 대화와 접촉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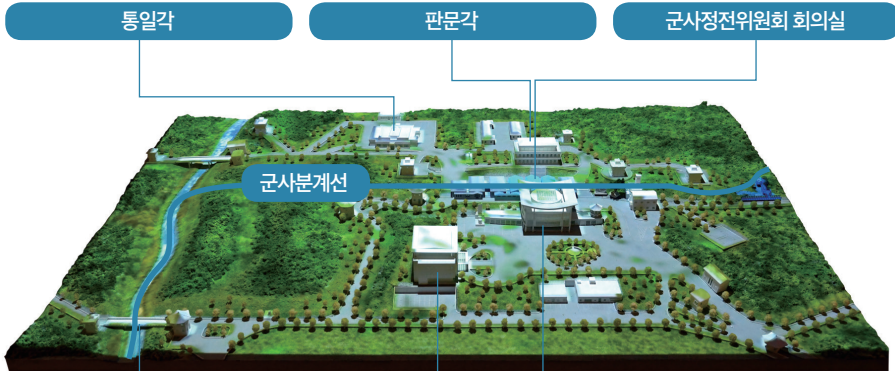
**판문점에서의 주요 사건** | 남과 북의 경비대대가 함께 관리하는 유일한 지역인 판문점은 남북한 사이의 접촉과 회담을 위한 장소 및 남북을 왕래하는 통과지점으로 활용되어 왔다. 판문점에서의 주요 사건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53.7.27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 체결
- 1971.9.20 남북적십자예비회담 개최
- 1994.6.15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판문점 경유 방북 및 귀환
- 1998.6.16 판문점을 넘어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소떼 방북
- 2018.4.27 제1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개최, '판문점 선언' 발표
- 2018.5.26 제2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개최
- 2019.6.30 남(문재인 대통령)·북(김정은 위원장)·미(트럼프 대통령) 정상 판문점 회동

- 기능: 북측 남북회담시설
- 주요 사건: 제2차 판문점 정상회담 개최

- 기능: 북측 적십자 연락업무, 종전 후 첫 공식 접촉인 1971년 적십자회담을 계기로 연락사무소와 직통 전화가 설치된 역사적인 곳

- 기능: 남북이 공유하여 선착순으로 사용
- 주요 사건: 정전협정관련 회의 진행



- 기능: 다리 중간이 군사분계선으로, 한번 건너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주요 사건: 전쟁 이후 포로교환

- 기능: 남측 남북 회담시설
- 주요 사건: 제1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개최

- 기능: 남측 적십자 연락 및 회담지원 업무
- 주요 사건: 남-북-미 정상 회동 개최

# 체육교류

🔍 **연관어** 남북정상회담, 생활체육, 스포츠, 인민체력검정

체육교류란 체육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하고 이를 위해 상호 교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 이후 남북 간 개최된 사회문화회담 62회 중 52회는 체육회담으로 84%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체육회담에서는 주로 국제 경기대회 개·폐회식에서의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남북 공동입장** | 국제 경기대회의 개·폐회식에 남북이 공동으로 입장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최초의 남북 공동입장은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에서 시작되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이르기까지 총 12회 이루어졌다.

**남북 단일팀** | 남북 단일팀은 남북한이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서 하나의 팀으로 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초의 남북 단일팀은 1991년 일본 지바에서 개최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남북한 여자탁구 단일팀으로, 중국을 꺾고 우승하였으며 영화 ‘코리아’로도 제작되었다. 그러나 선수 선발이나 운영 등에 대한 각자의 입장차이나, 체육회담 외적인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기	단일팀 구성 종목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조정, 카누 드래곤보트
	할름스타드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
2019년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게임 남자 수영 혼계영, 탁구 남자 단체전
	세계 남자 핸드볼 선수권대회

## 더 알아보기

### 남북 단일팀의 상징

남북한은 모두 남북단일팀이 국제 경기에 출전하면 명칭, 국가, 국기를 모두 중립적인 것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여 단일팀 구성이 현실화되는 밑받침이 되었다.

	남한	북한	남북단일팀
명칭	한국	조선	코리아(KOREA)
국가	애국가(명칭은 같으나 노래는 서로 다름)		아리랑
국기	태극기	인공기	한반도기



---

## 출 처

### [단행본 및 논문]

교육부, 『초등학교 5-1 사회교과서』(2017)  
국립통일교육원 영상자료 『통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국립통일교육원, 『남북관계지식사전』(2015)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2021)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2022)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보다 더 큰 통일편의』(2011)  
권영필 외, 『꼭 알아야 할 통일·북한 110가지』(2011)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2018.4.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4.27 판문점 선언 전문』  
통일부, 『2022 통일백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황인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론』(2014)

### [블로그 및 홈페이지, 기타자료]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사업회 홈페이지  
남북하나재단,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DMZ 비무장지대 홈페이지  
DMZ생태평화공원 홈페이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www.koreasummit.kr)  
e-나라지표,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통일부 공식 블로그,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무엇일까? ①편: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재조명과 남북철도의 빛과 그림자』  
통일부 공식 블로그,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무엇일까? ②편: 경원선, 동해선, 경의선 역사와 근황』  
통일부 사업 소개자료  
통일부 판문점견학지원센터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통일부, 통일정책-통일방안  
통일부 홈페이지

### [미주]

- 1 연합뉴스, 『개성공단 가동중단 4년, 비핵화 교착에 재가동 난망』(2020.2.9)
- 2 연합뉴스, 『파괴된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2022.6.16.) | 연합뉴스, 『통일부, “북, 개성공단 일부 무단가동하는 걸로 보여”』(2022.7.12.) | 연합뉴스, 『통일부, “북, 온정각·현대아산사업소 추가 철거 동향 파악”』(2022.8.8.)
- 3 연합뉴스, 『개성공단 재가동시 南경제이익은 北의 5배』(2022.9.12.)
- 4 연합뉴스, 『한반도 화약고 서해 NLL… 민족의 황금어장 되나』(2018.9.19.)
- 5 통일뉴스, 『남북, 8월초 경의선 도로 현대화 공동조사』(2018.6.28.)
- 6 연합뉴스, 『남북, 전방GP동시철거 나섰다. “무력충돌 방지 상징적 조치”』(2018.11.12.)
- 7 연합뉴스, 『남북, ‘서해 NLL 논란’』(2020.9.28.)
- 8 통일신문, 『이산가족상봉, 근본적 해결책은 없는가』(2015.10.23.)





## PART 2



# 경제생활





# 계획경제

연관어 배급제, 종합시장

계획경제란 국가가 자원의 생산 및 분배에 직접 관여하거나 또는 담당하는 제도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고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최근에는 시장을 일부 허용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계획경제에 따른 구체적인 모습** | 북한은 계획 경제에 따라 국가가 모든 생산주체, 생산시설을 관리하며 인력 배치 또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북한 주민들은 협동농장, 공장 등에서 일하며 나라에서 배급이나 월급을 받아 생활한다.



과일을 배급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

**경제활동의 변화** | 북한은 제도상으로는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경제활동과 소유가 인정되면서 계획경제와 시장화가 함께 존재하는 모습을 보인다.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생산수단 소유는 인정되지 않고 노동에 따라 받는 몫과 이것으로 구매 한 가정용품, 소비품 등만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2년 7.1 경제관리조치에 따라 합법적으로 얻은 개인 수입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 및 상속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 임차권도 개인 소유로 상속의 대상이다.



지방의 장마당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습

강기경 ©

## 더 알아보기

###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2014년 이른바 '5.30 담화'를 통해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적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방침이며 김정은 시기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기조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제도상 사회주의의 소유제도와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 경제에서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어 계획과 시장이 혼용된 이중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 배급제

연관어

고난의 행군, 계획경제, 종합시장, 주택, 출신성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배급제는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는 제도로 북한에서는 공급제라는 용어가 일상적이다. 북한에서는 주민들에게 의식주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배급제를 통해 공급해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극심해지면서 배급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기존 배급제** | 북한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라고 하면서도 식량, 의복, 주택 등 생활필수품 배급과 사회보장 혜택을 출신성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였다. 북한의 식량배급제는 각 직장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을 포함한 식량배급표를 지급받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정된 배급소에서 배급표와 식량대금을 지불하고 배급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급수별 1일 식량 공급량

급수	공급량	대상자
1급	900g	유해직종 종사자, 중노동자
2급	800g	탄광·광산 운반공, 중장비 운전자
3급	700g	일반노동자
4급	600g	대학생, 환자, 연로보장 근로자
5급	500g	중학생
6급	400g	소학생
7급	300g	연로보장자, 유치원생
8급	200g	2~4세 어린이, 죄수
9급	100g	1세 이하의 유아

**배급제 중단에 따른 시장화 확산** | 배급이 중단되어 국가에 의존했던 생활이 어렵게 되자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생계유지 방법을 찾아야 했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조달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현재 북한에서는 시장의 확산으로 사실상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 더 알아보기

### 북한경제를 움직이는 '돈주'

돈주란 시장에서 부를 축적한 신흥 부유계층을 이르는 말로 북한에서 배급제가 중단되고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돈주들은 국가 곳곳에 자금을 투입해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사실상 북한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돈주들은 기본적으로 당·국가 고위관료들과 담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당·국가 고위관료들은 돈주들을 봐주면서 금전적 이득을 얻고 있다.



분조관리제는 북한의 협동농장에서 실시하는 기본적인 운영관리방식으로 농사일을 담당하는 가장 작은 기본단위인 분조(分組)가 중심인 운영방식이다.

**분조관리제의 실시 과정** | 북한에서는 1960년대부터 분조관리제를 시행해왔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분조 당 인원을 기존 10~25명에서 3~4명 단위로 나누어 가족단위 분조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 6월 28일 김정은이 ‘현실 요구에 맞게 우리식의 경제관리 방법을 연구, 완성할 것’을 지시하면서 북한에서 경제관리 개선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6.28 조치에 따른 가족단위 분조관리제 핵심내용** | 가족단위 분조관리제의 핵심내용 중 하나가 협동농장의 분조 인원 축소로 이는 협동농장의 작업분조 단위를 기존 10~25명에서 가족·친지 단위의 3~4명으로 축소하여 논밭을 경작하도록 한 것이다. 계획 생산량에 대해서는 국가와 분조가 7:3 혹은 6:4의 비율로 나누되 계획 초과 생산량은 모두 분조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이후에는 4:6제가 시행되어 농민들이 국가보다 많은 60%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고자 하였다. 가족단위 분조관리제의 실시 목적은 노동과 실적에 맞게 생산물을 분배함으로써 농민의 근로의욕을 높여 농업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가족단위 분조관리제 도입이 2013년과 2014년도 농산물 생산증대에 이바지했다고 공표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가족단위 분조관리제 실시에 따른 생산량 증가

북한의 한 협동농장관계자에 따르면 가족단위 분조관리제 실시 이후 생산량이 30~40% 늘었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의 농업생산은 2016년 482만 톤까지 성장하였고 식량난이 진행된 이후 100만 톤 이상에 이르던 식량 부족량이 2013년 이후 약 50만 톤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노동신문을 통해 가족단위 분조관리제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협동농장의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년도	생산량(단위: 천톤)	주요 이슈	년도	생산량(단위: 천톤)	주요 이슈
1990	4,013		2002	4,134	7.1 조치에 따른 분조관리제 실시
1995	3,451	대홍수 발생	2012	4,676	6.28 조치에 따른 포전담당제 전국적 실시
2000	3,590		2016	4,823	

## 신용카드(나래카드, 전성카드)

연관어 화폐

신용카드는 일정기한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금 없이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카드이며 직불카드는 예금한도 잔액에서 사용 즉시 돈이 빠져나가는 카드이다.

**북한의 카드사용 실태** |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이 확대되면서 화폐의 유통과 활용이 증가하였고 2010년대에 들어 전자카드결제시스템이 구축되면서 평양을 중심으로 전자결제가 가능한 카드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나래카드

전성카드

**북한의 전자결제카드: 나래카드, 전성카드** | 조선무역은행이 2010년 발행한 '나래카드'는 외화(외국통화)전용 선불충전식 전자결제카드이다. 사용자가 결제시스템이 도입된 외화상점이나 백화점에서 카드를 통해 물건 값을 결제하면, 충전된 외화는 국가에 의해 지정된 환율로 계산되어 원화로 평가되어 결제가 이루어진다. 2015년에 조선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전성카드'는 외화 충전을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나래카드와 달리 북한 원화의 충전을 통해 사용하는 내화전용 선불충전식 전자결제카드이다. 나래카드와 전성카드 외에도 고려은행에서 발행한 고려카드, 황금의 삼각주은행이 발행한 선봉카드 등 수십 여종의 카드들이 북한 사회에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더 알아보기

### 북한의 모바일 간편결제

북한은 외부 인터넷 사용이 차단되어 있어서 북한 당국이 구축한 국내 전산망인 인트라넷을 통해 컴퓨터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에도 인트라넷을 통해 북한 자체적으로 만든 애플리케이션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다. 2018년 하반기에는 '올림'이라는 결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는데, 올림은 카드의 충전금액이나 전화번호 요금과 연동하여 전자상점 결제가 가능하고 카드 충전이나 올림 사용자 간 송금 기능도 있다고 선전하였다. 하지만 스마트폰(북한식 용어: 지능형 손전화기)이 최소 500달러 이상의 비싼 가격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 주민이나 고소득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직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처럼 모바일 간편결제가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

## 외화벌이꾼

🔍 **연관어** 인기 직업, 진로, 출신성분

외화벌이꾼은 북한 대내외에서 일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을 말하며, 외교관, 무역일꾼, 외향선원, 해외과건 건설근로자,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관광산업 종사자 등이 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해킹하여 불법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조직이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밝혀져 미국 백악관이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외화벌이 직종의 인기** | 1990년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심해지고 배급이 사실상 끊기자 북한 주민들 사이에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외화를 벌 수 있는 직종이 인기가 많아졌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직업의 선택이 본인의 의사보다는 당과 행정기관의 조정의 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북한 주민들은 외화벌이가 가능한 직종에 배치되기를 희망하지만, 보통은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 배치된다고 한다.

**해외 북한식당의 외화벌이 현황** | 해외 북한식당은 북한 외화수입의 주요 경로 중 하나이다. 2016년 기준 해외 북한식당은 12개국에 13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영업하는 북한식당이 90~100개로 가장 많다. 이 밖에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을 비롯한 아시아나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에도 북한식당이 있다. 해외 북한식당 한 곳이 북한으로 보내는 돈은 적어도 한 해 30만 달러라고 한다. 전체로는 연간 1,0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억 달러로 추산된다. 해외 북한식당은 외화벌이를 위해 음식과 공연 외에도 북한에서 가져온 골동품이나 만수대창작사에서 그린 그림, 조각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기도 한다.

### 더 알아보기

#### 북한의 그림과 외화벌이

그동안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은 만화영화나 조각품 수출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 그림 작품이다. 북한은 미술대학 출신 화가들을 솜씨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수출용 그림을 제작하도록 하여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북한의 만수대창작사에서는 800여 명의 직원이 1인당 월 5장 정도의 그림을 그린다. 그림은 국경지대의 중국 거러나 도시에서 판매된다. 원래 북한은 선전간판 등의 제작을 주로 하였지만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북한 그림 수요가 생기자 그림을 제작해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제 북한에서 그림은 주 외화벌이 수단이 되었다.



중국 다렌 국제박람회에서 판매되고 있는 북한미술품

# 종합시장

연관어

계획경제, 배급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장마당’은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어 배급제가 중단되자 주민들 간 물품 거래가 활성화 된 시장으로 오늘날은 ‘종합시장’의 형태로 운영되며 ‘지역시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북한 시장의 역사** | 북한은 계획경제체제 속에 배급제를 실시하였으나 주민들 간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이 존재 해 왔다.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으로 북한의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장마당은 배급제를 대체해 주민들의 수요를 해결하는 공간이 되었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3월 종합시장 상설화를 담은 조치가 발표되면서 시장은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었고 농산물만 판매하던 농민시장은 공산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종합시장으로 확대되었다.



## 북한 시장화 확산 과정

기간 및 단계	1단계 (1958년~1980년대 말)	2단계 (1990년~1990년대 말)	3단계 (2000년대 이후)
특징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화 과정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화의 공간적 확대	시장의 제도적 허용
운영형태	- 식량거래금지, 잉여농축산물·부산물·소소한 가내수공업제품 거래	- 농민시장의 상설화 (식량, 공산품 등 거래)	- 상설시장 운영 - 소비재, 중간재, 수입재 전문 시장으로 분화 운영 도입

### 더 알아보기

### 북한판 MZ세대 ‘장마당 세대’<sup>2)</sup>

장마당 세대는 북한에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와 그 이후 태어나 자란 세대로 장마당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 2000년대 초와 2010년대 이후 출생자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전문가들은 2,500만명에 달하는 북한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350만명을 장마당 세대로 보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배급제가 붕괴된 이후에 태어나 국가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랐고 장마당을 통해 자급자족하며 살아온 세대이다. 따라서 이전 세대와 달리 북한 정권이나 수령에 대한 충성심보다 돈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외부문물도 거부감 없이 수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연관어 배급제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란 북한이 2002년 7월 1일 발표한 ‘가격 및 임금현실화,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근로자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 강화’ 등의 조치로 기존의 계획경제 틀 내에서 시장경제 기능을 일부 도입한 것이다.

**주요 내용** | 북한은 1990년대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에 의한 배급제를 축소하였다. 원래 북한에서는 의식주와 관련된 상품을 거의 무상으로 공급해왔지만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더 이상 국가가 모든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지 않게 되었다. 북한 당국은 식량, 공산품, 주택 및 전력사용료 등 전반적 물가를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올렸고 근로자 기준임금도 평균 18~25배 인상하였다. 이것이 7.1 조치의 핵심인 물가 및 임금의 현실화 조치이다. 더불어 개인 및 기업, 협동농장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전의 계획목표량 달성방식이 아닌 생산성 향상에 따라 각종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체제로 변화한 것이다.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전후 비교

내용	조치 전	조치 후
가격 및 임금	- 시장가격이 국정가격(나라에서 정한 가격)의 수십 혹은 수백배 - 월평균 임금 100~150원	- 시장가격과 국정가격이 비슷해짐 - 월평균 임금 2,000원 내외
경영권	- 각 공장·기업소에 대한 국가통제	- 중앙기관의 각종 규제 폐지
분배방식	- 평등주의적 분배 - ‘일한 만큼 분배’라는 원칙 무시	- ‘벌어들인 수입’을 기준으로 분배 - 수익성에 따른 상여금 지급
사회보장	- 식량, 소비재, 주택 등 사실상 무료	- 식량, 소비재, 주택의 가격 지불

출처: 허상식, 『북한경제의 개혁전망: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004)

#### 더 알아보기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노동 인센티브의 변화

7.1 조치에 따라 계획을 초과달성한 공장·기업소의 노동자들은 기본임금 외에 추가적인 임금, 즉 상금·장려금을 더 받게 되었다. 7.1 조치 이후 북한 주민들은 기본임금보다 생산실적에 따라 받는 추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공장·기업소의 생산실적에 따라 노동자의 월급은 100배에서 최고 2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철광석을 중국 기업에 수출하는 광산 노동자들은 평균 30~40만원의 월급을 받고 생산실적에 따라 최고 80만원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도 생겨난 것으로 전해진다.

# 화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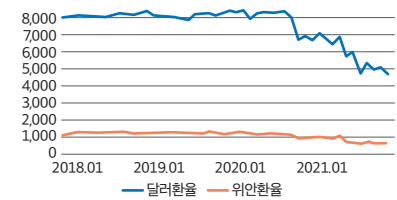
연관어 신용카드

북한의 모든 경제활동은 국가의 통제에 의해 진행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이지만, 화폐는 여전히 중요한 교환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의 화폐단위는 우리와 같은 '원'이지만 실제 화폐의 가치는 다르다. 북한의 화폐는 지폐 9종류(5원~5000원)와 동전 4종류(1전~50전)로 되어 있다.

**제5차 화폐개혁(2009년)의 실패** | 북한에서는 총 다섯 차례의 화폐 개혁(1947년, 1959년, 1979년, 1992년, 2009년)이 있었다. 2009년 11월 30일에 발표된 제5차 화폐개혁은 일주일동안 주민들이 보유한 구화폐 100북한원을 신화폐 1북한원으로 교환한 조치였다. 화폐개혁으로 현금이 100분의 1로 교환되었으나 국가가 정하는 임금, 환율, 쌀 가격 등은 거의 변경되지 않아 현금이 100분의 1로 줄어들게 되었다.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화폐개혁은 2개월 만에 실패로 끝났고, 주민들은 북한 원화를 기피하고 미국의 달러나 중국의 위안화를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

## 최근 북한시장의 달러(미국화폐) 및 위안(중국화폐) 환율 추이

| 북한 당국에서 정한 공식환율은 1달러 당 100원 정도지만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시장환율은 7년이 넘는 기간동안 1달러 당 7~8,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다. 2021년 국경봉쇄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달러환율이 5,000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지만 2022년 북한의 환율은 다시 7~8,000원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 KDI 데이터

### 더 알아보기

### 최근 북한 경제에서 주목할 만한 키워드 '돈표'<sup>3</sup>



돈표 발권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외화를 통제하고 국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2021년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이 돈표를 다시 발권하며 모든 외화를 돈표와 교환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북한당국은 돈표를 현금과 동일한 입시통화로 홍보하고 화폐공급이 정상화되면 현금과 교환해준다고 약속하며 돈표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단행본 및 논문]**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21)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22)

김명성, 『김정은의 통치자금, 해외북한식당』 북한연구소 (2016.04.)

김지은, 『북한은 지금: 배송사업 열풍』 북한연구소 (2018.09.)

북한경제연구, 『북한의 '중앙은행 돈표' 발행의 배경과 시사점: 개연적 추론』 (2022)

손광수, 『북한의 금융구조 변화(下): 북한의 전화돈과 모바일 결제 앱 '울람』 북한연구소 (2020.06.)

손해민, 『북한은 지금: 전자결제카드가 온라인 쇼핑몰로 확장』 북한연구소 (2019.01.)

이상만,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 경험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반도미래연구 (2021)

이유진, 『북한의 금융구조 변화(上): 북한에 금융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연구소 (2020.05.)

임수호 외 2인,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12.)

정승호, 『2021년 북한의 시장 물가 및 환율의 추세와 특징』 KDI 북한경제리뷰 (2022)

정정현, 『북한의 협동농장 생산체제에 있어 분조관리제의 변화와 농업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협동조합경영연구 (2018.06.)

조명철,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12.)

평화문제연구소, 『클릭! 통일교육]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13 : 북한에도 부자가 있을까?』 (2012)

평화문제연구소, 『클릭! 통일교육]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13 : 북한의 상품유통체계는?』 (2012)

**[블로그 및 홈페이지, 기타자료]**

데일리NK, <https://www.dailynk.com/20220614-2/>

**[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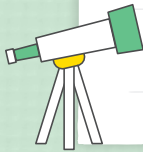
- 1 연합뉴스, 「저변 넓히는 北온라인쇼핑몰 '만물상'...전자결제에 해외판매까지」 (2021.03.14.)
- 2 VOA, 「북한 '장마당 세대', 부모와 정치·경제 성향 크게 달라」 (2020.09.25.)
- 3 프리덤 앤 라이프, 「[단독] 북한 외화통제 다시 나섰다. '돈표' 재발권 북한, 심각한 경제난 반영」 (2021.09.06.)





**PART 3**

# 교육제도· 학교생활





## 경연(경시대회)

연관어 대학입시, 컴퓨터 교육, 학교행사

북한에서 경연은 각종 대회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연이 많다.

**경연종류**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과학기술 육성에 큰 관심을 두고 ‘전국대학생 컴퓨터프로그램 경연대회’, ‘전국과학기술축전’, ‘전국음성인식프로그램경연 및 학술발표회’, ‘전국청년과학기술 발표회’ 등 다양한 경연을 개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연	내용
다과목 경연	여러 교과목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연
속독 경연	집중력을 발휘하여 내용을 파악하면서 글을 최대한 빨리 읽는 경연
혁명역사 도록통달경연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 그림, 글을 공부한 후 외워서 말하는 경연
전국 알아맞히기 경연 (TV프로그램)	우리나라의 장학퀴즈 프로그램처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소학교 학생들이 나와 여러 가지 퀴즈를 푸는 경연
외국어 통달경연	우리나라의 영어 스피킹 대회처럼 외국문학, 외국영화 등의 영어를 외워서 발표하는 경연

**경연 과정** | 대부분 경연은 교내 경쟁을 거쳐 시·도 경연, 전국 대회에 해당하는 중앙 경연까지 이어진다. 도 경연이나 중앙 경연까지 올라간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학 시 유리한 점이 있고, 국제대회에 참가할 기회도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연은 북한 학생들에게 경험이자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경연

### 더 알아보기

####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경연 (1986년~)<sup>1)</sup>

북한에는 1986년부터 시작된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경연’이 있다. 이 TV프로그램은 모든 북한 주민들이 문화를 대중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한다. 노래경연에서는 자유곡 한 곡과 지정곡 한 곡을 불러야 하는데 지정곡은 혁명가요나 전시가요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경연은 노동자부, 농민부, 가정부인부, 대학생부 등으로 나뉘며 노래의 사상 주제를 예술적으로 잘 표현했는지 평가 기준이다. 심사에서 1등을 하면 컬러TV를 상품으로 받는다고 한다.

# 고급중학교

연관어 초급중학교, 진로, 직통생

고급중학교는 초급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이곳에서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취업할 때 필요한 기술들도 함께 가르친다.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생활** |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수업은 보통 오전 8시에 시작하며 하루 평균 7시간 수업을 받는다. 연간 4~10주 정도 생산활동에 동원되며 소년단 생활을 끝내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에 가입하며, 붉은청년근위대에 들어가 각종 군사훈련 등을 받는다.

**고급중학교의 과목** | 고급중학교에서는 수학이나 영어, 김일성 가계에 관한 내용 등을 학습하되 특히 지도자들의 혁명역사에 대해 공부하게 된다. 사회주의 도덕 또한 기존과 달리 법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된다.

고급중학교 교육과정

교과목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교과목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1	2	3			1	2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		3	2		위대한 수령 김정일 대원수님 혁명력사			2	4
항일의 녀성 영웅 김정숙 어머니님 혁명력사		1/2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력사		1	1	1
당 정책		1주	1주	1주	사회주의 도덕과 법		1	1	1

교과목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교과목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교과목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1	2	3		1	2	3		1	2	3				
심리와 논리			1주	국어문학	3	2	3	화학	3	4	2	생물	3	3	2
한문	1	1	1	영어	3	3	3	정보기술	2	1	1	기초기술	2주	3주	3주
역사	1	1	2	지리	1	1	1	공업(농업)기초			4	군사활동초보		1주	1주
수학	5	5/4	4	물리	5	4	3	체육	1	1	1	예술	1	1	1

## 더 알아보기

### 북한의 기술고급중학교

북한은 최근 산업미술, 피복, 금속, 석탄, 화학, 농산, 축산,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고급중학교를 각 지역에 설립하고 있다.<sup>2</sup> 기술고급중학교는 한국의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이 기술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곳이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도입 후 계획된 새로운 학교로 2017년 첫 개교가 이루어 졌다. 북한에서는 기존의 고급중학교 중에서 적합한 학교들을 선정해 기술고급중학교로 전환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제철소나 제염소 등을 비롯하여 자신의 특기에 맞는 분야에 진출하게 된다.

# 교복

연관어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소년단, 대학

북한은 소학교부터 초급·고급중학교,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모두 교복을 입는다. 학교마다 교복 디자인이 다른 우리와 달리 북한은 모든 학교 교복 디자인이 똑같으며 국가에서 여름 및 겨울교복을 공급한다.

**2021년 북한의 교복도안** |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2021년 북한의 새 교복 도안을 공개하면서 ‘학생들의 연령과 심리적 특성에 맞게’ 색상과 모양을 바꾸었다고 설명했다.<sup>3</sup>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교복에 있는 붉은 넥타이는 소년단의 상징으로 소학교 2학년부터 초급중학교 3학년까지 매고 다녀야 한다. 고급중학교와 대학생 교복은 색깔과 디자인 면에서 소학교, 초급중학교와 차이가 크다. 반바지였던 남학생 하복이 고급중학교부터 보다 점잖은 긴바지로 바뀌었고 색상도 하의가 회색, 셔츠가 흰색, 재킷이 남색으로 더욱 어두워졌다.



평양미술대학 창작가들이 도안한 소학교와 초등학교 학생 교복(사진-조선의 오늘 갈무리)



평양미술대학 창작가들이 도안한 고급중학교 학생과 대학생 교복(사진-조선의 오늘 갈무리)

**교복의 무상공급 제도** | 북한은 2022년 추진할 주요 과제로 새로운 형태의 교복과 가방 생산을 강조하며 교복 무상공급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교복 도안을 두 차례나 새롭게 디자인하여 공급하는 등 교복 무상공급을 강조하고 있다.<sup>4</sup>

더 알아보기

북한의 단체복 문화<sup>5</sup>

북한에서 옷은 사상통제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다. 따라서 단정한 스타일의 단체복을 강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단체복으로는 교복, 군복, 인민복 등이 있다. 교복을 공급할 때는 가방과 신발, 각종 학용품도 함께 나누어준다. 인민복은 북한의 최고지도자들도 공식 석상에서 자주 입고 등장하여 작업복이나 생활복으로도 즐겨 입는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도 장마당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다양한 패션 아이템이 유입되고 있어 의복문화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 교원

연관어

소조활동,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북한에서도 교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교원'이다. 유치원 교원은 '교양원', 대학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수'라고 부른다.



수업중인 소학교 담임선생님

**북한의 교원 양성** | 북한에서 유치원 교양원이나 소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교원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대표적인 교원 대학으로는 평양교원대학이 있으며 3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등 교사가 되려면 사범대학을 나와야 한다. 대표적인 사범대학은 김형직사범대학, 김철주사범대학 등이 있다. 6년제인 김형직 사범대학을 제외하고 다른 사범대학은 4~5년제로 운영된다. 김형직 사범대학은 북한에서 가장 권위있는 교원양성기관이며 이곳을 졸업한 학생들은 지방의 교원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교원이 되거나 교육행정기관의 관료로 일하기도 한다.

북한의 대표 교원 양성 기관

종류	대학	특징
교원대학	평양교원대학	평양시 만경대구역 위치, 전국교원대학의 핵심
	김정숙교원대학	함경북도 회령시 위치, 최근 현대화 리모델링, 유치원 교양원 및 소학교 교원 양성
사범대학	김형직사범대학	평양시 동대원구역 위치, 북한 최고의 사범대학
	김철주사범대학	평양시 선교구역 위치, 평양의 중등교원 양성

**남한과 북한 교원의 차이점** | 북한에도 학교 행정의 총책임을 맡는 교장이 있고 남한의 교감 역할을 하는 부교장도 있다. 하지만 매년 담임 선생님이 변경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졸업할 때까지 같은 선생님이 담임을 맡게 된다.

더 알아보기

북한에서 교원의 지위

북한에서 교원은 한때 월급도 많고 '직업혁명가'로 불리며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이었다. 하지만 경제난 이후 배급제가 중단되고 교원의 처우 역시 예전보다 악화되면서 최근의 인식도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 차원에서 학교 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직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특별한 공로를 세운 교원에게 '인민 교원', '노력 영웅' 등의 칭호를 수여하고 있다.

## 꼬마 과제

연관어 소년단, 방학, 생활총화

북한에서 소년단원들은 주어진 활동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를 ‘꼬마 과제’ 또는 ‘꼬마 계획’이라고 한다. 꼬마 과제는 대표적으로 나무 심기나 마을 청소, 금속이나 종이 같은 재활용품 수집, 군인들에게 보낼 토끼 가죽 모으기 등이 있다.

**꼬마 과제의 유래** | 북한의 사전에서는 꼬마 계획을 ‘소년단원들이 좋은 일 하기 운동의 목표를 내걸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운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좋은 일 하기 운동은 학생들이 나라에 보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벌이는 대중운동으로 1970~1980년대에는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꼬마 5개년 계획’, ‘꼬마 7개년 계획’ 등도 수립되었다.



토끼 기르기 꼬마 과제를 하는 학생들

**꼬마 과제의 실상** | 꼬마 과제는 방과 후, 방학 기간 등에 이루어지는데, 학생들은 토끼가죽 몇 매, 파철 몇 Kg 등처럼 주어진 할당량을 제출해야 한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생활총화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매일같이 일을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꼬마 과제 때문에 학교 공부나 숙제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꼬마 과제를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 생활기록부(학적부)의 품행 평가가 갈리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부족한 양은 시장에서 구입해 제출하기도 한다.<sup>6</sup>

### 더 알아보기

#### 북한 학생 1인당 꼬마과제 할당량

꼬마 과제는 지역이나 상황별로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해당 학교가 역점을 두는 과업 또는 그 지역의 특성(해당 지역 특산물 채취 등)에 맞게 꼬마 과제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2021년 북한의 한 학교 여름방학 꼬마 과제는 표의 내용과 같다. 이 중, 장갑은 평양 건설장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밖에도 병해충 피해막이를 위한 벌레잡기 과제도 있는데 학생들은 방학동안 500ml 유리병에 가득 담아 제출해야 한다.

품목	공병	파유리	파지	파철	파알루미늄	토끼가죽	손가락장갑	병어리장갑
할당량	2개	1kg	1kg	3kg	100g	1매	1개	5개

# 김일성종합대학

🔍 **연관어** 대학, 대학입시

김일성종합대학은 1946년 10월에 평양에 개교한 북한 최고의 대학이며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많은 핵심 인사들을 배출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규모와 교육과정** | 김일성종합대학은 평양시 대성구역에 위치하며 북한 최초의 종합대학으로 흔히 ‘종합대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5개 학부에 60여개의 학과가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양한 연구소 또한 존재한다. 최근까지 알려진 바로는 학생 수는 12,000명, 교직원 수는 약 5,500명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인문사회 학부와 자연과학 학부가 있으며 4-6년 동안 수업을 받는다. 남한과 같이 한 학년을 2학기로 나누고 방학기간은 매 학년마다 9주 정도 된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입학조건** | 김일성종합대학의 입학 경쟁률은 상당히 높다.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출신성분도 좋아야 한다. 입학생을 뽑을 때 예비시험 성적, 본고사 성적, 출신 성분, 정치조직 등을 모두 반영한다. 특히 제1중학교 졸업생이나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많이 입학한다. 이처럼 어려운 입시과정을 통과하면서도 김일성종합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졸업 후 그들은 노동당 또는 각 중앙부처, 중요기관의 간부로 일하게 되거나 학자 또는 대학교수도 될 수 있다.



## 더 알아보기

### 김일성종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김일성종합대학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유학생들을 받고 있다. 현재 김일성종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약 100여명이 재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학 지원자들은 출생 확인서와 무범죄 확인서 등을 북한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신체검사에도 합격해야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과는 달리 유학생들은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내야한다. 최근 김일성종합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이 지켜야 할 생활질서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는데 유학생은 정치, 경제, 군사 및 대외 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sup>7</sup>

# 대학

연관어 진로, 고급중학교

북한의 대학은 ‘온 사회의 인텔리화’를 위한 정책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이다. 다양한 분야의 대학이 존재하며 교육 기간은 3~7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의 대학들** | 북한에도 종합대학, 일반 단과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 외국어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공장대학 등 다양한 대학이 있다. 최근에는 군사대학이 각광을 받고 있다. 보통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은 학부에 따라 4~6년을 다니고, 교원대학은 3년, 사범대학은 4년을 다녀야 한다. 북한의 많은 대학 중에서 최고 명문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일성의 이름이 들어간만큼 북한을 대표하는 대학 중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곳은 실력뿐만 아니라 출신성분까지도 좋아야 갈 수 있는 대학이다. 그리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은 공학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북한 최고 대학이며 평성시의 이과대학 또한 수학, 과학 등 이과 계통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다니는 대학으로 손꼽힌다.

북한의 3대 대학

대학명	위치	특징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시 대성구역	북한 최고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시 중구역	북한 과학기술 교육의 최고대학
이과대학	평안남도 평성시	이과계통 전공에서 최고대학

이외에도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평양외국어대학, 북한 유일의 사립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사를 양성하는 평양교원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 등이 있다. 그리고 평양음악무용대학, 평양미술대학, 김원균평양음악대학 등에서는 북한의 유명 예술인들을 배출하고 있다.

**북한 대학생의 구성** | 북한의 대학생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진다. 먼저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직통생’이 있다. 그리고 군 복무를 완전히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는 ‘제대군인 대학생’, 직장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는 ‘현직생’이 있다. 남한의 대학생들이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데 비해 북한 대학생들의 인적 구성은 매우 다양하다.

### 더 생각해보기

남한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나 선호에 따라 강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도 수강신청이 있을까요? 북한의 대학에서 배우는 외국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북한의 대학생들** | 북한 대학생들은 당국에서 공급해준 교복을 입고 생활한다. 보통 학교 일과는 오전 7시 30분 정도부터 시작하며 학교에 오면 가장 먼저 독보와 출석 점검 등을 하고 강의를 듣는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학생들은 도서관 등지에서 공부를 더 하거나 악기, 스포츠, 사상교육 등 동아리 활동을 하며 오후 시간을 보낸다.

북한 대학생의 하루 일과표(기숙사 생활 기준)

시간	활동
7:30	등교 및 강의 준비
8:00	3강(90분)
11:10~11:30	업간체조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오후 강의
16:00~18:00	공부, 동아리활동, 농촌일손돕기 등 활동
18:00~19:00	저녁식사
19:00~23:00	자유 시간 및 기숙사 점검
23:00 ~	취침

**우리나라 대학생과의 차이점** | 북한 대학생들은 학업 외에도 ‘군사훈련’과 ‘의무 노동’을 추가로 해야 한다. 군사훈련은 남녀 학생 모두에게 해당하며 6개월 군사훈련을 받아야 졸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의무 노동은 모내기, 추수 등 농촌 일을 돕는 활동을 의미하며 연간 12~14주 정도 해야 한다.

군사훈련이나 의무 노동 외에도 남한과 북한의 대학생들의 생활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먼저 대부분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규율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대학에서 연애가 금지되어 있다. 물론 몰래 연애를 하는 대학생들도 있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유의 상징인 대학에서 많은 제약들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무상교육 방침에 따라 북한에는 등록금 자체가 없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많은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더 알아보기**

**김일성 가계의 이름을 딴 학교들**

북한에는 지도자나 그들의 가족, 또는 항일전투 영웅의 이름을 딴 대학 이름들이 많다. 특히 김일성의 이름을 딴 김일성 종합대학은 북한 내 최고의 대학이다. 그리고 그 이후 지도자인 김정일과 김정은의 이름을 딴 대학 또한 존재한다. 먼저 김정일의 이름을 딴 김정일정치군사대학이 있다. 이곳은 노동당 작전부 소속으로 대남전투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이들 대학 외에도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과 어머니인 강반석, 그리고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의 이름을 딴 대학들도 존재한다.



# 대학입시

연관어 진로, 대학, 직통생

북한에서도 사회적으로 특정 지위를 얻거나 출세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북한의 대학입시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남한에서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수능능력시험을 보지만 북한에서는 남한과는 다른 형태의 대학입시제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대학입학 시험** | 북한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예비시험과 본시험을 치르게 된다. 먼저 예비시험을 보고 통과하게 되면 북한 당국에서 응시 가능한 대학을 통보 받는다. 그 후에 각 대학으로 직접 가서 본시험을 보고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북한의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은 모두 예비시험을 봐야한다. 고급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12월경에 혁명역사, 국어, 수학, 영어, 화학, 물리 6개 과목을 한 과목당 45분씩 이틀에 나눠서 치른다. 예비시험이후 ‘대학생 모집처’라는 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는 대학을 배정받으면 해당 대학에 가서 본시험을 치른다. 본시험은 보통 2월에 보는데 학과 시험과 면접뿐만 아니라 체력장(체력검정)까지도 평가한다.

<북한 학생의 대학 입학 과정>



**다양한 대학 입학 경로** | 북한에서 고급중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진학하는 학생은 전체 졸업생의 10% 정도이다. 이러한 학생들을 ‘직통생’이라고 부른다. 직통생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해진 직장에 취직하거나 군대에 가게 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들 또한 추천에 의해 다시 대학에 입학하기도 한다.

더 알아보기

북한의 인기학과

북한에서 인기대학 부동의 1위는 김일성종합대학이다. 다만 시대별로 학과에 대한 선호도는 조금씩 달라져왔다. 1960년대는 법학부가 높은 인기를 누렸다. 판검사에 대한 선망은 남한과 북한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다가 김정일의 등장과 함께 그가 졸업한 정치경제학부가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실제 김정일은 정치경제학부 졸업생들을 대거 간부로 등용하였다.<sup>8</sup> 김정은 통치 시기인 현재에는 김정은이 졸업한 물리학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를 반영하듯 당에도 이공계 출신의 간부 숫자가 증가되었다.

# 만경대혁명학원

연관어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진로

만경대혁명학원은 항일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해 만들어진 북한의 교육기관이다. 최근에는 이들뿐만 아니라 6.25전쟁의 희생자 자녀들을 비롯해 공화국 영웅, 군인 등 혁명을 이끈 가족의 자녀와 국가 고위 간부의 자녀가 입학하기도 한다.

**만경대혁명학원의 시작** | 만경대혁명학원은 1947년 10월에 ‘혁명자유가족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에 항일투사의 자녀들을 배려하고 이들을 북한의 핵심 간부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초기에는 소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교육과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11세부터 19세에 이르는 9년의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의 특징** | 만경대혁명학원은 북한 내 다른 학교들과 달리 교육성이 아닌 인민무력성 소속이다. 즉 교육부가 아닌 국방부에 소속된 교육기관인 셈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군 복장을 하고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며 졸업 후에 필수적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군 복무가 끝나면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같은 정치 군사 분야의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하거나 북한의 주요 기관의 초급 간부로 일할 수도 있다. 북한에서는 나라의 핵심 간부를 양성하는 이곳에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 학원 출신들 또한 높은 충성도를 보인다.

## 더 알아보기

### 강반석혁명학원

북한에는 만경대혁명학원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면서 여성들을 교육하는 강반석혁명학원이 있다. 기존 만경대혁명학원이 항일투사의 유자녀와 6.25전쟁 중 사망한 조선인민군의 유자녀까지 모두 받기에는 포화상태였기에 6.25전쟁의 유자녀들을 위한 혁명학원을 추가로 세우기로 하였고 이때 남포혁명학원과 해주혁명학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1972년에 김일성이 자신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의 생모 이름을 따 남포혁명학원을 강반석혁명학원으로 고치게 되었다. 강반석혁명학원은 1980년대 중반 평양의 만경대구역으로 이전하면서 원생들도 여학생들만 받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북한의 여성 간부양성기지로 손꼽히고 있다.<sup>9</sup>

# 방학

🔍 **연관어** 꼬마 과제, 놀이, 이동(여행)

북한도 여름과 겨울에 1달 반 정도의 방학기간이 있다. 우리와 달리 북한은 4월에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겨울방학이 끝나고 3월에 학년말 시험을 봐야한다.

**방학 생활** | 북한 학생들은 방학동안 소년단 방학계획에 따라 조직 생활에 참여한다. 동네에 사는 학급 친구들 6~7명 정도가 모여 아침 달리기를 하거나 독보, 방학 숙제, 일손 돕기 등을 함께 한다. 방학 기간 중 열흘에 한 번은 비상소집일이기 때문에 학교에 나가 청소나 눈 치우기를 하거나 숙제 검사, 생활 점검 등을 받아야 한다. 북한 학생들도 우리처럼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고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거나 외밭기라는 썰매를 타며 방학을 즐기기도 한다.

학교급	방학기간
소학교	-여름방학: 8월 중 1달 정도 -겨울방학: 1~2월 중 1달 반 정도
중학교	-여름방학: 8월 중 15일 정도 -겨울방학: 1월에 1달 정도
대학교	-여름방학: 8월 중 15~20일 정도 -겨울방학: 1월 중 15~20일 정도

**방학 과제** | 방학 숙제에는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목 숙제도 있지만 토끼 길러 가죽 모아 내기, 깡통과 같은 폐자재 모아 내기, 종이 모아 내기 등 꼬마 과제가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석탄 줍기, 고사리 캐기, 나무 열매 따기, 조개 캐기, 딸감 모아 오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꼬마 과제는 학생 개개인이 해야 할 양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양을 채우지 못하면 생활총화 때 비판을 받기 때문에 학기 중이나 주말뿐 아니라 방학에도 해야 한다.



눈썰매를 타는 북한어린이들

## 더 알아보기

### 북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sup>10</sup>

북한에는 방학이 시작되면 생계를 위해 돈벌이에 나서는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한다. 공부를 잘하는 대학생의 경우 개인과외로 돈을 벌기도 한다. 일부 남자 대학생은 방학 동안 장마당에서 물품을 나르는 일을 하기도 하고 여학생들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도와 돈을 벌기도 한다.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은 약 50~100위안(한화 약 1~2만원) 가량이라고 한다. 간혹 돈주의 집이나 노동당 간부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돈도 벌고 그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방학 전부터 이런 일자리를 찾기 위해 경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사교육

연관어 교원, 대학입시, 제1중학교

북한에는 공식적인 학원 혹은 사교육기관은 없다. 하지만 공교육기관에서의 ‘과외복습’과 ‘개별지도’가 존재하고, 최고 부유층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식 사교육: 과외학습과 개별지도** | 과외복습은 방과 후 학교에서 학급단위로 시행하는 우리의 방과 후 수업으로 그날 배운 수업내용을 복습하는데 수학, 물리, 화학 등 주로 이과 과목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한다. 개별지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1대1 과외이다. 예전에는 주로 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몇 명씩 조를 지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개별지도 교재는 학생 수준에 따라 다르다. 교과서를 이용하기도 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경우 전국 경연 문제집, 국제 올림피아드 문제집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변화하는 북한의 사교육 현황** | 북한에는 학원이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간판과 건물은 따로 없지만 제1중학교나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은 수학, 과학, 외국어 등의 과외를 시킨다. 북한에서는 예체능 관련 중학교나 대학도 인기가 좋기 때문에 피아노, 바이올린, 무용, 성악 등의 예체능 사교육 시장도 활발하다. 사교육은 북한 당국에 발각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지만 이미 북한 사회에 비공식적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한다.

## 더 알아보기

### 북한의 사교육 강사들<sup>11</sup>

북한에서 사교육을 하는 강사들은 현직 교사나 교사, 역량을 갖춘 명문대 학생들이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같은 평양의 유명 대학교 교수들도 과외로 부수입을 벌여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들의 과외비는 시간당 2달러 정도이다. 현직 교사나 연구사들은 보통 한 달 단위로 과외비가 계산되는데 과목당 30~50달러이다. 명문대 학생들 역시 방학 때면 과외로 용돈을 번다. 대학생들은 짬짬이 아르바이트로 하숙집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 주고 그 대가로 숙식비의 일부를 면제받거나 일정 액수를 받곤 한다.

# 사회주의 도덕

연관어

사상교육,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사회주의 도덕은 북한 사회생활의 기본 예의규범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목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어록을 시작으로 하여 교훈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의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학생들은 '사회주의 도덕'을 공부하고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사회주의 도덕과 법'을 공부한다.

### 더 생각해보기

북한에서 사회주의 도덕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 도덕 과목에 '사회주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학교 <사회주의 도덕>** | 소학교 저학년에서는 <학교생활을 잘하자요>, <몸을 깨끗이 거두어>, <사이좋게 지내요> 등과 같이 기본생활습관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급, 가정, 마을에서 지켜야 할 예절, 공중도덕, 안전한 생활 수칙 등 다양한 내용을 공부하게 된다. 그리고 <영예로운 소년단원>이라는 단원에서는 소년단 생활에 대해서 배우기도 한다.

<소학교 3학년 사회주의 도덕> p.48

### 모범 소년단원

교실문을 열고 들어서던 설송이네 분단동무들은 벽보 판앞에서 멍어셨습니다.

새 벽보들이 나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동무들의 이름이 벽보에 났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벽보들을 한장한장 읽어가던 동무들이 환성을 올렸습니다.

《야. 설송동무의 이름은 매 장에 다 있어.》

《설송동문 좋겠구나.》

《설송동문 정말 공부도 잘 하고 동무들도 잘 도와줘.》

《공도 잘 차지 뭐.》

동무들은 저저마다 설송동무를 칭찬하며 부러워하였습니다.

★ 우리 분단의 설송이를 찾아봅시다.

**초급중학교 <사회주의 도덕> 및 고급중학교 <사회주의 도덕과 법>** | 초급중학교의 사회주의 도덕에서는 가정생활, 학교생활에서 확장된 내용을 배우는데 양심, 노동의 중요성, 조국에 대한 애국심 등에 관하여 공부한다. 고급중학교의 '사회주의 도덕과 법' 교과목에는 도덕 내용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공통적인 행동규칙으로서 사회주의 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남한의 도덕과 달리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은 김일성, 김정일 등 북한 최고 지도자의 말씀, 교시 등을 소개하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북한 사회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도 함께 학습한다.

초급중학교 <사회주의 도덕> 교과목 내용	양심, 노동의 중요성, 조국에 대한 애국심 등
고급중학교 <사회주의 도덕과 법> 교과목 내용	위법행위와 범죄, 공화국 형법 등

<사회주의 도덕> 및 <사회주의 도덕과 법> 교과서에 수록된 김일성 일가의 교시 사례

### 1) 우리 성장의 요람

《조직의 귀중함을 알고 조직에 의거하여 생활하며 조직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혁명가로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일

'사회주의도덕', 초급중학교2, p.48.

### 2. 참된 애국자의 자세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 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 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김정은

'사회주의도덕과 법', 고급중학교2, p.9.

<고급중학교 2학년 사회주의 도덕과 법> p.97

로동교화형은 무기로동교화형과 유기로동교화형으로 구분한다.

무기로동교화형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집행하는 형벌이라면 유기로동교화형은 해당 형법조문들에서 정한 기간만큼 집행하는 형벌이다.

유기로동교화형의 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이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집행기간에는 국민의 권리의 일부가 정지된다.

...

벌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물질적 제재를 가하는 형벌이다.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에 넘기는 형벌이다.

## 더 알아보기

### 북한 학생들이 도덕생활에서 지켜야 할 10가지 사항<sup>12</sup>

북한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 첫 페이지에는 '학생소년들이 도덕생활에서 지켜야 할 10가지 사항'이 실려 있는데 첫 항목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사회주의 도덕 과목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이상화와 조직생활에 대한 충성을 가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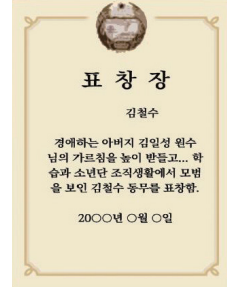
#### 학생소년들이 도덕생활에서 지켜야 할 10가지 사항

1. 소년단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들 주체의 영원한 태도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보아야 한다.
2. 소년단원들은 강성조선을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어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3. 소년단원들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야 하며 동무들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한다.
4. 소년단원들은 인제어디서나 제일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5. 소년단원들은 언제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우리 말을 써야 한다.
6. 소년단원들은 공중도덕과 교풍정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7. 소년단원들은 학교안에서 도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8. 소년단원들은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몸을 깨끗이 거꾸어야 한다.
9. 소년단원들은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고 몸과 마음을 온전히 단련하여 애국의 한마음으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내야 한다.
10. 소년단원들은 강성조선의 새 세태를 생필하여야 한다.



북한의 상벌제도는 우리나라의 상벌제도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북한 학생들이 받는 상** | 북한에서는 학생들이 받는 상장을 표창장이라고 한다. 표창장에는 ‘학교 표창장’부터 ‘군 표창장’, ‘도 표창장’ 그리고 제일 높은 ‘중앙 표창장’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표창장은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이나 국가 명절을 맞이하여 수여한다. 표창장 내용을 살펴보면 학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을 때는 ‘학습과 소년단 조직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이름) 동무를 표창함’, 좋은 일을 해서 모범을 보인 경우에는 ‘좋은 일 하기에서 모범을 보인 ○○○(이름) 동무를 표창함’이라고 쓰여 있다.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표창장과 비슷하지만 북한 학생들이 받는 표창장 앞머리에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라는 문구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자기비판과 벌** | 북한 학생들은 매주 있는 생활총화 시간에 자기비판(자아비판) 또는 상호비판을 해야 한다.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다고 판단 되면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직장에 자식의 사상교육을 제대로 못한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되면 부모들은 직장 생활총화에서 자식의 사상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자기비판을 해야 함과 동시에 직장동료들에게도 비판을 받게 된다.

유형	내용
자기비판	생활총화 시간에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
상호비판	다른 친구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비판하는 것
반성문 쓰기	자신의 잘못과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지를 적는 것
신체적 처벌	지시봉, 회초리 등으로 신체 부위를 맞는 것
사상교육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말씀 방침 등을 외운 후 선생님께 검사를 받는 것

### 더 알아보기

#### 북한의 장학금 제도<sup>13</sup>

중앙대학과 지방대학, 전문대 간 장학금 액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북한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장학금은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을 단 장학금이다. 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최우등생(전과목 만점)이어야 하는데 보통 한 학부에 1~2명 정도가 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 경제난으로 북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북한 당국에서도 재정적인 이유로 장학금을 줄이고 있어 현재 북한의 장학금 제도는 예전만큼의 위상이 아니라고 한다.



# 소년단

연관어 | 독보, 생활총화, 집단주의

소년단은 만 7세부터 만 13세에 해당되는 남녀 학생들로 이루어지며 소학교 2학년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초급중학교 3학년까지 소년단으로 활동하며 조직생활을 시작한다.

**소년단 입단 과정** | 북한의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소년단에 입단하게 되어있지만 동시에 입단하는 것이 아니라 표의 내용처럼 3차에 걸쳐 입단이 이루어진다. 집안 출신이

1차 입단식	2월 16일 (김정일 생일)
2차 입단식	4월 15일 (김일성 생일)
3차 입단식	6월 6일 (소년단 창립 기념일)

좋고 모범적인 학생들을 위주로 먼저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다. 1·2차에 소년단원으로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은 마지막 3차인 6월 6일에 빠짐없이 전부 소년단원으로 입단하며 소년단에 가입한 학생들은 모두 입단 선서문을 외운다.

**소년단 활동** | 소년단에 입단하면 학생들은 매일 새벽마다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청소하고 교실에 걸린 초상화를 관리한다. 이것은 소년단 조직이 해야 할 가장 중심적인 활동이다. 소년단은 학급분단위원회와 학교소년단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는데 학급분단위원회는 교복과 두발검사 등 학생생활을 관리하고 독보와 생활총화 등 사상교육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한다. 학교소년단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전교학생회조직과 비슷하다. 이외에도 전국연합행사, 소년단 창립 기념일 등을 위해 공연을 준비하고, 길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현재 소년단의 대표적인 구호는 ‘소년단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조선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이다.<sup>14</sup>

## 더 알아보기

### 소년단의 상징인 붉은 넥타이



소년단의 상징은 붉은 넥타이와 소년단 휘장으로 소년단에 입단할 때는 붉은 넥타이를 손에 들고 선서를 한다. 붉은 넥타이는 붉은 색에 삼각형으로 된 스카프로 항일투쟁을 하던 선열들의 붉은 피를 상징하며, 휘장은 왼쪽 가슴에 착용하는 뱃지로 붉은 넥타이와 함께 자신이 소년단원임을 입증하는 표식이다. 현재 소년단의 인사가 ‘항상 준비!’이므로 뱃지에는 해당 구호가 적혀있다. 소년단에 입단한 학생들은 붉은 넥타이와 소년단 휘장을 등교 시에 항상 착용하고 다녀야 한다.



# 소년단 야영소

연관어 사상교육, 상벌, 소년단, 집단주의

소년단 야영소는 조선소년단에 소속된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 우리나라의 청소년 수련기관이나 야영장과 비슷한 곳이다. 소년단 야영소에서는 학습 및 예체능 활동은 물론 행군 같은 극기 훈련이나 사상교육도 진행한다.

**대표적인 소년단 야영소** | 소년단 야영소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춘 곳은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다. 친북국가 청소년들에게 김일성 부자의 업적 및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할 목적으로 개소한 북한 유일의 국제소년단 야영소로 외국 학생들도 야영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장자산 소년단 야영소는 연평균 6,000여명의 북한 학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	장자산 소년단 야영소
위치	강원도 원산시	자강도 강계시
수용인원	1,250명	500명
시설	국제친선소년회관 (1,200석의 극장, 전자오락실, 음악실, 태권도실, 탁구실, 미술실, 도서실, 해양지식보급실, 등산지식보급실, 소년단실), 실내수영관, 운동장, 무도장, 침실(220여 개), 식당, 상점, 진료소, 야영각 등	야영각 (500여 명, 3개 호동, 등산지식보급실, 동식물표본실, 미술실, 음악실, 소년단실, 꼬마방송실, 오락실, 탁구실, 도서실, 영사실, 생일식당, 진료소, 목욕탕), 김일성대원수님혁명활동연구실, 김정일장군님혁명활동연구실 등

**포상으로서의 야영활동** | 북한에서는 학교 생활에서 모범이 되거나 조직생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선발해 포상 개념으로 야영소 입소 자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야영활동 참여는 평소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 더 알아보기

### 북한 학생들의 답사행군

답사행군은 북한 최고지도자와 관련한 행적이나 혁명사적지를 따라 답사하는 행군으로 우등생이나 출신성분이 좋은 학생들,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과를 쌓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북한은 혁명 역사를 가르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기 위해 답사행군을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하여 운영한다. 학생들은 답사행군을 통해 혁명사적지를 돌아보며 최고지도자의 업적을 학습하고 감상문쓰기, 소감 발표 등의 활동을 한다.



# 소조 활동

연관어

고급중학교, 소학교,  
초급중학교, 학생소년궁전

소조(小組)는 '같은 목적을 가진 작은 집단'이라는 뜻으로 소조활동은 방과후에 교원의 지도를 받으며 주요 학과목이나 예체능 과목을 학습하는 일종의 동아리 성격의 활동이다.

**소조활동의 종류 및 내용** | 북한의 소조활동은 학생들의 지식과 소양을 쌓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집단생활을 통해 사회주의를 체험하게 하고, 학생들을 조직화하여 단체에서의 이탈 및 개인 활동을 막는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학생들의 소조활동 참여를 국가적 의무로 명시하여 이를 장려하고 있다.

소조활동 종류	내용
교과목 학습 소조	수학, 물리, 외국어 등 주요 교과목을 학습하는 활동
미술 소조	미술에 재능을 보이거나 소질이 있는 학생들의 활동
음악 소조	악기 연주, 무용 등에 재능을 보이거나 소질이 있는 학생들의 활동
체육 소조	각종 운동 종목에 재능을 보이거나 소질이 있는 학생들의 활동

**소조활동을 통한 인재 육성** | 북한에서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소조 활동은 예술이다. 예술 소조 활동은 유치원 때부터 매우 활발하게 진행된다. 북한 학생은 악기연주나 무용 중 하나 이상을 배우며 수많은 대회를 통해 그 실력을 향상시킨다. 여기에는 연중 열리는 정치 모임이나 각종 선정·선동 활동에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다. 북한에서는 소조 활동을 통해 재능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전문 예술인이나 과학자로 육성하기도 한다. 소조활동을 하며 우수한 실력과 재능을 갖춘 학생으로 선발되면 수업을 마친 후에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선발된 우수학생들이 따로 모여서 교육을 받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평양에 있는 평양학생소년궁전, 만경대학생소년궁전, 2.16 학생소년궁전 등이 있다.

## 더 알아보기

### 집단동원활동의 예의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에 대한 열기가 높고 학교에서도 상급학교에 잘 진학시키는 것이 출세와 명예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을 따로 모아 교과 위주의 소조활동을 한다. 평양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소조활동을 제외하고 노동동원은 참여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힘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계층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양 지역은 학생들의 노동동원이 다른 지방보다는 적다고 한다. 북한 교육에서 소조활동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며 행사동원과 같은 활동 또한 부모의 배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소학교

연관어

소년단, 초급중학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소학교는 유치원을 졸업한 만6세~10세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남한의 초등학교에 해당한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의해 5년을 다니게 되며 대부분의 학생은 졸업 후에 초급중학교에 진학한다.

**소학교 학생들의 일과** | 소학교 학생들은 등교하면 가장 먼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관한 자료나 신문 사설을 읽는 독보활동을 한다. 오전 8시에 수업이 시작하며 45분씩 5교시를 한다. 쉬는 시간은 10분이며 3교시가 끝나면 운동장에 나가 업간체조를 한다. 교과목은 사회주의 도덕, 수학, 자연, 영어, 정보기술 등을 포함한 1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심은 대부분 집에 가서 먹거나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소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생활** | 북한 학생들은 학교를 마친 이후에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방과후 활동			
내용	과외활동 시작 전 총화 시간	소조활동: 방과후 2~3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특별지도	과외 노동: 사회의무 노동의 명목으로 나무심기, 모내기 등을 하며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강조
북한 소학교 교과목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어린시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님 어린시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어린시절, 사회주의도덕, 국어, 영어, 수학, 자연, 정보기술, 체육, 음악무용, 도화공작			

## 더 알아보기

### 소학교와 초등학교의 차이

남한의 초등학교 편제는 6년이지만 북한의 소학교는 5년이다. 학기 또한 남한은 3월에 시작하는 데 비해 북한은 4월에 시작하며 소학교 때부터 당국에서 배급하는 교복을 입는다. 또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사상교육과 소년단 생활이다. 소학교에서는 일주일에 3~4시간 정도 정치사상 과목을 공부하며 사상교육에 해당하는 독보활동이나 생활총화도 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 조선소년단이라는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북한당국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 시험

**연관어** 고급중학교, 대학입시, 사상교육, 소년단, 소학교, 진로, 초급중학교

북한 학생들의 학교시험은 크게 진급시험과 학교생활 과정 중 치르는 시험으로 나눌 수 있다. 진급 시험은 하나 더 높은 단위의 학교로 올라갈 때 보는 시험으로 소학교에서 중학교에 입학할 때와 고급중학교에서 대학에 입학할 때 보는 시험이다.

**시험 시기와 과목** | 북한 학생들은 한 학년을 마치는 동안 시험을 여러 번 보는데 과목 선생님이 수시로 치르는 시험뿐 아니라 학기말시험, 학년말시험처럼 시험기간을 정해놓고 치르는 시험도 있다. 학기말시험과 학년말시험은 국가시험으로 소학교 1, 2학년을 제외한 전국의 학생들이 동시에 치르는 큰 시험이다. 특히 학년말시험은 진급시험으로 여기서 낙제를 하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학교급	시험과목
소학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어린 시절, 국어, 수학, 자연
초급중학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혁명 활동, 국어, 영어, 수학, 자연과학 등
고급중학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혁명역사, 국어문학,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시험형태** | 북한의 시험형태는 필기시험과 구답시험으로 분류되며 특징은 아래와 같다.

구분	특징
필기시험(소학교,중학교)	- 논술형(주로 학습한 내용을 암기하여 적는 문제들이 출제됨), 단답형, 객관식
구답(구술)시험(대학교)	- 시험관 앞에서 문제가 적힌 종이를 뽑아 말로 대답하는 형태로 진행됨 - 시험관은 학생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

## 더 알아보기

### 성적의 등급과 처리결과

북한에서는 시험 성적을 5점 만점으로 처리한다. 5점은 최우등, 4점은 우등, 3점은 보통, 2점 이하는 낙제가 된다. 학업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 소년단 야영소의 야영활동에 참가하는 특별한 경험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북한에서도 공부를 잘하면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대학에 가기도 수월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하지만 북한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시험 성적뿐 아니라 출신 성분이 좋아야 하며, 학교에서 하는 사상교육을 충실히 받고 소년단이나 청년동맹 등 조직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

# 영재교육

연관어 진로, 제1중학교

북한의 교육은 평등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지만 북한에도 일부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이 존재하며 북한식 표현으로는 ‘수재교육’이라고 한다.

**북한의 영재교육 등장 배경** |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평등관에 기초하고 있어 영재교육은 최소한의 형태로만 운영되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강화와 함께 1980년대에 들어 김정일 집권 시기부터 영재의 조기 선발과 체계적인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북한의 영재교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북한의 영재교육 분야** | 북한의 영재교육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부터 음악 학교, 외국어학교, 조형예술학교, 무용학교, 체육학교 등을 설립하여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을 추진하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정보통신, 컴퓨터 교육 등을 강조하면서 현대적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영재교육도 강화하면서 제1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이과대학 등에서는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첨단 과학 분야의 영재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예체능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소질 있는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속적인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영재교육기관

분야	수학·과학	외국어	예능	체육	컴퓨터
학교	제1중학교	외국어학원	음악학교 무용학교 조형예술학교	중앙체육학원	소년공전 금성학원

**수학·과학 외국어분야 영재교육** | 제1중학교는 전문적인 과학기술자들의 조기양성을 위한 영재교육기관이다. 1984년 평양제1중학교가 개교한 이후 그 수가 증가하면서 각 도와 시까지 확대되었다. 제1중학교는 소학교 졸업생 중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성적이 탁월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자연과학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 분야의 영재교육은 평양외국어학원을 비롯한 각 시도의 외국어학원에서 이루어지며 많은 인기와 더불어 치열한 입시경쟁을 보인다.

**컴퓨터 영재교육 강화** | 북한에서는 컴퓨터 영재를 위한 교육도 하고 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 평양 금성학원 등에 컴퓨터 수재 양성반이 있는데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주로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 진학해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한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가 되어 군사 분야와 노동당, 내각 등에서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예체능 영재교육 운영** | 북한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예술적 능력을 발휘하는 학생들을 유치원 때부터 발굴한다. 뛰어난 학생들은 소학교부터 중학교까지 11년제로 운영되는 음악학교, 무용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다. 특히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가 졸업한 금성학원 역시 북한 예능영재를 양성하는 대표적 기관이다. 대학 수준의 대표적인 예능계 전문교육기관으로는 김원균명칭음악종합대학, 평양미술대학 등이 있다. 전문체육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는 8년제의 중앙체육학원이 있는데 소학교의 운동소조 등에서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국가대표 등으로 양성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북한의 일반중학교와 제1중학교 물리 교과서 내용**

일반 중학교 2학년 과정			제1중학교 2학년 과정	
제1장 물리적량의 재기			I. 우리 둘레의 물리현상	
1. 길이 재기	2. 면적 재기	3. 체적 재기		
4. 질량 재기	5. 시간 재기	6. 온도 재기	1. 불을 일쿠려면	2. 열로 기계를 돌린다
7. 물리적량의 단위			3. 헬론의 기계에서 로켓까지	4. 슬림을 없앤다면
장종합 문제			5. 흔히 쓰는 공구의 리치	6. 집에서 쓰는 전기기구
			7. 환등과 영화	8. 축음기를 어떻게 공리해냈는가



## 예술학원

연관어 소조활동, 영재교육, 학생소년궁전

북한의 예술학원은 무용, 음악 등 예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6년제 또는 12년제 교육 기관이며 평양에만 있다. 예술학원의 설립목적은 '전국의 예술화', '예술의 대중화'이며, 예술 분야를 체제선전의 수단으로 여기는 북한 정권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예술학원 입학과정** | 예술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예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야 하는데 평양의 경상유치원, 대동문유치원을 졸업한 후 지원하여 입학할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발견되는 학생들은 특별히 12년제 음악학교, 무용학교, 조형예술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기도 한다.

**북한의 예술학원** | 북한에는 예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예술학원이 있다. 평양의 금성학원을 비롯하여 평양제1음악학원이 대표적이다. 그중에서도 평양제1음악학원은 '특정 분야에서 완벽하게 키운다'를 목표로 일대일 지도를 통해 학생들을 강도 높게 가르치고 있다. 금성학원 학생들은 오전 수업이 끝나면 만경대학소년궁전에 가서 다양한 예체능 분야를 배우기도 한다. 평양의 만경대구역에 위치한 금성학원은 예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했으나 2003년부터 수학과 컴퓨터 등의 과목이 추가되면서 다양한 특기생들을 양성하는 곳으로 확장되었다.



### 더 알아보기

#### 만수대창작사

만수대창작사는 북한사회에서 미술과 관련하여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창작단체이다. 만수대창작사라는 이름은 김정일이 지었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비롯해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천리마동상 등이 있다. 또한, 다양한 형식의 그림들도 제작하였는데, 예를 들어 평양의 지하철 벽화나 인민문화궁전, 만수대예술극장의 장식미술 등도 대부분 이들의 작품이다. 최근에는 북한지도자들의 위상화나 주민사상교육에 필요한 작품 외에도 다양한 작품을 창작하면서 외화벌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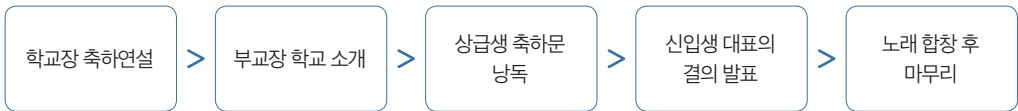
# 입학식과 졸업식

연관어

고급중학교, 대학입시, 소학교, 시험, 초급중학교

북한의 입학식은 4월 1일에, 졸업식은 3월 말에 진행된다.

**입학식 절차** | 입학식 때는 입학할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정문에는 종이로 꽃을 만들어 치장하여 꽃대문을 만든다. 매년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우리와 달리 북한에서는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졸업식까지 학생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담임 발표는 모두가 기다리는 순서이다. 담임 발표 후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라는 노래를 합창하고 열을 맞춰 행진하며 입학식 행사는 마무리된다.



중학교 입학식 순서

**졸업식 절차** | 소학교와 초급중학교와 달리 고급중학교 졸업식은 학생들의 진로가 달라지므로 조금 무거운 분위기이다. 졸업식은 간소하게 진행되는데 학생 위주로 행사가 이루어져 가족·친척들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졸업식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졸업증과 졸업사진을 받는 것이다. 졸업사진은 반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우리나라처럼 전체 졸업생이 나오는 졸업 앨범은 없다고 한다. 또한 북한에는 졸업식 노래가 없고 각종 행사 때마다 부르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부른다.

## 더 알아보기

### 북한의 연간 학교 행사

1학기 학교행사		2학기 학교행사	
4월	• 각급 학교 입학식(4월 1일) • 소년단 입단식(4월 15일)	9월	• 개학식 • 운동회
5월	• 농촌지원활동 • 봄 소풍(현장체험학습)	10월	• 농촌지원활동
6월	• 소년단 입단식(6월 6일) • 운동회	12월	• 예비고사(고급중학교 3학년) • 겨울방학식
7월	• 예능경연대회(7월 22일) • 학과경연대회 • 수영대회	2월	• 소년단 입단식(2월 16일)
8월	• 학기말 시험 • 여름방학식	3월	• 학년말 시험 • 나무심기 행사(3월 2일 식수절)

# 외국어교육

연관어 특수교육, 사교육, 영재교육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국제관계의 다변화를 피하면서 영어를 비롯한 각종 외국어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양외국어학원을 비롯해 각 도에 외국어학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외국어학원 및 외국어 관련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북한의 외국어 교육 실태** | 북한에서도 최근 외국어 열풍이라고 할 만큼 외국어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외국어를 잘하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외국어 교육은 195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본래 러시아어나 중국어 중심에서 196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변화하며 영어의 비중을 높이고 외국어의 범위도 불어, 독어, 스페인어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북한에서는 소학교 4학년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작하며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문법보다는 회화 중심의 교육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고액의 외국어 사교육도 등장하고 있는데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액 영어과외는 최대 노동자 월급의 5배 이상을 받는다고 한다.

북한 내 외국어 교육 정책의 시대별 변화

시기	정책 내용
전쟁 직후	영어, 러시아어 중심
1960년대	외국어교육 장려, 중학교 과정에 외국어 과목 도입
1970년대	국제교류의 필요성, 러시아어, 영어, 제2외국어
1980년대	과학기술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조
1990년대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 소련 해체- 영어 중심 교육으로

**북한의 외국어학원** | 북한의 외국어학원은 평양 외에도 각 시도에 1개교씩 세워져 있다. 북한 당국에서도 점차 외교와 무역의 중요성을 알고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가를 키우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외국어학원은 평양 외국어학원이다. 평양외국어학원에서는 영어, 러시아어, 일어, 중국어 등 8개 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며 재학생들은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전공어를 구사하며 생활한다.<sup>16</sup>

더 생각해보기

북한은 왜 주로 영국식 영어를 배우는걸까요?  
북한에서도 유학을 갈 수 있을까요?

북한의 외국어학원 실태(2017년 현황)

순	지역	학원명
1	평양	평양외국어학원
2	함경북도 청진	청진외국어학원
3	함경남도 함흥	함흥외국어학원
4	평안북도 및 신의주 특별행정구	신의주외국어학원
5	평안남도 평성	평성외국어학원
6	황해북도 사리원	사리원외국어학원
7	황해남도 해주	해주외국어학원
8	양강도 혜산	혜산외국어학원
9	자강도 강계	강계외국어학원
10	강원도 원산	원산외국어학원
11	라선특별시	라선외국어학원
12	남포특별시	남포외국어학원
13	개성공업지구	개성외국어학원

**외국어교육을 통한 진로** | 외국어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외국어 관련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북한의 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는 평양외국어대학을 비롯하여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인민무력부 산하의 압록강대학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평양외국어대학은 북한 최고의 외국어대학으로 총 5년의 기간 동안 공부하며 외국어 공부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을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외국어 전문가 자격증이 주어지고 국가기관의 관련업무를 맡게된다. 또한 평양과학기술대학은 남북 합작으로 설립된 북한 최초의 국제사립대학으로 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강의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 알아보기

북한의 원어민교사

코로나 시기 이전 북한 당국은 영어수업을 소학교까지 확장하면서 교원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서방국가에서 원어민 교사들을 초청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문화원과의 협력이다. 영국문화원은 2002년부터 북한에 원어민 교사를 파견하였고 그들은 주로 북한의 영어교원들을 지도했다. 영국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북미의 민간단체 등에서도 북한에 원어민 교사를 보내 교원 및 학생들의 영어공부를 지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와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평양과학기술대학교에만 원어민 교사가 있다고 전해진다.

# 유치원

연관어 소학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북한에서는 만 4세와 만 5세의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다닌다. 유치원은 2년제로 운영되며 낮은반(4세)과 높은반(5세)으로 나뉘는데 그중 높은반 1년은 의무교육에 포함된다.

**북한 유치원 아이들의 일과** | 북한 어린이들은 아침 8시까지 유치원에 온다. 아이들이 모이면 교실에서 아침체조가 시작되는데 북한 당국에서 전국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어린이 프로그램 방송을 주로 듣는다고 한다. 방송 내용은 유치원에 다니는 착한 어린이에 대한 소개나 노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에는 수업시간을 비롯해 자체놀이 시간, 체조시간 등이 있다.<sup>17</sup>

**북한 유치원 교과목** | 북한의 유치원에서는 정치 사상에 대한 기초적인 교양과 지식을 주로 교육한다. 집단주의, 규율에 대한 복종, 당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등에 중점을 둔다. 교과목으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어린시절 이야기, 우리말, 셈세기, 노래와 춤, 그리기와 만들기, 체육, 놀이, 관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 유치원 어린이들의 일과

시간	활동	참고사항
08:00 ~ 08:15	등원 및 아침체조	
08:15 ~ 08:45	하루 일과 설명	
08:45 ~ 09:00	아침 방송 청취	
09:00 ~ 09:20	휴식시간	
09:20 ~ 11:00	수업시간	낮은반: 30분 높은반: 45분 쉬는시간: 20분
11:00 ~ 11:30	자체 놀이시간	
11:30 ~ 13:00	점심시간	
13:00 ~ 15:00	낮잠	
15:15 ~ 15:30	낮체조 시간	
15:30 ~ 16:00	자체 교양시간	
16:00 ~ 16:30	간식시간	
16:30 ~	하원	

## 더 알아보기

### 북한 탁아소

북한의 탁아소는 6개월부터 만3세의 유아가 다니는 보육시설이다. 북한은 1947년 '보건국 명령 제5호'로 '탁아소 규칙'을 법으로 제정한 이후 어린이 양육문제를 국가정책으로 시행했다. 이는 대다수 여성의 노동력을 경제 복구와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동원하려는 정책이며, 북한 유아들은 탁아소에서부터 지도자에 대한 이상화 교육을 받게 된다.

# 제1중학교

연관어 진로, 고급중학교, 대학

북한의 제1중학교는 영재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교육기관으로 수학·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6년제로 운영된다. 1984년 평양에 처음 제1중학교가 설립된 이후 각 도와 시에 약 200여 개가 세워졌다.



평양제1중학교

## 제1중학교 입학과 진로 | 제1중학교 학생들은 엄격하고도

어려운 선발 과정을 거친다. 1차로 소학교 졸업 학년인 5학년이 전국 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이때는 출신성분뿐 아니라 수학·과학 등 교과목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입학 후 매년 시험을 실시하고 이때 통과하지 못하면 일반학교로 돌려보낸다. 이처럼 엄밀한 과정을 거치는 만큼 제1중학교를 졸업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명문 대학에 진학한다. 졸업 후에는 주로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대우를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북한 사회에서는 제1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개인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한다고 한다.

## 제1중학교 학생들의 생활 | 제1중학교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수학·과학 인재로 성장

하기 위한 집중 교육을 받는다. 학교에서는 기존 중학교의 교과목을 대폭 축소하여 수학·과학을 심도 있게 교육한다. 이를 통해 제1중학교 학생들은 개별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생물학 수재반 학생들은 전자현미경을 통해 난세포를 다루기도 하고 최근에는 유전자 변이를 통해 ‘덩치 큰 토끼’도 만들었다고 한다.

### 더 알아보기

### 북한 제1중학교 학생의 특권

북한의 제1중학교 학생들은 졸업 이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 평양이과대학 등에 입학한다. 만약 대학 입시에 탈락하더라도 제1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지방대학 입시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sup>18</sup> 원래 북한에서는 대학입시에 실패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특혜가 제공된다.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 **연관어**

유치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의무교육이란 국가의 책임 아래 국민들에게 시행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총 12년의 의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체계** | 북한은 2012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은 유치원 높은반(1년), 소학교(5년), 초급중학교(3년), 고급중학교(3년)으로 총 12년이다.<sup>19</sup> 2012년 법령 발표 후 중학교 분리작업부터 시작하였고 소학교 시스템을 변경하였다. 2013년 완성된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이 2014년 4월부터 집행되어 2017년 전면 실시 되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제도 내용(2012년)**

11년제 교육 (개정 전)	➡	12년제 교육 (개정 후)
유치원 높은반 1년	➡	유치원 높은반 1년
소학교 4년	➡	소학교 5년
중학교 6년	➡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배경** | 북한이 의무교육 기간을 늘린 목적은 먼저 4년제 소학교를 5년제로 늘리면서 초등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즉 인재 양성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소학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외국어교육이나 IT 교육 등의 기간을 늘리고자 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 더 알아보기

### 북한의 의무교육 역사

북한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5년제 의무교육을 시작으로 4년→ 7년→ 9년→ 11년 의무교육을 거쳐 12년까지 늘어 나게 되었다.

연도	의무교육 운영 내용
1950년	5년제 초등의무교육(6.25전쟁으로 중단)
1956년	4년제 초등의무교육
1958년	7년제 중등의무교육(인민학교 4년+중학교 3년)
1967년	9년제 기술의무교육(인민학교 4년+ 중학교 5년)
1975년~2012년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4년+중학교 6년)
2017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



# 직통생

연관어

고급중학교, 대학,  
제1중학교

북한에서 직통생은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대학으로 곧바로 간다는 뜻의 '직통'과 학생이 결합된 용어이다. 직통생은 사전에 등재된 공식 용어가 아니라 대학 등 교육계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직통생의 조건** | 직통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이 우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출신성분도 좋아야 한다. 북한의 대학 입학시험은 예비시험과 본시험으로 나뉘는데 직통생은 예비시험에서 전체 중학교 졸업생의 일부가 추천되고 대학의 본시험을 통해 절반 정도의 학생이 선발된다. 또한 각종 경시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학생들도 직통생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보통 제1중학교 학생과 같이 과학 분야에 소질이 있는 영재들이 직통생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들은 명문대학에 들어갈 때 일정한 혜택을 보기도 한다. 그래서 명문대학의 직통생들은 주로 자연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 대학생들의 모습

**직통생의 진로** | 북한에서 직통생들은 일반적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같은 명문대학에 진학한다. 그들은 일반 학생들과 달리 군복무 기간에서도 혜택을 받게 되는데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3년만 복무하더라도 만기제대로 인정해준다. 대학 졸업 후 군복무까지 마치게 되면 이들은 당의 간부가 되어 일하거나 자신의 전공을 살려 연구를 지속하게 된다.

## 더 알아보기

### 북한에서의 과외

북한 학생의 일부는 제1중학교나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선생님들에게 과외를 받기도 한다. 최근 북한의 경제 위기와 함께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교원들은 개별과외를 통해 생활고를 해결하고 있다. 초기에는 옥수수를 비롯한 식량으로 과외비를 주었지만 최근에는 시간당 최소 15달러를 요구하는 등 과외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 진로

🔍 **연관어** 군입대, 대학, 외화벌이꾼

북한의 학생들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라 모두 고급중학교까지 진학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소학교 5학년 이후에 초급중학교에 진학하게 될지 수학, 과학, 외국어, 예체능 등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특수학교에 들어갈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고급중학교 졸업 이후에도 대학, 군대 그리고 취업 등 다양한 진로에 대해 고민한다.

**학교 진학** | 북한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학교 졸업 이후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에 진학한다. 다만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일부 학생들은 6년제 과정인 특수학교에 들어가기도 한다. 수학, 과학, 컴퓨터 등에 영재성을 갖춘 학생들은 제1중학교에 진학하고 무용, 음악 등 예술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과 외국어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각 시도에 있는 예술학원과 외국어 학원, 체육학원에 입학 한다. 한편 북한체제에 기여한 유가족의 자녀는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등에 입학하여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된다.

고급중학교까지 12년의 의무교육을 마치게 되면 북한의 학생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 북한 학생들의 진로는 크게 대학, 군대, 직장 취업의 세 가지로 나뉜다. 중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바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학 입시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학생들을 북한사회에서는 직통생이라 부르는데 전체 대학생의 약 10퍼센트 정도 해당한다고 한다. 대학 이후 박사원이나 연구원 등에서 연구를 지속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소수이며 대부분 해당 전공분야 직장이나 기관에 배치된다.

소학교 이후 북한 학생의 진로

소학교	일반학생	초급중학교(3년), 고급중학교(3년) 진학	대학 군대 직장
	수학, 과학영재	제1중학교 진학(6년)	
	예능영재	예술학원(6년)	
	외국어 영재	외국어학원(6년)	
	체육영재	남포중앙체육학원(7년)	
	국가유공자녀	만경대혁명학원(8년)	

**군대 입대** |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학생 중 일부는 군대에 가게 된다. 북한의 모든 남자들은 중학교 졸업 이전에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게 되고 졸업하는 해에는 사단 또는 군단에 입대하게 된다. 물론 신체검사 결과가 나쁘거나 출신성분이 나쁜 경우에는 군대에 가기 어렵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남한에 비해 여성들이 입대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사회에서는 군대를 다녀오면 여러 가지 사회적 혜택이 있는 노동당에 입당할 기회가 주어지기에 군입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군생활을 잘하게 되면 제대 이후 다시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주어지거나 정치, 행정 분야에서 간부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더 생각해보기**  
남북이 통일된 후 유망한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통일 후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은?

**직장 취직** | 대학이나 군대를 선택하지 않은 일부 학생들은 직장에 취직하게 된다. 그런데 사회적 특성상 북한에서는 남한과 달리 본인의 희망보다는 국가에서 정해진 일자리로 가야 한다. 또한 한번 정해진 직장을 마음대로 이직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군대와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고 나면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그동안 북한의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직업은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당 간부, 의사, 교사 등이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 체제 이후 과학자 우대정책이 강화되면서 북한 청소년 중 과학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더 알아보기**      **북한사회에서의 성공**

고급중학교 이후 북한 학생들의 진로는 대학, 군대, 취업으로 나뉜다. 대학에 바로 진학한 직통생들은 보통 출신성분도 좋고 지역에서 뛰어난 수재이기 때문에 졸업 이후 공부를 지속하거나 당의 간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군대에 가는 학생들은 군대에서 성공하기 위해 그 안에서 대학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노린다. 북한에서는 군대와 대학을 모두 나온 인재가 간부 등용에 있어 우선순위로 꼽힌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한번 배치된 직장을 거의 평생직장으로 여기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이직이 불가능하지만 행정적인 조치로 직장을 옮기는 것은 가능한데 이를 조동이라고 한다. 더 나은 직장으로서의 조동을 위해 북한의 주민들은 온갖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초급중학교

연관어

소학교, 고급중학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초급중학교는 소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해당한다. 북한의 중학교는 원래 6년제였지만 2012년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제도로 학제가 개편되면서 초급중학교와 남한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중학교로 분리되었다.

## 초급중학교의 명칭 변화

학제	1946년 개편	1953년 개편	1959년 개편	1973년 개편	2012년 개편
명칭	초급중학교/초급기술학교	초급중학교	중학교	고등중학교(중학교)	초급중학교

**초급중학교의 생활** | 북한의 초급중학교는 4월에 개학한다. 학생들의 평균 수업 시간은 하루 6시간 정도이며 45분 동안 수업하고 10분의 쉬는 시간이 주어지며 토요일에도 수업이 이루어진다.

**초급중학교의 과목** | 북한의 초급중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과목을 배우기도 하지만 특별히 김일성 가계에 관한 내용을 ‘혁명활동’이라는 과목으로 공부한다. 이 과목들에는 북한 최고지도자들의 항일 무장 투쟁, 노동당 창건, 교육과 경제건설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기초과학, 컴퓨터, 외국어 등에 능통한 사람을 기르고자 노력하면서 관련 과목 시수가 증대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과 산업현장에 적용하고자 노력한다.

### 더 알아보기

#### 북한 초급중학교의 ‘혁명활동’

북한의 학교에서는 주체사상 및 공산주의 정치사상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북한 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초급중학교에서는 ‘혁명활동’이라는 교과명으로 주당 3~4시간 정도의 이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2	2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혁명활동		2	2
3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혁명활동	1		
4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	1	1	1

# 컴퓨터교육

연관어 정보통신, 영재교육

북한 당국은 컴퓨터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소학교 때부터 컴퓨터 교육이 시작되며 일부 중학교에서는 컴퓨터 수재반을 만들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도 한다.

**북한의 초·중·고 컴퓨터교육 현황** | 북한에서는 평양의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청소년들은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개편과 함께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소학교부터 고급중학교까지 컴퓨터 관련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학생궁전이나 제1중학교 등지에서 영재교육의 형태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다.

**북한 대학의 컴퓨터 교육** | 북한은 지난 1985년에 평양과 함흥 등지에 컴퓨터기술대학 등 전문대학을 설립하였고 김일성종합대학에도 1999년에 처음으로 컴퓨터과학대학을 신설하였다. 특히 컴퓨터기술대학의 졸업생들은 현재 조선컴퓨터센터 등 북한의 주요 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다. 북한의 각 대학에 정보공학강좌, 정보공학과, 컴퓨터학과 등이 잇따라 개설되면서 컴퓨터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한의 소학교 컴퓨터 교육과정	
소학교 3학년	
1. 컴퓨터 조작하기	
- 컴퓨터 설계에 대한 이해	- 컴퓨터 작동 시키기
- 마우스의 기능 이해	- 컴퓨터로 음악 듣기
- 키보드 작동시키기	
2. 컴퓨터로 그림그리기	
- 그림 교실 들어가기	- 우리나라 국기
- 우리집 병아리들	
소학교 4학년	
1. 파일 찾기	
- 파일과 폴더	- 윈도우에서 파일 보기
- 컴퓨터 화면	
2. 문서 만들기	
- 워드 프로세서 활용	- 새로운 문서 만들기
- 폰트와 정렬 적용하기	- 표 만들기
3. 전시물 만들기	
- 도구 활용하기	- 인사카드 만들기
- 군대의 8장면 만들기	

## 더 알아보기

### 북한 컴퓨터 프로그램

북한에서는 남한과 달리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붉은별(RedStar)을 활용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조선장기, 류경바둑 등을 비롯한 보드게임을 개발하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길동무, 지름길과 같은 프로그램들도 있다. 그리고 능라 방화벽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킹을 방지하기도 한다.

##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연관어 소조활동, 음악단, 학생소년궁전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은 8세에서 17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구성된 북한의 대표적인 학생 공연 단체이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이라는 예술을 배우는 기관의 소속 예술단으로 1968년에 창설되었다.

**선발 단원들** |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단원들은 평양학생소년궁전, 만경대 소년궁전 등에서 선발되며 총 인원은 300여 명 정도이다. 북한은 예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지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원 대부분이 북한 최고의 문화예술학교인 금성학원의 학생이며 주로 독창, 중창, 합창, 군무, 체육무용, 농악무 등을 공연한다.



**해외공연** | 설립 초기에는 북한 내에서 외국인 환영이나 주요 행사에서 공연을 하였다. 그러던 중 1975년 아르헨티나에서 처음으로 해외 공연을 한 것을 계기로 1977년부터 해외공연을 나갔다. 1998년에는 평양에서 남한의 리틀엔젤스 예술단과 공연하였으며 2000년 5월에는 북한의 민간 소년예술단으로서는 최초로 서울을 방문하여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했다.

### 더 알아보기

#### 남북 청소년 체육교류 활동

일시	활동내용
2002	태권도 시범단 교환경기(서울, 평양), 남북 통일축구 경기(서울)
2003	정주영체육관 개관식 및 통일농구 대회(평양)
2007	남북 유소년 축구선수단 상호교류(제주, 평양 등)
2008	남북 체육교류협회 유소년축구단 교류(평양)
2014	국제 유소년 U-15 축구대회(연천)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무주), 아리스포츠컵 유소년축구대회(중국 쿤밍)

# 학생소년궁전

연관어 소조활동, 컴퓨터 교육, 영재교육

학생소년궁전은 학생들의 과외활동(소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된 북한의 과외교육기관이다. 규모가 큰 곳은 학생소년궁전이라 부르고 규모가 작은 곳은 학생소년회관이라고 한다.

**학생소년궁전 현황** | 현재 북한 각지에는 140여개의 학생소년궁전 및 회관이 운영되고 있다. 보통 시·군별로 한 곳이 세워져 있지만, 특별히 평양에는 세 곳이 있다. 여러 학생소년궁전들 중에서도 특히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유명하다. 이곳은 외국인 방문 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주요 방문 장소로도 활용된다.

평양의 학생소년궁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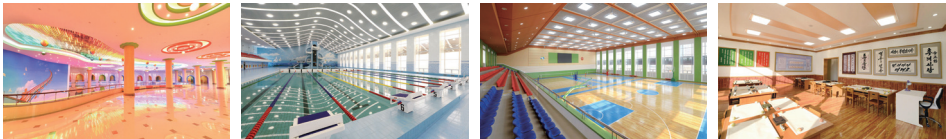
이름	위치	설립연도	특징
평양학생소년궁전	평양특별시 중구역	1963년	10층 옥상에 천문대 설치, 정치, 과학 등 교양학습 수시운영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특별시 만경대구역	1989년	말발굽형의 대칭성 강조, 1인1기 습득, 컴퓨터 수재교육체계 운영

**학생소년궁전의 교육활동** | 학생소년궁전에서는 우수한 실력과 재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학교 수업 이후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한다. 이곳에는 과학, 기술, 체육,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소조실과 활동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각종 극장, 도서관도 있어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돕는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과학기술이 강조되면서 컴퓨터 수재반, 수학 수재반, 과학 수재반 등도 운영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평양의 만경대구역에 위치하며 하루 1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자랑한다. 말발굽형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양쪽에 대칭성을 강조하며 건축되었고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위한 각종 공간이 실내외에 마련되어 있다. 주로 평양에 거주하는 소학교, 초급중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





## 현장체험학습

연관어 놀이, 학교행사

북한 역시 우리나라의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현장체험학습이 있는데 당일로 나가는 것을 원족 혹은 들놀이라 하고 며칠 동안 숙박하는 것을 답사 혹은 견학이라고 한다.

**당일 현장체험학습** | 원족 혹은 들놀이는 우리의 소풍과 같은 것으로 봄과 가을에 주로 나가며 보통 산으로 간다. 우선 일찍 산에 올라 오전에 운동회를 한다. 밧줄당기기, 병 끼고 달리기, 보물찾기, 선생님 업고 달리기 등 여러 경기를 진행한다. 현장체험학습 날 북한에서는 밥, 삶은 계란, 반찬이 담긴 도시락을 싸와 친구, 선생님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점심식사 후 오후에 다시 모여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춤추기 등 장기자랑을 하며 다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봄 소풍 나온 평양 학생들

**답사 활동** | 북한에서는 수학여행을 답사 혹은 견학이라고 한다. 답사는 중학교에서는 졸업학년에 한번, 대학교에서는 매년 있다. 답사기간은 교육성에서 내려 보낸 과정 안에 명시된 답사 및 견학일수에 의거하는데 중학교는 보통 일주일, 대학교는 열흘 정도 진행된다. 북한에서 답사의 목적은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는 것이므로 답사 장소는 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업적을 기리는 장소이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도보를 이용한다. 일정 지역까지는 기차를 타고 그 다음부터 목적지까지는 배낭을 메고 걸어간다.<sup>20</sup>

### 더 알아보기

### 대표적인 답사 경로

백두산 혁명지 <sup>21</sup>	혜산에서 출발해 김일성의 혁명전적이 깃들었다는 보천보, 삼지연 등을 거쳐 백두산을 등반하고 김정일의 생가라고 선전하는 백두밀영고향집 등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
만경대 고향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찾아 헌화를 한 후 김일성의 만경대 고향집과 만경대혁명사적관 등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
양강도 포평	평양을 출발하여 개천, 향산, 강계 등을 거쳐 양강도 포평까지 걸어가는데 포평에는 김일성이 압록강을 건넌 나루터와 같은 각종 혁명사적지가 있어 김일성 주석에 대한 충성심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

---

## 출 처

### [단행본 및 논문]

-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22)
-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1)
- 김지은, 『북한은 지금: 배송사업 열풍』, 북한연구소 (2018.09.)
- 『두산백과사전』
- 박정숙, 『북한의 교육제도와 사교육 열풍』, 북한연구소 (2013.08.)
- 북한경제연구, 『북한의 중앙은행 돈표 발행의 배경과 시사점: 개연적 추론』, (2022)
-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북한의 기술특성화고교 기술고급중학교 등장』
- 북한연구소, 『김정은의 통치자금, 해외 북한식당』, (2016.04.)
- 손광수, 『북한의 금융구조 변화(下): 북한의 전화돈과 모바일 결제 앱 ‘올림』, 북한연구소 (2020.06.)
- 손해민, 『북한은 지금: 전자결제카드가 온라인 쇼핑몰로 확장』, 북한연구소 (2019.01.)
- NK TECH, 『북한의 IT교육에 관한 연구』, (2005)
- 영재교육연구, 『북한의 영재교육 제도 고찰』, (2001)
- 육이정책연구소,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 보육 현황 분석연구』, (2020)
- 이상만,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 경험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반도미래연구 (2021)
- 이유진, 『북한의 금융구조 변화(上): 북한에 금융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연구소 (2020.05.)
- 임수호 외 2인,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12.)
- 임을출, 『생계 위해 장마당에 내몰리는 북한학생들』, 북한연구소 (2017.04.)
- 전일규, 『북한 학교의 방과후활동 연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 정동성, 『스포츠와 政治』
- 정명호, 『입학식 날, 6년의 운명 결정대』, 통일한국 (2013.04.)
- 정정현, 『북한의 협동농장 생산체제에 있어 분조관리제의 변화와 농업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협동조합경영연구 (2018.06.)
- 조명철,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12.)
- 통계청, 『북한통계』
- 통일연구원,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2020)
- 통일한국, 『대학입학과 선호학과는?』, (2012)
- 평화문제연구소, 『클릭! 통일교육』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13 : 북한에도 부자가 있을까?, (2012)
- 평화문제연구소, 『클릭! 통일교육』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13 : 북한의 상품유통체계는?, (2012)
- 평화문제연구소, 『클릭! 통일교육』 탈북교사의 생생이야기 47 : 북한판 수학여행?, (2016.11.)
- 평화문제연구소, 『탈북교사의 생생이야기: 북한에 부는 사교육치맛바람』, (2013)
- 평화문제연구소, 『꼭 알아야 할 통일북한 110가지』, (2011)
- 한국개발연구원, 『2021년 북한의 시장 물가 및 환율의 추세와 특징』, (2022.02.1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법교육학회, 『통일 대비 북한 사회과 교과서 편수용어 분석』, (2019)
- 한국융합학회, 『남한과 북한의 초등학교 컴퓨터교육 현황과 향후 전망』, (2014)
-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 협력 이행 실태 분석』, (2019.07.)
- 한국학연구, 『북한의 영재교육』, (2014)

### [블로그 및 홈페이지, 기타자료]

- 국립통일교육원, 청소년 지식사전 홈페이지 (2022.08.)
- 북한자료센터
- 북한지역정보넷

---

통일교육원, 자료마당

통일뉴스, 「북, 태양절 맞아 사리원교원대학 준공식 진행」

통일부, 「북한인권포털」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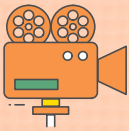
#### [미주]

- 1 연합뉴스, 「북한에도 30년 넘은 미스터 트롯이 있다?」 (2021.04.26.)
- 2 데일리NK, 「북한, 기술고급중학교 130개 확충.. 외화벌이 최적화 인재 육성?」 (2022.02.24.)
- 3 뉴스1, 「밝고 다양해진 북한 교복...달라진 새 교복 도안 공개」 (2021.12.24.)
- 4 MBC뉴스, 「새로운 교복·가방 생산...학용품에 올인한 북한」 (2022.01.28.)
- 5 KBS 월드 한반도 A to Z, 「북한의 단체복문화」 (2021.09.30.)
- 6 데일리NK, 「북한 교육성, 화상회의로 방학 지시...학생들에 '숙제장'도 나눠준다」 (2021.07.23.)
- 7 연합뉴스, 「김일성대 유학생, 어떻게 지내나... 물물교환 등 상행위금지」 (2019.12.17.)
- 8 통일한국, 「대학입학과 선호학과는?」 (2013.06.01.)
- 9 뉴데일리, 「북 권력층 자녀를 세습간부로 키우는 학원 2개」 (2014.08.13.)
- 10 뉴데일리, 「들쭉따기 동원 피해 알바 뛰는 北 청소년들」 (2018.07.18.)
- 11 매일경제, 「마르크스도 말리지 못하는 북한의 뜨거운 사교육 시장」 (2018.05.18.)
- 12 자유아시아방송, 「북 학생이 도덕 생활서 지켜야 할 10가지」 (2016.07.29.)
- 13 NK리포트, 「북한 대학의 장학금 제도」 (2002.07.02.)
- 14 통일뉴스, 「항상 준비! -북 조선소년단 70년 역사와 현재」 (2016.06.06.)
- 15 MBC뉴스, 「북한이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을 늘린 이유」 (2022.09.23.)
- 16 교육신문, 「제25차 전국 제1중학교, 고급중학교, 외국어학원 학생들의 학과 경연진행」 (2017.09.07.)
- 17 강재희, 엄정애 「교양원이 경험한 북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일과시간 운영」 유아교육학논집 (2008)
- 18 데일리NK, 「김일성대 입시 탈락한 제1중학교생은 지방대로 진학 가능」 (2019.12.12.)
- 19 The JoongAng, 「북한 어린이들, 다음달 1일부터 초등학교 1년 더 다녀야」 (2017.03.29.)
- 20 뉴스1, 「천리행군 나선 北 청소년들...김일성 행적 학습」 (2020.01.23.)
- 21 연합뉴스, 「北 청소년, 여름철 백두산 '답사행군' 하는 이유」 (2014.06.06.)



**PART 4**

**북한문화**



# 가요

🔍 연관어 음악단

북한의 가요는 혁명가요, 정책가요, 서정가  
요, 민요 등 다양한 종류로 구분된다. 각 가  
요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가요 종류	의미
혁명가요	낡고 반동적인 사회제도와 착취계급을 반대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래
정책가요	북한 노동당의 노선, 정책, 방침, 구호를 반영한 군중 가요
서정가요	가사에서 개인의 감정, 정서를 그려낸 가요
민요	민중 사이에 불려오던 전통적인 노래

**북한 가요의 특징** | 북한은 통치 방식의  
하나로 음악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

한 가요는 사회주의 건설과 당 정책 선전을 위하여 인민대중을 동원하고 인민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자 하는 혁명성과 정치성이 배어 있다. 이들은 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 사회주의 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김정일 시기의 <선군장정의 길>, <내 나라의 푸른 하늘>과 김정은 시기의 <내 심장의 목소리>, <고백> 등이 있다.

**북한의 생활가요** | 북한의 가요에는 혁명사상을 주제로 한 가요 이외에도 생활 속의 감정을 다룬 가요도 있다. 생활가요는 혁명가요와는 다르게 경쾌한 리듬과 생활 속 감정을 표현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전에는 혁명가요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생활가요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세대의 등장으로 혁명가요만으로는 대중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활가요를 늘리며 음악 문화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있다.<sup>1</sup> 북한의 대표 가요이자 현재까지 사랑받는 노래가 바로 <회파람>이다. 이 노래는 비교적 남한에도 많이 알려졌으며, 북한 청소년들에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 더 알아보기

### 북한 내 한국 가요의 인기

북한에서 한국 대중음악은 '남조선 날라리풍', '자본주의 황색 바람'으로 묘사되고, 불순출판물로 분류되어 청취는 물론 언급도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도 많은 북한 주민들은 한국 음악을 비밀리에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인기 있는 한국 가요로는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백지영의 '총맞은 것처럼' 등이 있으며 일부 젊은 세대는 레드벨벳과 방탄소년단을 알고 있다고 전해진다.<sup>2</sup> 조용필, 이선희, 레드벨벳 등 우리나라 가수들은 2018년 방북하여 평양 공연을 하기도 했다.

## 간편 먹거리

🔍 연관어

외식 문화, 장마당

북한에도 다양한 간식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남녀노소 쉽게 즐길 수 있다. 패스트푸드같은 서양 음식 문화가 많이 유입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전통음식이나 조리하기 편한 음식들 위주로 간식거리를 만들어 먹는다.

**계층, 지역별 간식 종류** | 북한 사람들의 간식 문화는 자기가 속한 계층과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상류층이나 평양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보다 다양하고 좋은 간식을 접할 수 있다. 평양의 외화 상점에서는 가락지빵(도넛), 설기과자(카스테라), 애기과자(우유과자), 과일단물(주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상류층이 아닌 평범한 북한 사람들의 간식거리로는 지짐(부침개), 떡, 강냉이 알튀기(옥수수 빵튀기), 강냉이 평평이(옥수수 과자의 일종), 고구마, 가마치(누룽지) 등이 있다.<sup>3</sup>

**간편 조리 음식의 유행** | 북한에서 간편 조리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간편 조리 음식 중에는 ‘꼬부랑 국수’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라면이다. 북한에서 라면은 귀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음식의 맛을 표현할 때 ‘꼬부랑 국수 저리 간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다. 2000년대 이후, 봉지라면 형태의 ‘봉지 즉석 국수’와 컵라면인 ‘그릇 즉석 국수’도 생산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믹스커피와 같은 즉석 커피도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되어 시장으로 조금씩 유통되고 있다. 북한 사람들은 이를 ‘남조선 막대커피’라고 부르며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접대용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 더 알아보기

### 개성공단과 초코파이

개성공단이 가동되었을 당시 초코파이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최고의 인기 간식이었다. 하루에 1인당 2~3개의 북한 근로자에게 초코파이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여 그 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초코파이를 받으면 곧바로 먹기도 했지만 가족들에게 나누어주고 장마당에 판매하기도 했다. 특히 장마당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 초코파이를 장마당에서 사고파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을 우려한 탓인지 북한에서는 2014년 초코파이 제공에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초코파이 대신 닭고기 즉석국수 및 유사제품인 경단설기가 대체 물품으로 제공되었다.<sup>4</sup>

# 개성만월대

🔍 연관어 문화재

개성만월대는 고려의 궁궐터를 부르는 이름이다. 개성시 송악동 송악산 기슭에 위치한다.

**만월대 이름의 유래** | 만월대는 919년(고려 태조 2년)에 창건되어 1361년(공민왕 10년) 홍건적에 의해 소실될 때까지 고려 왕조와 흥망성쇠를 함께 한 곳이다. 만월대라는 이름은 고려 이후 조선 시대부터 불리던 이름으로, 정월 대보름달을 바라보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망월대(望月臺)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월대는 고려 공민왕 때인 1316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불에 타 일부 계단과 성벽만이 남아있어 망국의 허망함이 느껴지는 곳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슬픔을 노래한 옛 가요 ‘황성옛터’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개성만월대의 규모 및 구조** | 북한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개성만월대의 전체 면적은 390,000㎡이다. 이는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역명	설명
중심건축군	가장 널리 알려진 공간 궁궐 중앙부 가장 높은 대지에 남북 방향
동부건축군	중심건축군 기준으로 동편에 있음 춘궁과 동지가 있는 지역
서부건축군	궁 내의 생활공간 중심건축군 축대 아래로 낮게 펼쳐짐 '남북공동발굴조사' 대상지역
서북건축군	서부건축군 위쪽에 위치



## 더 알아보기

### 개성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사업

개성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사업은 남북한 역사학자들 간의 합의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추진되었다. 사업 추진의 주체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로 되어 있으며, 발굴 사업은 남한의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북한의 조선역사중앙박물관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사업 개시 이후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수 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였지만 2013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8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최근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까지의 발굴성과를 디지털로 개발하여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있다([www.manwoldae.org](http://www.manwoldae.org)).



북한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게임 소프트웨어가 등장하였다.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온라인 게임들도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북한의 게임 개발** | 북한은 IT산업의 한 축으로 게임 개발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PC게임을 넘어 온라인 게임, 3차원 게임, 스마트폰 게임 등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외화벌이를 위한 게임 개발 뿐 아니라 북한 내 사용자들을 위한 게임들도 개발되고 있다.<sup>5</sup> 북한의 게임산업은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가정용 게임기인 모란봉을 개발하기도 했다. 모란봉은 동작을 인식하는 촬영기와 운동 발판 등을 갖추고 있다.

**북한 학생들의 인기 게임** | 북한의 게임들은 주로 역사나 고전소설을 주제로 많이 제작되었다. 특히 북한의 인기 애니메이션 ‘소년장수’에 기반해 만든 게임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북한 내 게임 제작이 다양화되면서 최초의 레이싱게임인 ‘평양 레이서’나 각종 모바일 게임 등도 출시되었다.

북한 학생들의 인기 게임

명칭	게임 내용
<소년장수> 테이블 롤플레이팅게임	2015년 인기를 끌었던 모바일 게임으로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게임 내 캐릭터가 적들을 격퇴함.
<평양레이서>플래시 게임	북한의 전문여행사인 고려투어에서 북한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함.
<2019년 특점왕>모바일 게임	북한이 호날두 이미지를 내세워 만든 게임으로 유럽축구 무대에서 뛰는 많은 스타가 등장함.

## 더 알아보기

### 알파고 이전 최고의 바둑게임 ‘은별바둑’

북한은 1997년 은별 바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제 대회에 출품하였다. 2016년에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게임을 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바둑프로그램으로 손꼽혔던 것이 바로 은별바둑이다. 북한은 은별 바둑 개발을 통해 외화벌이와 함께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까지 진행하였다. 북한은 은별바둑을 필두로 다양한 분야의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 학생들은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를 자주 한다. 일상생활뿐 아니라 들놀이(소풍)와 같은 행사에서도 다양하게 놀이를 즐기고 있다.

**일상 놀이** | 일상에서는 환경과 도구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놀이들을 즐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락지 찾기 놀이, 주패놀이, 산가지 놀이 등이 있다.

놀이 이름	설명
가락지(반지) 찾기 놀이	빙 둘러앉아 한 사람이 무릎 밑에 가락지를 감추고, 감춘 가락지를 '밤'이라는 술래가 찾는 놀이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음
주패놀이	나이가 있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카드놀이 내기 또는 도박으로 행해질 우려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 통제함
오닥치기	우리나라의 자치기와 비슷한 놀이 평평한 땅에 지름 15cm, 깊이 10cm 정도의 구멍을 만들고 나무막대기를 구멍에서 밀어내는 방식
산가지 놀이	나무를 깎아서 젓가락과 비슷한 모양을 한 산가지를 이용해서 하는 놀이 산가지 따기, 떼어내기, 형태 바꾸기 등 다양한 놀이가 가능하다.

**외부 행사에서의 놀이** | 우리나라의 숨바꼭질과 썰매타기처럼 공간과 도구가 필요한 놀이도 있다. 이는 주로 소풍 등 외부활동에 나갔을 때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건돌리기이다.

놀이 이름	설명
수건돌리기	원 모양으로 동글게 앉은 뒤 술래가 수건을 돌리며 노는 놀이
숨바꼭질	북한의 숨바꼭질
무릎싸움	우리나라의 닭싸움과 비슷한 놀이로, 발과 어깨 모두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넘어뜨림
외발기	우리나라의 썰매타기같은 놀이로, 겨울철 얼어붙은 강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 발이 하나인 썰매에 올라타고 송곳으로 얼음판을 밀어내는 방식

## 더 알아보기

### 북한 명절날의 놀이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명절에 다양한 전통놀이를 즐긴다. 북한 당국이 전통 민속놀이를 주민에게 적극 장려하기 시작한 것은 추석과 음력설, 단오절, 추석 등 명절을 복원시키면서부터였다. 명절이 되면 공원에 나와 윷놀이, 제기차기, 그네뛰기 등을 즐기거나 직장별로 놀이를 하며 즐겁게 보내는 풍습이 보편화되었다. 북한에서 윷놀이는 가장 인기 있는 놀이의 하나로 설 명절의 대표적 오락이다. 그네뛰기, 씨름 경기도 한다. 정월대보름에는 쥐불놀이나 농악놀이, 탈놀이와 같은 여타의 민속놀이들도 즐기기도 한다.<sup>6</sup>

북한에서는 놀이공원을 유희장이나 유원지라고 부른다. 김정은은 직접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등 건설을 지시하고 현장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대표 놀이공원** | 북한은 1960년대에 조성된 능라인민유원지, 대동강유원지부터 최근 리모델링 작업을 완수한 만경대유희장까지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 문수물놀이장은 1994년 완공되어 운영되다가 2013년에 현대식으로 재개관된 북한 최대 규모의 물놀이장이다. 이 곳에는 27개의 미끄럼틀, 야외 물놀이장, 실내 물놀이장이 있다. 또한 인공폭포와 배구장, 암벽등반, 한증막 시설 등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

만경대유희장은 1982년 개장한 평양 만경대구역의 테마파크이다. 2012년 개보수작업에 들어갔으며 평양주민들, 그리고 지방의 여유 있는 부유층들이 휴식을 위하여 방문하는 곳이 되었다. 유희장 내부에는 관성열차, 대관람차, 회전비행기같은 놀이기구와 전자오락기구, 보트장, 활쏘기장 등이 있다.

**북한의 소재지별 대표적 유희시설** | 북한의 유희시설로는 능라인민유원지,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등이 있으며 이들은 평양시에 다수 존재하나, 평양뿐 아니라 북한 전 지역에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소재지	유원지
평양직할시	능라도유원지, 대동강유원지, 만경대물놀이장, 만경대유희장, 문수물놀이장, 서산골프장, 인민야외빙상장
나선특별시	비파도해수욕장
남포특별시	백화원, 심화화원, 평양골프장
강원도	마식령스키장, 금강장, 송도원해수욕장, 원산동물원
양강도	각시놀이터, 삼자연스키장
자강도	강계동물원
평안남도	석암유원지, 송정
평안북도	신의주은덕원, 씨름터, 압록강유원지
함경남도	기암유원지, 마전유원지
함경북도	어대진해수욕장, 용현해수욕장
황해남도	몽금포해수욕장, 용수포해수욕장
황해북도	송림놀이터, 정방산유원지, 개성물놀이장

## 더 알아보기

### 북한의 놀이공원 이용료

북한의 놀이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야 한다. 만경대유희장의 경우에는 약 60원 정도이고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개선청년공원의 경우에는 약 300원 정도이다. 입장료는 저렴한 편이지만, 놀이공원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 비싼 압표가 판매되기도 한다. 또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도 놀이기구를 탈 때마다 추가로 이용요금을 내야 한다. 놀이기구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도 있으나 이는 꽤 비싸게 판매된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드라마를 ‘텔레비죤 (련속)극’이라고 부른다. TV 시청은 북한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여가 수단이다.

**북한 드라마의 어제와 오늘** | 기존의 북한 드라마는 주로 북한 지도자의 업적과 지도자와 함께 투쟁에 참여한 인물들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루었다. 주인공은 드라마 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의식의 변화를 이루고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하는 도덕적 인간이 된다.

최근 북한 드라마는 조금씩 변화를 꾀하고 있다. 남녀문제, 주민 생활, 사회적 갈등 해결 등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드라마의 화질이 좋아지고, 유명 배우들이 등장하는 중국 연속극을 방영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는 항일운동 시기를 활극으로 연출한 <방탄벽>이 있으며, 평양의 고층 아파트를 소재로 한 <우리 이웃들> 등이 있다.

**대표 드라마** | 대표 드라마로는 김일성 가계에 관련된 것들에서부터 주민 생활 및 갈등 해결까지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다.

시기	제목	내용
김일성 시대	<석개울의 새봄>	1950년대 농촌 현실을 배경으로, 당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공작 속에서 곳곳하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주인공의 이야기
김정일 시대	<가정>	부부 간의 갈등과 불화를 그린 작품
	남북한 합작드라마 <사육신>	사육신들의 충정과 절개를 현대적으로 고찰한 드라마
김정은 시대	<방탄벽>	1940년대 항일운동이 벌어지는 도시를 배경으로, 첩보요원의 활약상을 다룬 드라마

## 더 알아보기

### 남한 드라마의 유행과 남한풍

북한에서는 남한 드라마가 주민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남한의 문화를 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남한의 드라마가 담긴 CD나 USB가 거래되며 남한의 드라마를 시청하는 주민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남한 드라마 유행은 중국과 가까운 신의주, 나진 등지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북한의 대도시까지 널리 퍼졌다. <가을동화>, <대장금>, <사랑의 불시착> 등이 인기가 있다고 한다.

남한 드라마를 접한 주민들은 이를 모방하기도 한다. 뽕때바지라 불리는 몸에 짝 붙는 바지, 헤어스타일의 변화 등의 ‘남한풍’이 인기가 많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남한 드라마를 접하며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을 흉내내고 있다.

북한에서는 반려동물이라는 단어 대신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쓴다. 동물을 동반자로 보는 남한의 시각과 달리 북한의 애완동물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 기른다는 측면이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개나 고양이 이외에도 애완용으로 다양한 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애완동물에 관한 전문지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사회의 애완동물 문화** | 북한에서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쓰게된 것은 1980년대 말쯤이며 주로 노동당의 간부나 신흥 부자 등을 비롯한 상류층들이 집에서 애완용으로 개를 키우면서 시작되었다.<sup>7</sup> 1990년대 후반에는 개가 사람의 정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애완견 키우기를 권장하기도 하였다. 평양을 비롯한 북한 사회에서 다양한 애완동물을 키우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었던 이유이다.

**반려(애완)동물을 바라보는 남북한의 차이** |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아직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강아지 옷을 산다거나 비싼 음식을 먹이는 것 등은 여전히 북한 사회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 좋은 개의 가장 우선적인 덕목은 집을 잘 지키는 것이다. 즉 충성스러움이 개가 사랑받는 기준인 셈이다. 이처럼 북한에서 동물의 위치는 인간을 위한 실용적인 이유가 중심을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북한사회에서도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며 상류층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



## 더 알아보기

### 남한의 진돗개와 북한의 풍산개

남한의 진돗개와 북한의 풍산개는 둘다 모두 대표적인 사냥개이다. 생김새도 비슷하고 특히 둘 다 모두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복종심이 뛰어나다. 진돗개는 산 속에서 맹수를 만나도 겁먹지 않고 덤벼들 정도로 용맹하다. 풍산개 또한 북한에서 호랑이를 잡는 개라고 불릴 정도로 용맹하며 북한의 기후에 적응하여 털이 굵고 몸이 다부지다. 풍산개는 북한에서 국견으로 지정되었으며 진돗개 역시 남한의 천연기념물이다. 진돗개와 풍산개는 남북정상들에 의해 선물로 상호교환이 이뤄진적이 있다. 최근에는 풍산개 수컷과 진돗개 암컷 사이에서 태어난 통일개가 영리함과 용맹함을 두루갖춘 명견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 만화영화

연관어 여가생활, 영화, 영화촬영소

북한에서는 만화영화를 ‘아동영화’라고 하는데, TV에서 매일 5~6시쯤 상영해주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이 시간이 되면 남녀노소 TV 앞에 모여들 정도로 북한 내 아동영화의 인기는 높다.

**아동영화에 대한 투자와 기술 발전** | 북한의 아동영화 기술력이 높은 것은 그만큼 국가로부터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예전부터 아동영화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점차 투자 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현재는 한 작품에 40여 명의 미술가들이 투입되며, 컴퓨터 배경 등에 투입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와 발전하는 기술력으로, 2021년 북한은 1년 3개월에 걸쳐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다. ‘악마를 이긴 역쇠’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인물의 움직임을 360도 각도에서 보여주는 입체적 기법과 다양한 특수효과를 사용하여 북한 애니메이션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보여준다. 생동감 넘치는 표현과 첨단 기술 구현에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아동영화의 내용** | 북한의 아동영화는 주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최고의 인기작이었던 ‘령리한 너구리’처럼, 어린이들의 지능 계발을 위해 과학 지식을 전달하거나 생활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런데 최근 김정은 시대 이후로 아동영화에서도 정치적인 색채가 짙어졌다. 2008년의 아동영화 ‘아홉 명의 뱃사공’에서는 사공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보다 사공은 오직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부각시킨다. 경험 많은 뱃사공의 손자가 할아버지를 이어받아 키를 잡아야 하고, 사람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 2010년 이후에 제작된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요’ 시리즈는 제목 그대로 교통질서에 대한 내용인면서도 만화의 배경으로 개성천년공원, 로라스케이트장, 실내 수용장 등이 등장하여, 김정은 시대에 달라진 북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 더 생각해보기

남북간의 만화영화를 합작으로 만든다면 어떤 내용의 것이 가능할까요?

## 북한의 대표적인 아동영화

	<p><b>령리한 너구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7년 ~ 2010년대 제작</li> <li>- 60부작 이상의 장편 애니메이션</li> <li>- 수학, 물리, 화학, 생물과 같은 과학지식을 쉽게 학습할 수 있음</li> </ul>
	<p><b>소년장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2년 ~ 1997년 50부 제작 후 고난의 행군으로 잠정적 중단</li> <li>- 이후 김정은 시대에 들어 2014~ 2019년까지 100부 완성</li> <li>- 고구려 장수 쇠메의 성장 과정 및 외세의 침략에 방어하는 내용</li> <li>- 민족제일주의와 애국심 고취가 목적<sup>8</sup></li> </ul>

### 더 알아보기

#### 남북한 합작 아동영화 ‘뽀로로’

‘뽀롱뽀롱 뽀로로’는 2003~2006년 아이코닉스·오콘·하나로통신과 북한 삼천리총회사가 합작한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이다. 뽀로로 시즌1과 시즌2의 총 스무 편을 남북한이 함께 만들었다. 물리적, 언어적 장벽으로 합작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의사소통은 팩스로만 했으며, 남북한 간 언어의 뉘앙스 차이 때문에 수정을 거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뽀로로는 130개 이상의 나라에 수출되고 유튜브에서도 매달 2억 회가 넘게 재생되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다.<sup>9</sup>



북한은 문화재를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의 원칙에 맞는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 및 유물로 보았다. 남북한은 문화재에 대한 표현도 각기 다른데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를 북한에서는 ‘비물질 문화유산’이라고 하고, ‘유형문화재’는 ‘물질 문화유산’이라고 말한다.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물질 문화유산’의 가치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물질 문화유산’은 유물(국보유물, 준국보유물), 유적(국보유적, 준국보유적), 천연기념물, 명승지로 구분한다.

**북한의 물질 문화유산** | 북한에는 평양과 개성을 중심으로 고조선 이후의 물질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있다. 고조선의 시조 단군의 무덤으로 알려진 단군릉이 평양시에 자리하고 있다. 고구려 시대의 유산인 평양성은 북한의 국보유적 제1호로, 평양시에 남아 있는 성곽이다. 선죽교는 개성시에 위치해 있는 고려시대의 다리로서 정몽주가 피살되던 당시 돌다리에 남은 정몽주의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즉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것들을 특별히 여겨 이를 ‘교시유적’이라 하고, 학술적 연구나 보존 사업에서 우선시한다. 교시유적에는 최고지도자의 혁명활동과 관련된 것들이나 최고지도자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평가한 것들이 해당된다. 문화재 선정과 보존에 있어서도 최고지도자의 이상화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천연기념물을 선정할 때도 자연적·학술적 가치보다 정치적 지도자와의 관련성이나 역사적 의미를 더 중요시한다. 그 예로 북한의 천연기념물 1호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직접 심은 ‘능라도 산벚나무와 전나무들’이다. 명승지는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학술·교양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으로서, 대표적인 예로 평양시 금수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모란봉을 들 수 있다.



단군릉에서의 개천절 기념행사



개성역사지구 선죽교

**북한의 비물질 문화유산** | 비물질 문화유산이란, 한 민족이 역사발전 과정에 이룩하여 후세에 남긴 정신문화적 재산을 의미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역사를 물질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유물론적 관점으로 해석한다. 2000년 이전까지 북한의 문화재 정책은 물질문화재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북한의 문화재 정책은 물질문화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비물질적인 유산은 민속학, 고고학 연구 대상으로 한정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남한이 북한에 비해 네 배 가량 많은 문화재 개수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비물질 문화유산'이 보호대상으로 포함되어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아리랑', '씨름', '평양냉면', '김치', '막걸리' 등이 국가 비물질 민족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더 생각해보기**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 남한과 북한이 협력해야 하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요?

**더 알아보기**

**유네스코에 등재된 북한의 문화유산**

1998년 7월 북한은 세계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북한의 문화재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씨름'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남북한이 공동 등재하였다. 전세계적으로 각각 신청한 다른 유산을 유네스코에서 공통성을 인정하고 공동등재로 승인을 해 준 경우는 '씨름'이 유일하다고 한다. 현재는 '태권도'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남북이 공동등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는 평양에서 WT세계태권도연맹(남한 국제태권도연맹)과 ITF국제태권도연맹(북한 국제태권도연맹)이 남북한 동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협의서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sup>10</sup>



구분	등재유산	년도
세계유산	고구려 고분군	2004
	개성 역사유적지구	2013
인류무형문화유산	조선민요 아리랑	2014
	김치 담그기 풍습	2015
	씨름	2018(남북공동등재)
	탈춤, 평양냉면	2022
세계기록유산	무예도보통지	2017

# 북한대표음식

연관어 외식 문화

북한 음식은 한반도 북부 지방에서 발달하여 북한만의 지역적 특색을 갖춘 한국 요리의 한 갈래이다.

**북한 음식의 특징** | 북한 음식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음식과 유사하나 기후 및 지형 조건 등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즉 북한에서는 쌀보다는 메밀, 조, 옥수수, 감자 등의 잡곡을 많이 생산한다. 지리적 특성상 산이 많고, 강수량이 적어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음식들도 잡곡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또한 북한의 기후가 서늘하고 겨울이 길어 식자재가 변질될 우려가 적어, 전반적으로 음식의 간이 싱겁고 향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별 대표음식** | 북한의 지역별 대표 음식은 오른쪽 지도의 내용과 같다.



## 더 알아보기

### 북한의 대표음식점 - 옥류관

옥류관은 평양 대동강의 옥류교 옆에 위치한 북한의 대표 음식점이다. 2층짜리 한옥 건물로 600석 규모의 연회장과 1400석 규모의 별관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평양냉면, 평양온면, 대동강 송어국, 자라보신탕, 송어회 등이 있다.

옥류관은 북한 간부들의 연회장소나 외국인 접대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2000년 정상회담 당시의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곳에서 오찬을 즐겼다.



옥류관의 평양냉면

북한은 '체육강국' 건설을 내세우며 체육 분야 전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에는 체육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신설하여 열악한 체육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과학적인 운동시스템도 도입하였다.

**북한의 생활체육** | 북한에서도 생활체육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의 증진을 도모한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에는 체육열풍이나 체육 강국건설 등의 구호가 많이 등장하였다. 전국의 도시에 체육단지가 건설되고 생활체육 인프라 등이 확대되었다. 북한에서 활성화된 생활체육 종목은 축구, 농구, 배구 등 고전적인 종목이 많다. 그중에서도 축구나 농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다. 또한 북한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실제 북한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전체 금메달은 사격, 역도, 레슬링 등 북한의 주요 전략 종목에서 나왔다.

**북한의 인기 스포츠** | 북한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다. 북한은 1966년 월드컵에서 8강에 오르기도 하였다. 2013년에는 평양국제축구학교를 개교하면서 전국에서 축구와 운동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 해외 축구감독을 초빙하기도 하고 우수한 학생들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축구 유학을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 10개 이상의 팀이 참여하는 연맹전이 열리기도 한다. 북한에서 축구 다음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는 농구다. 실제 김정은이 농구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 내 인기가 높아졌다. 그리고 농구가 신체 발육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북한 교육 당국도 정책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북한의 스포츠 스타들

북한에는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많았다. 먼저 남한에도 잘 알려진 유도 영웅 계순희가 있다. 그녀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만16세로 일본선수를 꺾고 북한 유도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탁구의 리분희는 1991년 남북 단일팀 단체전 금메달의 주역으로 남한에서는 영화 '코리아'의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농구의 리명훈 또한 북한의 유명 스포츠 스타이다. 또한 최근에는 북한의 호날두라고 불리는 북한 축구대표팀 공격수 한광성도 유럽에서 맹활약 중이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나라처럼 일하고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 여가생활이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제난 이후 개인장사 등 부업으로 바쁘고 여행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여가활동은 보장되기 어렵다.

**전통적인 여가생활** | 북한 주민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즐겼던 여가생활은 영화 및 공연 감상이다. 주로 직장 단위로 단체관람을 주로 하며, 관람 후에 토론회를 갖기도 한다. 전기 공급이 열악해지면서 최근에는 태양열 전지판과 축전지를 이용한 TV 시청이 많아졌다. 또한 시장을 통해 외부 영화나 드라마가 유입되고 휴대용 매체를 통해 이를 시청하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당국의 강력한 통제 하에서도 남한 영상물 시청도 북한 주민들의 새로운 여가 활용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평양의 여가생활** |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전보다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긴다. 미용에 관심을 가지면서 헤어스타일과 의상에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으며, 평양체육관에는 6백여대의 전자오락 기기를 갖춘 초대형 전자오락실이 있어 하루 5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찾아와 즐긴다고 한다. 김정은 체제 이후에는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 강조하며 평양에 공원, 유원지, 물놀이장, 빙상장 등 위락시설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 더 알아보기

### 북한의 옥토버 페스트 ‘대동강 맥주축제’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축제와 같은 새로운 축제를 개최하고 사람들은 이에 참여하는 등 점점 다양한 방식의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 대동강 맥주축제는 2016년 평양 대동강변을 무대로 처음 개최되었다. 대동강 맥주축제의 주인공 공인 ‘대동강 맥주’는 북한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대표 맥주로서 봉학 맥주, 룡성 맥주, 금강 맥주와 함께 북한의 4대 맥주로 꼽히고 있다. 축제 기간에는 ‘맥주 알아맞히기’같은 이벤트도 진행하고, 참가자들은 평양의 야경을 보며 다양한 안주와 맥주를 즐겼다. 다만, 축제는 2017년 갑자기 취소된 이후 최근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sup>11</sup>



# 연예인

🔍 **연관어** 음악단, 예술학원

북한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수과 배우 등의 연예인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예술전문 교육기관 출신이다. 이들은 대중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북한에서 연예인이 되는 방법** | 북한에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도에 있는 예술학교를 나와야 한다. 예술 전문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바로 배우나 가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수준 높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평양연극영화대학’이나 ‘김원균평양음악대학’ 또는 ‘평양예술대학’ 등에 진학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외에도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안에 영화배우를 교육하는 곳도 있고, 때때로 일반 직장에서 소질이 발견되어 배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북한에서 연예인이 되려면 신체적 조건과 능력뿐 아니라 확실한 사회주의 혁명사상 및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필요하다.

**북한의 인기 연예인** | 김정은의 배우자인 리설주는 은하수관현악단 출신 가수였다. 북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병사의 발자국’을 부른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당 부부장으로 활동중인 현송월도 북한의 유명한 가수 출신이다. 2012년에는 모란봉악단의 단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국가 행사에서 김정은을 보좌하는 모습이 매체를 통해 노출되었다.<sup>12</sup> 2022년에는 신인가수 정홍란, 김류경, 문서향이 전승절 기념행사에 등장하여 새로운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보여주기도 하였다.<sup>13</sup>



은하수관현악단 시절 리설주

## 더 알아보기

### 북한의 연예인에 대한 대우

북한에서 연예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운 칭호가 바로 ‘인민’이다. ‘인민배우’는 영화, 음악, 무용, 연극, 즉 무대에서 공연하는 배우들을 대상으로 수여되며, ‘인민예술가’는 회화, 조각, 도안, 장식, 공예, 작곡 등의 기술적 측면을 높게 평가하여 수여한다. 인민 칭호를 받은 예술인들은 부장급(장관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으며, 기본 급여 이외에 15~20%의 가산된 급여를 지급받는 등 사회의 특수계층으로 신분 상승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2021년에는 김옥주 국무위원회 연주단 성악배우에게 인민배우 칭호를 수여하였다. 인민칭호 다음으로는 공훈배우, 공훈예술인이 있다. 북한의 모든 예술인들은 1급부터 9급까지의 등급제로 되어 있는데, 공훈 칭호나 인민 칭호는 1급보다 높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화계에서 오랫동안 종사하고, 공로를 인정받은 예술인들만이 받을 수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의 북한에서는 식당은 객지에 나온 사람들이 밥을 먹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 외식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이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일이 빈번해졌고, 외식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식당의 종류** | 북한에서 식당은 국영 식당, 길거리 음식점, 그리고 장마당 음식점이 있다. 국영 식당은 지역의 고유 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식당으로, 옥류관이 대표적이다.<sup>14</sup> 길거리 음식점과 장마당 음식점은 우리나라의 시장처럼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가격 부담이 적다. 판매하는 음식은 국수, 두부밥, 떡, 순대 등 다양하다.

**외국음식점의 증가** | 북한에서는 햄버거를 ‘고기겍빵’으로 부르는데, 이를 판매하는 식당들도 생겨났다. 즉 북한의 패스트푸드점이다. 이 곳은 고기겍빵 뿐 아니라 치킨너겟과 감자튀김을 판매하며,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이탈리아 음식점도 있어 피자와 파스타를 먹을 수 있다. 서양음식점뿐 아니라 샐러드 음식점과 중국 요리를 판매하는 음식점도 생겨났다. 2011년 평양호텔에 서양식 커피를 내리는 카페가 생긴 이후로 각종 커피숍까지 새롭게 생겨나는 등 북한의 외식 문화가 점차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sup>15</sup>

## 더 알아보기

### 북한의 주문봉사

북한 장마당에는 가까운 곳에 음식을 가져다주는 ‘음식 배달’ 서비스가 있다. 북한에서는 배달을 ‘주문봉사’라고 한다. 장마당에는 고정적으로 ‘자릿세(월세)’를 내는 상인들이 많다보니 단골손님이 증가하고, 그들에게 음식 배달을 해주기 시작한 것이다. 휴대전화의 발달은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데 한몫을 했다. 휴대전화가 보편화되면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 상인들은 그곳으로 음식을 만들어 배달한다.



북한의 영화촬영소는 국가 차원으로 운영되는 영화촬영을 위한 시설인 동시에 영화창작 기관이다. 북한에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조선 4.26아동영화촬영소,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등 많은 촬영소들이 설립되어 있다.

**국가 주도의 영화 제작** | 북한에서 제작되는 영화는 모두 시나리오부터 감독·배우선정, 제작과정, 영화보급에 이르기까지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영화인들은 예술정책에 따라 제작계획을 연·월별로 작성하여 조선영화인동맹 및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검열을 거친다. 당 지도의 핵심 기관은 노동당 산하의 중앙당선전선동부다.

## 주요 영화촬영소의 특징

영화촬영소명	위치	특징
조선예술 영화촬영소	평양시 형제산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영화를 대표하는 곳</li> <li>예술영화 전문 제작</li> <li>배우양성소, 현대화된 각종 장비 및 대규모 야외촬영장 보유</li> </ul>
조선4.26아동 영화촬영소	평양시 중구역 승리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유일의 아동영화 창작소</li> <li>영화 작가, 촬영, 작곡, 녹음기사 등 대규모 제작진 소속</li> <li>외국 만화영화 제작 하청을 받기도 함</li> </ul>
조선기록과학 영화촬영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동신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일성 가계의 기록영화, 시보영화, 주요 행사 등의 영화를 제작</li> <li>현재는 기록영화와 과학영화를 촬영</li> </ul>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	평양시 낙랑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로 군사전쟁 영화 제작</li> <li>유일사상 무장과 북한군의 공적을 찬양하는 영화 제작 목적</li> </ul>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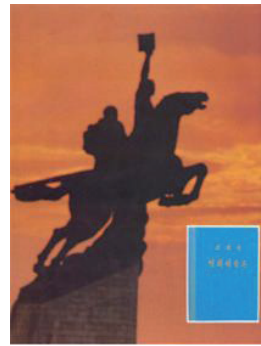
### 북한의 영화 기술자 양성

영화 기술자 양성을 위한 핵심 전문 교육기관은 평양연극영화대학이다. 평양연극영화대학은 영화배우뿐 아니라 영화 분야의 전문 인력과 기술자도 양성한다. 평양연극영화대학은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이 있다. 학부는 창작 부문이나 전문 실무 인력을 양성하는 영화창작학부, 배우, 방송원을 양성하는 영화배우학부, 영화부문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영화기술학부, 기초교육학부가 있다. 부대시설로 녹음실, 영화편집실, 필름현상실, 표준영사실, 무대실기장, 방송실기장, 녹화실, 음악실, 미술실기실, 사진 촬영장 등이 있어 실제 영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영화는 당의 정책과 방향을 알리고 대중들을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 만드는 강력한 수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화의 방향성과 시나리오, 촬영 및 편집 등 제작에서 보급에 이르는 과정까지 제한되는 것들이 많으며, 당의 엄격한 검열 아래 현시대의 당이 요구하는 정책이 반영된 영화만 제작될 수 있다.

**김정일의 '영화예술론'** | 『영화예술론』이란 1973년 김정일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저술한 영화 이론서다. 즉 북한 영화 창작의 이론과 창작의 절대 교과서이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영화예술론』은 영화문학으로부터 연출, 연기, 창작지도에 이르기까지 전체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과 문학', '영화와 연출', '성격과 배우', '영상과 촬영', '화면과 미술', '장면과 음악', '예술과 창작', '창작과 지도' 등으로 내용과 실무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다.



**영화의 상영** | 북한에도 영화관이 존재한다. 평양에는 8개, 청진, 신의주 등 주요 도시에는 3~4개, 지방에는 1개 정도의 영화관이 있다. 영화관 규모는 보통 500석 정도이며, 북한의 유명한 영화관은 국제영화회관, 대동문영화관, 개선영화관 등이 있다.<sup>16</sup> 1988년 설립된 국제영화회관에서는 2002년 남한 영화 '아리랑'의 시사회가 열리기도 했다.

영화관 외에도 시·군 문화회관, 소년회관 등에서도 영화를 상영한다. 지방이나 오지에서는 간이영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동영사대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북한은 최근 3D 영화관인 입체울동 영화관을 건설하고 있는데, 능라우원지의 입체울동영화관을 예로 들 수 있다.

### 더 생각해보기

북한의 영화는  
우리나라의 영화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영화의 종류** | 북한의 영화는 유형에 따라 예술영화, 기록영화, 과학영화, 아동영화로 구분한다.

영화의 종류	내용	사진
예술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과 그 생활을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반영하는 영화</li> <li>• 예술, 오락성보다 교양과 선전선동을 위한 주제성이 강함</li> <li>• 대표작품 : &lt;민족과 운명&gt;(다부작 예술영화)</li> </ul>	
기록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적 사실을 영상으로 기록한 영화</li> <li>•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행적을 그림</li> <li>• 대표작품 : &lt;백두산&gt;, &lt;사계절 아름다운 나라&gt;</li> </ul>	
과학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 지식의 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만들어짐</li> <li>• 농업, 출산, 위생, 과학, 경제, 문화에 대해 인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알려줌</li> <li>• 대표작품 : &lt;흥미있는 유전자 공학&gt;, &lt;늦벌레가 죽인 기생벌&gt;</li> </ul>	
아동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을 대상으로 만든 영화</li> <li>• 의인화된 캐릭터 및 만화적 기법 사용</li> <li>•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음</li> </ul>	

\*사진출처: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 북한영화 개요

**더 알아보기**

**김정일과 영화**

북한의 2대 지도자였던 김정일은 생전에 '영화광'이라고 불릴 만큼 영화를 좋아하며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김정일 개인 소유의 '국가영화문헌고'에는 3만여 편의 영화와 15000편의 영화 스틸이 보관되어 있다. 김정일은 영화 감상뿐 아니라 제작에도 관심이 많아 <꽃피는 마을>, <꽃파는 처녀>, <한 여학생의 일기> 등의 영화도 직접 제작하였다.<sup>17</sup> 이러한 김정일의 영화에 대한 집착은 급기야 남한의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배우를 납치하는 사건까지 이어진다. 김정일은 이들이 북한을 탈출하기 전까지 8년 동안 특별대우를 하며 북한 영화를 제작, 감독하도록 했다.

# 음악단

🔍 **연관어** 연예인, 가요

북한은 음악을 당과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즉 음악은 지도자의 우상화와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정치 선동 수단인데, 음악단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당국의 엄격한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다.

**국가 주도의 음악단 선발 및 운영** | 북한의 음악단은 국가에 의해 조직되고 단원이 선발되며, 앞으로의 행보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12년 초 김정은은 모란봉악단이라는 이름을 직접 짓고 악단 조직을 지시했는데, 북한 최고의 예술가들을 모란봉악단 단원으로 선발한 후, 공개 직전까지 수 차례 시연회를 가졌다고 한다. 또한 북한 당국이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뮤직비디오처럼 편집해 공개하고 정기적인 연주회를 열었다. 김정은은 당 창건일 열린 3개 음악회 중 모란봉악단의 공연에만 참석하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 북한의 대표 음악단

음악단	활동 시기	특징
보천보전자악단	김정일 시대	전자음악을 북한식으로 발전 전자악기를 중심, 경우에 따라 피아노 등 서양악기와 쎹과리 등의 전통악기를 적절히 혼용 전혜영의 <휘파람>, 리경숙의 <반갑습니다>
은하수관현악단	김정일 시대 말기 ~ 김정은 시대 초반	2009년에 창설, 2012년까지 매년 신년음악회나 명절 음악회를 주도함 클래식, 대중음악, 민요까지 거의 모든 장르를 공연 2012년 3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동 공연
모란봉악단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표 걸그룹 기존 보천보전자악단을 개편 화려한 조명, 세련된 의상, 여성 보컬과 퍼포먼스 활용 등 기존의 공연과는 차별화된 모습으로 인기

### 더 알아보기

#### 남북의 대중 음악 교류 : 삼지연관현악단

삼지연관현악단은 2009년 김정은이 현송월을 단장으로 하여 창단하였다. 모란봉악단, 삼지연악단, 청봉악단 등 기존 예술단에서 선발된 연주자와 가수, 무용수로 구성되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한을 방문한 삼지연관현악단은 <반갑습니다>와 같은 북한 가요와 이선희의 <에게>, 설운도의 <다함께 차차차> 등 남한의 가요도 무대에서 선보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삼지연관현악단

# 인민대학습당

연관어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인민대학습당은 북한 내 도서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서관 기능 외에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종합적인 학습터'로 불리기도 한다.



**연혁과 시설** | 인민대학습당은 1945년 평양시립도서관으로 처음 개관하였다. 현재 건물은 총 건축면적 10만㎡에 한식 10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6000여석의 좌석을 가진 열람실과 강의실, 다수의 통보실, 문답실, 음악감상실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강의실과 통보실에는 녹음기, 녹화기, 텔레비전, 영사기, 환등기 등 현대적인 교육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다.

인민대학습당 이름의 변천과정

연도	1945년	1946년	1973년	1982년
이름	평양시립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인민대학습당

**프로그램 내용 및 도서관 운영** | 프로그램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외국어 강의 등이며 강의 내용은 매달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을 통해 방송된다. 또한 최근에는 컴퓨터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재교육 및 활용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인민대학습당의 개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주말에도 개방하며 휴관은 매달 격주로 일요일에 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 북한 도서관의 현황

해방 전 남한에 비해 도서관 수가 현격히 적었던 북한은 도서관에 대한 김일성의 관심과 함께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김일성은 6.25전쟁 이후 복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도의 소재지와 주요 도시들에 도서관 설립을 직접 지시하였다. 북한의 도서관은 크게 군중도서관과 학술기관의 성격을 지닌 과학도서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군중도서관은 다시 성인 도서관과 학생 도서관으로 나뉜다. 이들은 각 시, 군, 구역 등에 위치하며 도서관의 열람이나 학습 등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함경남도의 과학기술도서관과 같이 지방에서도 교육과 학술적 성격을 띤 도서관들도 운영되고 있다. 남한의 청소년들은 학교 및 도서관 뿐만 아니라 스터디 카페, 일반 카페에서 책을 보거나 학습을 하지만 북한의 학생들은 학교 및 도서관을 주로 활용한다.

# 종교

🔍 **연관어** 북한인권

북한은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해 종교를 아편 혹은 미신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반종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종교 변천사** | 1950년대 북한에서는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 활동이 금지되었고, 1960년대에 이르러 종교 자체가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1970년 이후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대외적으로 북한에도 종교 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유명무실한 단체에 불과했던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의 활동을 재개시켰다. 1990년대 식량난이 극심해지자 북한은 구호물자 지원을 받기 위해 서방국가 및 남한의 종교단체들과의 접촉 및 교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북한 종교의 실상** |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68조에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종교를 억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북한의 종교인 양성** | 북한에도 종교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있다. 1989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종교학부를 개설했으며, 2000년 평양신학원을 개원하여 종교단체에서 활동할 목회자 양성교육을 하고 있다. 2003년 3월에는 러시아 정교회 종사자 양성을 위해 모스크바신학교에 유학생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종교를 기반으로 한 대외활동 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더 알아보기

### 북한의 승려<sup>18</sup>

북한 승려들은 불교 문화재를 보호하고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주로 맡는다. 이들은 조선불교도연맹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으로 양복을 입고 출퇴근하며 사찰에서만 승복을 입는다. 우리나라 승려와 달리 두발규정이 자유로워 머리를 기르고 곁혼도 한다. 북한의 승려 양성교육은 중앙당 통일선전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불교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 종교학과 출신이 승려의 직업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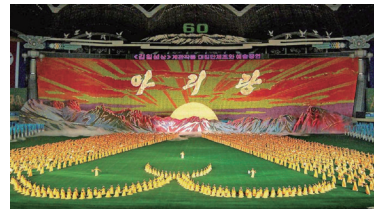
# 집단체조

🔍 **연관어** 집단주의, 북한인권

북한의 집단체조란 각종 경축 행사에서 수많은 군중을 동원하는 매스게임이다. 평양의 능라도경기장(5월1일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집단체조는 수 만명의 학생들이 약6개월간 밤낮으로 연습과 공연에 동원되어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집단체조의 목적** | 집단체조는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과 체제의 결속력을 다지고, 집단주의 정신을 키우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선군정치와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외화벌이를 하는 목적도 있다.

**집단체조의 발전과 <아리랑>** | 2000년대부터 집단체조는 새로운 형식과 조명기술을 도입하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출연시키는 등 점차 확대되었다. 가장 잘 알려진 집단체조는 2002년에 시작된 <아리랑>으로, 2013년까지 9차례를 공연하였다. <아리랑>은 음악, 카드섹션, 군무, 체조, 연극, 무대미술 등 다양한 예술 장르들이 융합된 대규모 종합공연예술로 공식 명칭으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2007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으로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 집단체조는 개편 등을 이유로 5년 동안 잠정 중단되었다가 2018년부터 재개하였다. 이후 2018년 <빛나는 조국>, 2019년 <인민의 나라>, 2020년 <위대한 향도> 등이 진행되었다.



아리랑 집단체조 공연

## 더 알아보기

### 외화벌이 수단으로서 집단체조

북한이 사회주의 종합예술로 자랑하는 집단체조는 북한의 대표 여행상품이다. 북한 관광 여행사 홈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 일정에 집단체조를 필수 코스로 포함시키는데, 이는 북한이 집단체조를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체조 공연 좌석은 총 4등급으로 구분되는데, VIP석이 910달러, 1등석이 570달러, 2등석이 340달러, 3등석이 110달러 정도이다. 이러한 관람비용을 사전에 지불하지 않는다면 여행에 필요한 필수 문서인 여행사증 신청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집단체조 공연 관람은 의무임을 알 수 있다.<sup>19</sup>

**북한에서 패션의 의미** | 북한에서의 패션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생각과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김정일 시기에 “옷차림과 몸단장은 사람들의 사상 정신 상태와 문화생활 수준의 반영입니다.”라고 한 것처럼, 북한 사람들의 옷차림과 몸단장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주로 단체복 문화에 익숙하지만, 최근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성이 강조되는 패션이 등장하고 있다.



평양의 시민들 복장

## 북한의 시대별 패션 유행

시대	패션 특징
~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급품이 아닌 옷을 구하기 쉽지 않았음</li> <li>- 주로 배급받은 옷을 착용하여 모두가 비슷한 차림새</li> <li>-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여성들은 집에서 스스로 옷을 제작함. 하지만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범위 안에서만 개성을 드러낼 수 있었음</li> <li>- 출근 복장 : 정장 및 한복, 여성의 경우 화려하지 않은 투피스 정장</li> </ul>
200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당국의 의류 공급 차질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li> <li>- 중국과 한국 등에서 외부 의류의 유입</li> <li>- 패션에 관심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옷차림에 큰 변화가 생김</li> <li>- 꽃무늬, 원색을 이용한 화려하고 다양한 패션을 추구</li> <li>- 무릎이 드러나는 짧은 치마 착용</li> </ul>
김정은 집권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려한 무늬의 의복, 화려한 장신구, 허리선이 들어간 블라우스, 하이힐 착용</li> <li>- 리얼주의 등장으로 유행 가속화</li> <li>- 여성의 바지 착용 허용</li> <li>- 브랜드 가방의 모조품 시장에 등장</li> </ul>

### 더 알아보기

#### 북한 남자들이 입는 인민복

북한에서 남자들은 흔히 '인민복'이라고 부르는 옷을 입는데, 이는 얼핏 보기에 모두 비슷해 보이나 일반형과 보급형, 고급형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입는 것은 국방색이나 황토색 인민복으로, 활동하기에 매우 편해서 인기가 좋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역시 인민복을 입는데, 착용하는 인민복은 지도자마다 다르다. 김일성은 단추가 달린 인민복을 즐겨 입고, 윗단추까지 채워 입었다. 김정일은 단추 대신 편리한 지퍼가 달린 카키색 인민복을 입었다. 김정은은 많은 색상과 줄무늬, 고급 소재를 사용하면서 디자인을 다채롭게 살려 입고 있다. 특히 주머니 디자인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제작하는 등 변화를 주고 있다.<sup>20</sup>



카키색 복장의 김정일(오른쪽)



북한 주민들도 피부 미용과 외모에 관심이 높아 화장품의 활발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화장품 산업** |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 인민 생활 향상을 강조하며 주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공업 분야 투자를 늘리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평양화장품공장에 방문하여 북한 화장품의 질을 해외 명품 브랜드 수준까지 높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은 화장품 산업에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수출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 북한 화장품의 유의미한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의 4대 인기 화장품** | 스킨을 ‘살결물’로, 로션을 ‘물크림’으로, 파우더를 ‘분가루’로 부르는 등 제품 제형의 특징을 살려 외래어가 아닌 순우리말을 주로 사용한다. 북한의 인기있는 화장품 브랜드로는 봄향기, 은하수, 금강산, 미래가 있다.

봄향기	은하수	금강산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li> <li>- 개성 고려인삼을 주원료로 생산됨</li> <li>-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봄향기와 경쟁 구도</li> <li>- 최신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음</li> <li>-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상표출원 시스템에 등록, 접수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산합작회사의 브랜드</li> <li>- 노화 방지와 주름살 제거 등의 기능성 화장품 주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생브랜드</li> <li>- 기능성화장품과 색조화장품을 생산함</li> <li>- 파격적인 색채 및 고급이미지를 강조한 디자인으로 주목받음</li> </ul>

## 더 알아보기

### 북한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은 미국, 유럽의 화장품보다 인기가 높다. 장마당에서도 한국 화장품의 거래는 빈번히 이루어진다. 특히 리설주를 비롯한 북한 고위층 여성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를 애용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산 화장품은 고위층 접대용이나 혼수품으로도 사용되는 등 고급 선물의 역할로도 쓰이고 있다.<sup>21</sup>



---

## 출처

### [단행본 및 논문]

국립통일교육원, 『남북관계지식사전』 (2015)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 협력』 (2017)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22)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1)  
국립통일교육원, 『패션&메이크업으로 본 북한 사회』 (2020)  
권영결 외, 『꼭 알아야 할 통일 북한 110가지』 (서울:평화문제연구소, 2011)  
김행심, 『남북한 어린이 민속놀이의 변화와 지속』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4)  
노재현, 『北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개막』 (2011.08.)  
『두산백과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블로그 및 홈페이지, 기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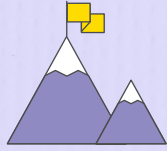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디지털기록관 홈페이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2022.9.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블로그, 『북한의 라면』 (2020.7.15.)  
배달 앱 '옥류', KB금융그룹 블로그 (2020.02.10.)  
북한지역정보넷  
국립통일교육원, 자료마당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일부 공식 블로그, 『북한에서 배우가 되려면?』  
통일부 공식 블로그, 『북한 화장품의 모든 것』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북한영화 개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북한영화 최근 동향』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옥류관』  
통일연구원, 『북한의 게임산업 동향』  
한국교육개발원 인터넷통일학교 홈페이지

### [미주]

- 1 KBS WORLD, 『북한의 대중음악』 (2022.03.02.)
- 2 BBC News, 『북한에서 인기 있는 한국 가요 TOP3』 (2018.04.09.)
- 3 nk조선, 『북한어린이들은 어떤 간식을 먹을까요?』 (2013)
- 4 미디어펜, 『개성공단에 초코파이 라면 사라지자 무엇 등장?』 (2015.6.9.)
- 5 KBS WORLD, 한반도 A to Z, 『북한의 게임문화』 (2019.10.17.)
- 6 배다숨, 『북한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놀이 뭘까?』 (굿모닝 충청) (2015.02.16.)
- 7 한반도N 북한이 반려동물 문화는 어떨까? (2022.08.04.)
- 8 이지운, 『동아일보 남북 합작으로 대박난 '뽀로로'...북한 아이들도 볼까?』 동아일보 (2018.05.16.)
- 9 연합뉴스, 북한 인기 TV 만화영화 '소년장수' 작가 "시청자 반응에 보람" (2020.02.17.)
- 10 오마이뉴스, 『2024년, 남북태권도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돼야』 (2021.07.06.)
- 11 송혜민, 북한 첫 대동강 맥주축제 '후기' 들어보니... '치맥' 인기 (2016.08.15.)
- 12 KBS 한반도 A to Z, 『북한의 연예인』 (2020.05.28.)

- 
- 13 연합뉴스, 북한 음악계 '새 얼굴' 등장…리설주 명성 이을까 (2022.08.01.)
  - 14 KBS 한반도 A to Z, 클로즈업 북한, 「북한의 외식」 (2019.07.11.)
  - 15 자유아시아방송 「북한경제, 어제와 오늘」 여가와 외식 (2019.04.30.)
  - 16 KBS WORLD, 「북한의 영화 한반도 리포트」 (2022.06.01.)
  - 17 강주일, 「생전에 영화광으로 불린 김정일」 (2011.12.19.)
  - 18 서울신문, 「북한 스님은 양복 입고 출퇴근하는 '직장인」 (2017.05.04.)
  - 19 오택성 북, 집단체조 공연 재개…“북한 관광 외국인, 공연 관람 '의무'”, VOA뉴스 (2019.06.25.)
  - 20 KBS 한반도 A to Z, 「북한의 단체복 문화」 (2021.09.30.)
  - 21 신동아북한, 한국 화장품에 폭 빠진 평양 여인들… 상표 지우고 장마당서 버젓이 팔아 (2019.01.30.)





**PART 5**



**북한 지리·지역**



# 강과 산

연관어 행정구역, 금강산 관광

북한의 지형은 남한과 같이 동쪽 지형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의 형태를 보인다.

**북한의 강** | 북한의 대표적인 강은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청천강, 예성강, 하류 끝자락에서 한강과 만나는 임진강 등이 있다. 대동강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의 중심부를 지나는 큰 강이다. 옛 설화에 등장하는 봉이 김선달이 팔았던 강물로 유명한 대동강은, 예로부터 우물이 없어 강물을 길어서 생활해 온 평양의 중요한 강이었다. 대동강 위의 섬인 능라도는 여의도에 반 정도 면적이지만 5.1경기장 등의 시설이 있다. 한편 압록강은 북한에서 가장 긴 강으로 중국과의 국경을 이루고 있으며, 두만강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을 이루고 있다.



**북한의 산** | 북한은 남한에 비해 높은 산이 많이 분포해있다. 백두산은 화산분출로 인해 생겨난 산으로, 산꼭대기가 늘 하얗게 보여 유래한 이름이다. 중앙 화구에는 눈과 비가 모여 큰 호수인 천지를 형성하였다.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위치하여 일부는 중국의 영토에 해당한다. 금강산은 바위 벼랑이 금강석으로 만든 것처럼 아름답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1998년부터 10년간 남북 합의에 의해 대한민국의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묘향산은 향나무들이 많은 산으로, 교통이 좋고 평양과 가까워 북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구월산은 삼성사, 단군대 등 단군과 관련된 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단군과 관련한 전설이 전해진다.

## 더 알아보기

### ‘백두혈통’이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은 한민족의 역사에서 신성한 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북한 정권에서는 백두산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일가를 관련지어 신성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벌였던 활동 거점이 백두산이었으며, 김정일 또한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역시 백두혈통을 강조하여 정권을 정당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2019년 10월에는 북한에서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김정은이 백두산에 오르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였다.<sup>2</sup>

북한은 국토의 약 80%가 산악지역으로서 광물자원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북한 광물자원의 가치** | 남한에 비해 광물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으며, 마그네사이트, 석탄을 비롯한 20여종의 광물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 가치는 약 2천조원~8천조원 정도로 평가된다.

**북한의 주요 광산과 광물자원 분포** | 현재 북한의 광산은 총 112개로 알려져 있다. 함경북도 무산 광산은 아시아 최대의 철광산이자 노천광산으로서 발견 당시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최근에는 이곳의 제철소를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금속 광산 중 특히 단천의 대홍광산은 마그네사이트 노천광으로, 30억톤 가량에 해당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마그네사이트는 원자로나 로켓 분사구에서도 활용되는 광물로서, 남한에서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북한의 석탄광산은 평안도, 함경도에 분포하며, 특히 함경북도는 추정 매장량 30억톤, 채굴할 수 있는 매장량 13억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주요광물 매장량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연	철광석	석탄	니켈	금
한반도 내 북한 매장량	100%	98.5%	94.9%	94.8%	89.0%	84.7%	66.7%
북한매장량	6.6백만톤	1000억톤	2.9만톤	30억톤	127.4억톤	20만톤	1천톤

더 알아보기

중국에 의한 북한 광물자원 개발

중국은 북한의 석탄,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등의 광물자원을 많이 수입하고 있고,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계도 원활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해 광물자원 개발에 적극적이다. 한편 북한은 낮은 기술력으로 인해 광물자원의 개발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은 대부분 중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의 일부 광산은 투자계약을 통해 그 개발권을 중국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생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광산은 지도와 같이 총 6개에 해당한다.<sup>1</sup>



# 금강산관광

연관어

비무장지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금강산관광은 남한 기업인 현대아산과 북한 노동당 산하 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합의로 이루어진 북한 관광 사업이다. 금강산 관광은 상징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평가되었지만, 2008년 7월 남한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중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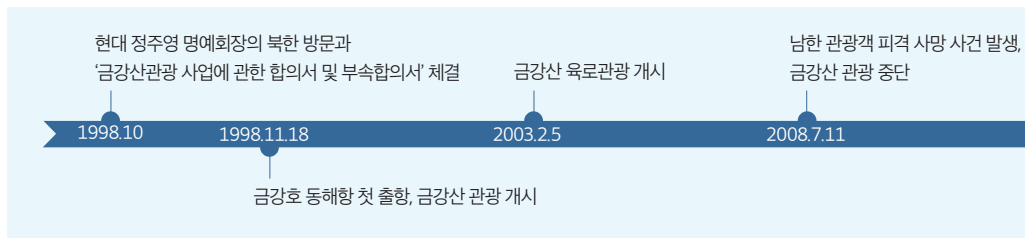
**금강산관광의 전개** | 금강산관광을 위한 논의는 1989년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문하면서 시작되었고, 1998년 11월 18일 첫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관광선 금강호가 동해항을 출발하여 금강산 근처에 있는 북한의 장전항에 입항하는 방식으로, 여객선만을 통해 가능하였다. 이후 국가에서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면서 2003년 2월부터는 육로로도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개인의 자동차로도 금강산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관광이 시작된 지 8년 만인 2008년에는 금강산 관광객 수가 약 200만 명까지 이르게 되었다.

연도별 금강산 관광객 추이

(단위: 만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7
연도별	1	15	21	6	9	7	27	30	24	35	19
누적	1	16	37	43	52	59	86	116	141	176	196

**금강산관광의 중단** | 2008년 7월 11일 우리나라 관광객이 금강산관광을 하던 중 북한 군인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잠정 중단하고 북한과 협의 과정에서 진상 규명, 재발 방지, 신변 안전 보장의 3대 조건이 갖추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





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0월 23일 북한 지도부는 금강산의 남한 시설을 철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최근에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금강산의 남한 시설 철거 정황이 포착되기도 하였다.<sup>3</sup>

### 더 생각해보기

남북한의 관광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북한의 관광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남북한의 관광교류** | 금강산관광 외에도 남북한은 다양한 관광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한 바 있다. 2005년 7월 16일 현대아산과 북한이 백두산 및 개성관광에 합의하면서 개성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2005년 8월에서 9월까지 현대아산이 주도하여 실시한 개성 관광은 2007년 12월 5일에 개시되었으며 1년 만에 1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2007년 11월 3일에는 개성관광의 성공에 힘입어 현대아산과 북한은 2009년 5월부터 육로 백두산관광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2008년 11월 28일 개성관광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백두산 육로 관광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 더 알아보기

### 남한에 알려지지 않은 북한 관광지

강원도 원산시 인근에는 김정일의 지시로 건설된 마식령 스키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10개의 슬로프, 제설기,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200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마식령 호텔이 갖추어져 있다.<sup>4</sup>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한편 평안남도 양덕군에 위치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2020년에 개장된 북한의 대표 관광지로 실내외에 온천장을 갖추고 있으며 모래욕치료나 물리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봉사도 받을 수 있게 조성되었다.<sup>5</sup> 양강도의 북동부에 위치한 삼지연시는 백두산의 용암대지에 위치한 지방도시로서 1980년부터 자연보호구로 설정되었으며 다양한 휴양시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북한에서는 최근 김정일의 생일을 기념하는 80회 광명성절 기념행사를 이곳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sup>6</sup>



2010.2

금강산관광 재개 당국 회담 결렬

2018.9.19

남북정상회담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합의

2019.10.23

김정은, 금강산 남한시설 철거 지시

## 주요 도시

연관어 행정구역

북한은 도시와 농촌의 지역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백만명 이상의 도시는 평양이 유일하며 내륙 도시는 규모가 작고 성장도 정체되어 있다.

**평양시와 특별시** | 북한의 수도인 평양시는 서울보다 면적이 넓으나, 도시의 인구를 300만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어 수도인데도 인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북한은 평양을 이상적인 사회주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거리들을 조성하고 고층 아파트들을 건설하였다. 남포특별시는 평양의 서부에 위치한 북한 최대의 항구도시로, 대동강을 이용한 운송이 발달하였다. 나선특별시는 나진과 선봉의 두 지역을 합한 명칭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로 나진항 개발이 이루어진 바 있다. 개성특별시는 고려의 옛 수도로 문화유적이 많고, 남한과 가장 가까운 대도시이며 6.25전쟁 전에는 우리나라의 경기도 관할에 속해 있었다.



북한의 기타 주요 도시

도시 명칭	주요 기능
함흥시	천리마 시대를 상징하는 북한 최대의 중화학 공업도시
청진시	대학, 연구기관, 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문학교가 있는 항구문화도시
신의주시	국제열차의 통과지점인 신의주 청년역이 있는 교통의 중심 도시
평성시	평양 주변 공업시설의 필요에 따라 새로 건설된 위성도시

**북한에서의 도시 기능** | 북한에서도 도시는 도서관 및 영화관, 상업 시설을 갖춘 지역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며,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외부 문화와의 접촉이 많은 큰 도시의 경우, 점차 개인주의화·시장화 되어가고 있다.

### 더 알아보기

#### 북한에서 평양의 위상

북한에서 가장 권력에 가까운 핵심 계층이 모여 사는 평양은 특별 관리의 대상이다. 성분이 나쁘거나 장애인은 거주할 수 없으며, 평양에 사는 사람이라도 불순세력으로 판명되면 전 가족이 지방으로 추방된다. 평양 시민들에게는 평양 시민증을 따로 발급하여, 지방 주민들이 허가 없이 평양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평양시민들은 국가기념일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퍼레이드나 열병식 등에 강제로 동원되기도 한다.

# 평양거리

연관어

학생소년궁전, 김일성종합대학, 행정구역, 주요도시

북한에서는 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의 축으로서 '거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따라서, 평양의 거리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며, 거리의 끝점마다 중요한 공공건물이나 고층 아파트 등이 자리하고 있다.



## 평양시의 주요 거리

명칭	주요 특징
광복거리	김일성의 조국광복을 기념하며 1980-1990년대에 걸쳐 조성한 대규모 신시가지로, 전 구간이 왕복 10차선의 직선도로로 건설되었으며, 평양시의 여러 주요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과학자를 우대한다는 인식을 알리고자 2015년에 조성한 거리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의 거주 공간, 4D 영화관, 상업 시설, 초고층 건물을 갖추고 있다.
여명거리	2017년에 완공된 '제2의 미래과학자거리'로, 태양빛·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절약 기술을 도입한 에너지 절약형·녹색형 거리이다.

**평양 거리 개발 계획** | 김정은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신축 주택 대거 공급 등 평양시 내의 주거난 해결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3월에는 평양에 1년 내 1만 세대, 5년 안에 5만 세대를 새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sup>7</sup> 이러한 초고속 평양 주택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간부들로 구성된 조를 편성하여, 조별로 건설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sup>8</sup>

### 더 알아보기

### 서울과 평양의 비교

서울과 평양은 6.25전쟁 이후 전후 복구 및 도시 재건 과정을 거치면서 각 정치적·경제적 목적에 맞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도시 구조를 형성하였다.

	서울특별시	평양시(평양직할시)
면적	605.21km <sup>2</sup>	2,630km <sup>2</sup>
인구 수	약 972만명	약 325만명
역사적 의미	백제, 조선의 수도	고조선, 고구려, 고려의 수도

# 행정구역

연관어 주요 도시, 강과 산

북한의 행정구역은 크게 1개의 평양직할시, 3개의 특별시, 그리고 9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로, ‘직할시’ 및 ‘특별시’라는 명칭은 행정적인 분류를 위해 사용하며 북한 내부에서는 ‘평양시’ 및 ‘개성시’ 등이 공식 명칭으로 사용된다. 특별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성된 시로서, 나선특별시, 남포특별시, 개성특별시가 있다. 그리고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의 9개 도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 행정구역의 분포** | 북한의 하위 행정단위는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45년 8월 15일 이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북한의 행정구역은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이북5도와 미수북 경기도, 미수북 강원도에 해당한다.



북한 하위 행정구역의 분포

	시	군	구역	읍	동	리	노동자구
계	25	146	41	146	1,191	2,956	298
평양직할시		2	18	2	290	80	12
나선특별시				2		35	
남포특별시		2	5	2	76	50	7
개성특별시	1		2		31	33	
평안남도	5	15		15	124	302	38
평안북도	3	22		22	87	423	44
함경남도	3	16	7	16	165	426	34
함경북도	3	12	7	12	140	242	51
황해남도	1	19		19	28	417	18
황해북도	2	18		18	51	328	16

	시	군	구역	읍	동	리	노동자구
강원도	2	15		15	61	321	10
자강도	3	15		15	70	205	25
양강도	2	10		10	33	129	43

**북한 행정구역의 특징** | 시, 군, 읍, 동 등의 분류를 활용한다는 점은 남북한이 동일하나, ‘특별시’, ‘직할시’ 등의 명칭과 그 의미를 다르게 쓴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 남한에서 사용하는 ‘구’ 대신 북한에서는 ‘구역’이라는 명칭을 활용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남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노동자구’의 분류를 활용한다. ‘노동자구’는 노동자들을 보다 쉽게, 집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주민의 400명 이상이 성인이고 그들의 65% 이상이 노동자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로 공업단지, 광산지역, 어촌 등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더 생각해보기**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개편하면 좋을까요?

**더 알아보기**      **북한의 특수경제지대(경제개발구)**

북한에서는 경제적 발전을 위해 행정구역과 별도로 특수경제지대를 지정하였다. 특수경제지대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재산권의 보호를 제공하며, 토지를 50년간 빌려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관세를 없애주고, 해외로 돈을 보내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개발구를 현재까지 23개로 확장하여, 전국 각지의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개발구는 다음과 같다.

- 황금평위화도경제무역지대**  
정보산업, 경공업, 관광업
-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관광휴양, 대외무역
- 진도수출가공구**  
기계, 전기, 전자, 경공업
- 강령국제녹색시범구**  
녹색산업기술연구개발
- 나선경제무역지대**  
중계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 서비스 등 4개 분야
-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휴양, 치료관광
- 금강산국제관광특구**  
해양관광, 녹색산업
-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정보기술, 나노 및 신소재, 생명공학연구개발

**[단행본 및 논문]**

- 국립통일교육원, 『걸어서 북한 속으로』 (2020)  
국립통일교육원, 『남북관계지식사전』 (2015)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도시로 읽다』 (2016)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22)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1)  
이경숙, 『북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연구』 (2009)  
이수현·변기동,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서울과 평양의 도시구조 분석』 (2019)  
이우영, 『평양의 도시문화』 (2013)  
통일연구원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2008)  
통일연구원,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2005)  
통일연구원, 『북한 광물자원 개발의 필요성과 경제성 평가』 (200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이북5도에 관한 법규집』 (2020)

**[블로그 및 홈페이지, 기타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북한지역정보넷  
북한지하자원넷  
통계청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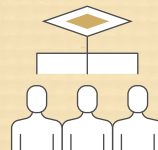
- 1 아주경제, 『중, 북한 광산 싹쓸이?』 (2018.6.24.)
- 2 nk조선, 『北, '백두산 백마 김정은' 이틀째 칭송...ICBM 시험 재개 임박했다』 (2019.10.18.)
- 3 연합뉴스, 『금강산관광 관련 주요 일지』 (2022.7.12.)
- 4 NK투데이, 『마식령 스키장은 어떤 곳인가』 (2018.1.31.)
- 5 연합뉴스, 『북한, 마식령스키장·양덕 온천 개장』 (2020.1.10.)
- 6 연합뉴스, 『천지개벽' 백두산 삼지연시 김정일 80회 생일 행사로 들썩』 (2022.2.16.)
- 7 연합뉴스, 『北, 김정은, 평양 송화거리 준공식 참석』 (2022.4.12.)
- 8 연합뉴스, 『초고속 평양 주택건설' 독려하는 북한』 (2021.5.21.)



**PART 6**



**북한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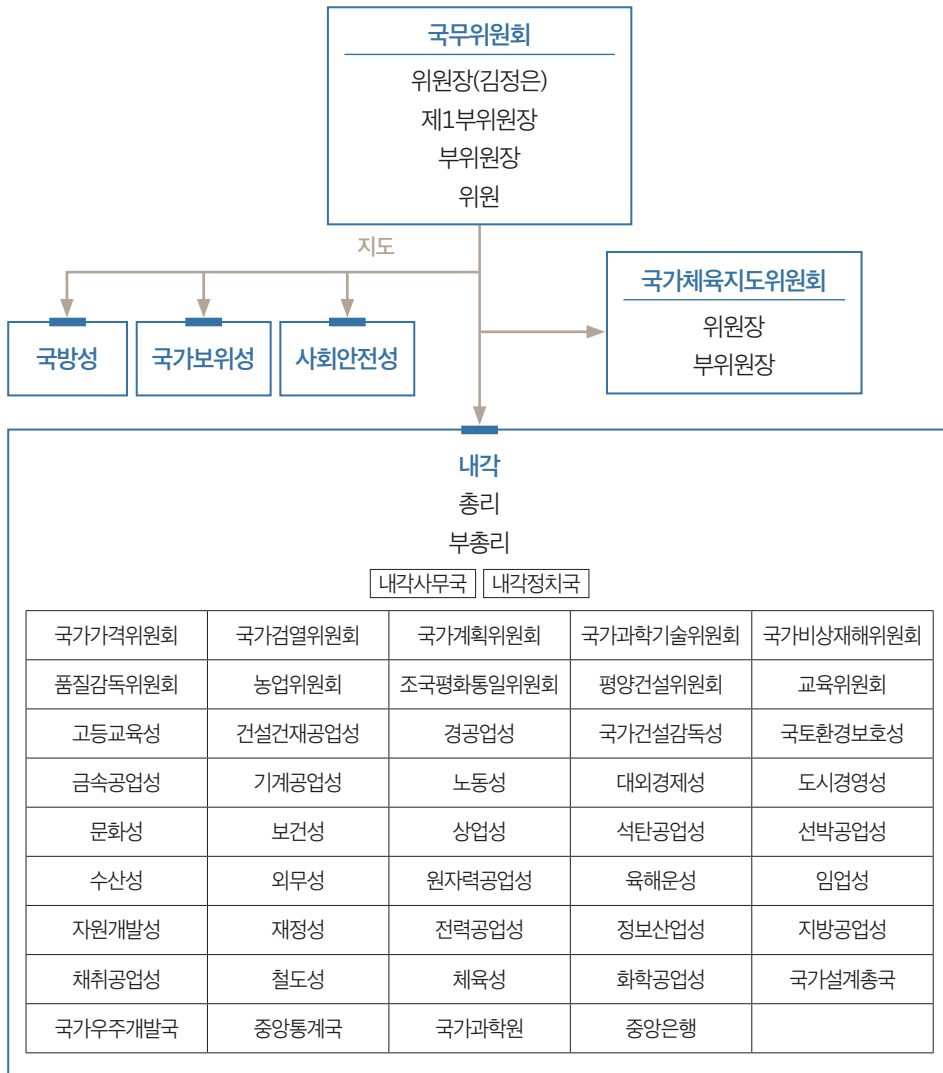
# 내각

연관어

일인지배체제, 조선노동당, 최고인민회의

내각은 국가 관리를 위한 행정 및 경제 사업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행정부에 해당한다.

**북한의 내각 조직도** | 북한의 국무위원회는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현재 위원장은 김정은이다.



**내각의 구성** | 북한은 일반적으로 노동당이 대부분의 사회 운영과 관련된 일을 안내하고 집행하지만 구체적인 나라의 정책은 내각에서 처리한다. 북한의 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 업무 처리 및 경제관련 일을 수행하고 있다.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우리나라 장관)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으로 구성된다. 총리의 경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내각에 소속된 모든 성원은 5년의 임기 동안 활동하게 된다. 총리는 내각 사업을 조직·지도하고 정부를 대표하며 전원회의를 열어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내각 간부들

**내각책임제** | 김정은은 권력 승계 직후인 2012년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을 상대로 내놓은 담화에서 “경제 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경제 분야에서의 내각책임제를 강조하였다.

**더 생각해보기**

북한과 우리나라의 내각은 왜 다른 모양을 띠고 있을까요?  
북한의 각종 권력 기관들이 국무위원회 직속으로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더 알아보기**

**행정부와 내각 비교**

	우리나라의 행정부	북한의 내각
공통점	국가 정책을 집행	
차이점	교육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의 명칭 사용	고등교육성, 보건성, 중앙통계국 등의 명칭 사용
	삼권분립에 의해 행정부가 독립적 힘을 가짐	노동당 중심으로 국가정책이 운영되고 내각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곳

전세계 약100여개 국가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의하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로 조사되었다. 최근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여 식량난이 악화되고, 이동의 자유를 엄격히 통제하는 등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 | 북한의 인권 상황은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사회 구조와 깊은 연관이 있다. 북한이 표방하는 공식 이념과 체제에서 벗어나는 사상이나 생각은 허용되지 않으며, 흔히 ‘토대’라고 일컫는 성분 제도에 의해 주민들은 공공연한 차별을 받고 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크게 자유권, 사회권, 취약 계층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권’ 침해의 사례는 법적 절차 없이 주민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거나 처형하는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해외여행이 금지되고 인터넷 등 외부의 정보나 콘텐츠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둘째, ‘사회권’ 침해의 사례는 식량·교육·주거·건강 등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침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열악한 의료체계’이다. 태풍과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반복되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어 주민 스스로 질병을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취약 계층의 사례는 아동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북한 아동의 경우 사회적 차원의 노동, 빈곤 등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북한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정치행사나 체제선전 활동에 자주 동원되고 있으며, 유니세프(2021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5세 미만 아동의 약18%가 발육 부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수도인 평양과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남포, 개성, 청진 등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 및 우리정부의 북한 인권 증진 노력** |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채택했으며, 2006년 6월 유엔 인권위원회

### 더 생각해보기

독일 통일은 동독 시민들의 자유를 향한 열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북한도 인권 상황이 개선되어 북한 주민 스스로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 어떤 방법들이 가능할까요?

를 확대 개편한 유엔 인권이사회(UNHRC)도 200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다. 또한, 유엔 총회도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회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2019년~2021년 제외).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북한 당국도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권을 중심으로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는데 2009년 북한 헌법 개정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제8조).”는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위에 두는 일명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외부 사회의 권고를 내정간섭이라고 규정하며 국제사회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2003년 이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작되어 2005년 이후에는 유엔총회 차원에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중심이 되어 유엔에 상정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내용이 작성되며, 북한 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붉은청년근위대

연관어

군입대,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사상교육, 조선소년단

만 14세에서 16세의 북한의 남녀학생들이 군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받는 학생군사조직을 붉은청년근위대라고 한다.

**붉은청년근위대 입단 과정** | 1970년 김일성의 지시 이후 (당시 고등중학교 4학년~6학년에 속하는) 모든 학생들이 붉은청년근위대에 소속되어 군사교육을 받아야 한다. 붉은청년근위대는 고급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소속되게 되는 준군사조직이다. 이러한 붉은청년근위대는 학교단위별로 중대 또는 대대로 구성되며 총인원은 무려 10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붉은청년근위대 행진

**붉은청년근위대의 역할** | 붉은청년근위대의 학생들은 연간 160시간의 교내훈련과 재학 중 한 번 정도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7일간의 야영훈련소 입영훈련과 비상소집훈련 등을 받는다. 병영훈련 시에는 실제로 일부학생들에게 소총 등을 지급하여 북한의 진정한 예비전력으로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할 때에는 후방지역을 방어하고 하급간부의 보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을 언제든지 대량 동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에서는 이들에게 군사훈련과 함께 사상교육도 하고 있어 평상시에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 더 알아보기

#### 정세긴장과 붉은청년근위대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이 매주 붉은청년근위대의 비상 소집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흥시의 경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붉은청년근위대의 소집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나를 전체를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정신을 강조하며 학생들 대상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sup>1</sup>

# 사상교육

연관어 고급중학교, 독보, 사회주의 도덕, 소학교 교과목, 초급중학교

사상교육이란 주민들에 대한 사상적 통제 방식을 일컫는다.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에 걸친 권력 세습을 해 오는 동안 매우 중요하게 실시되고 있다.

**교육단체에서의 사상교육** | 북한의 '전반제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에 따르면 북한의 의무교육은 사회의 구성원을 수령과 당에 충성하는 인간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사상 교과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 걸쳐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시기	방식 및 내용	
탁아소, 유치원	우상화교육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우상 심리를 갖도록 하며, 체제수호정신을 기르는 교육
		식사, 간식, 선물 등을 지도자가 베푸는 혜택임을 강조하며 감사함을 느끼도록 하는 교육
소학교, 중학교	정치사상 과목	일주일에 3~4시간에 걸쳐 김일성 일가의 어린 시절, 혁명 활동, 혁명 력사, 사회주의 도덕(과 법), 당 정책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여 체계적으로 교육
	타 교과목	국어, 역사, 지리와 같은 과목에서도 주체사상,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 사회주의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교과 외	아침 독보시간, 오후 방과 후 시간, 조직생활총화 시간의 사상이념 교육

**학교 외에서의 사상교육** | 북한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사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매주 1회 정치 사상학습, 매일 2회 강연회 참석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지도자와 체제에 맞게 변형되도록 교육하고 있다. '가정 혁명화'의 일환으로 가정에서도 정치사상교육이 이루어진다. 가정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충성의식, 계급의식 등이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 더 알아보기

### IT를 활용한 사상교육

최근 북한은 사상교육에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개발한 '총서 1.0'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고전적 노작들과 일화, 관련도서들을 집대성한 백과사전 성격의 전자도서열람프로그램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북한에서 개발한 교육용 판형컴퓨터(태블릿PC)에는 주체사상 학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한다.<sup>2</sup>



김일성-김정일 저작을 모아놓은 주체사상 교육 앱

#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연관어 붉은청년근위대, 사상교육, 소년단, 집단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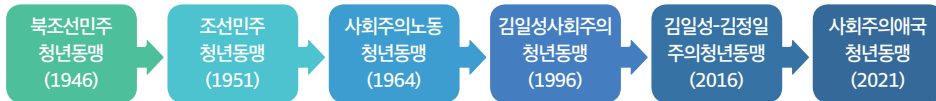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만14세부터 30세에 이르는 모든 청년 및 학생층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북한 최대의 청년근로단체이자 사회단체이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입단 과정** | 청년동맹 활동은 의무적 청소년단체 활동이지만, 절차상으로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청년동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초급단체인 학교의 점검 및 추천에 통과해야 하며, 이후 시(또는 군) 청년동맹위원회의 심의에서도 합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먼저 합격한 학생들이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다른 학생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경쟁을 만들고 청년동맹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자 하고 있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역할** | 청년동맹은 북한 당국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사상교육을 실시하는 조직이다. 학생들은 학교별 청년동맹에 소속되어 강연회, 학습회, 생활총화 등 사상교육을 받는다. 학생들은 청년동맹 단원임을 증명해주는 ‘맹원증’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 물에 젖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잘 싸서 지갑에 넣은 뒤 허리에 차고 다닌다고 한다. 이러한 철저한 사상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일반 대중의 사상교양을 주도하며, 당과 인민을 연결하는 ‘근로단체’로서 역할을 한다. 이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등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 나서는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 인원이 약 5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매우 조직화되어 있으며, 청년간부 양성의 중심이 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 더 알아보기

### 청년동맹의 명칭 변화



‘북조선민주청년동맹’에서 시작된 청년동맹은 1951년 ‘남조선민주청년동맹’과 합쳐지면서 ‘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다시 명칭이 변경되어 30년간 ‘사로청’으로 불려왔으나, 여러 번의 개칭을 거쳐 최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변경되었다.<sup>3</sup>

선군정치란 김정일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등장한 김정일의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군이 중심이 되는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 | 선군정치는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지속되는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1990년대 경제난과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안보 위협을 해결하고,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선군정치라는 용어는 1997년 12월 『로동신문』에서 등장한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 내 선군정치의 기능** |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국가기구를 이에 맞게 개편하였다. 국방위원회를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부상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선군정치 하에서 군은 당을 제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내적으로는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경제를 회복시키고, 군 조직을 통해 사회통제 기능을 보완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대외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한 군사 협정 과정에서 군대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 선군정치와 국방위원회

선군정치를 국가기구의 조직에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국방위원회이다. 기존에 중앙인민위원회의 산하 5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설치되었던 국방위원회는 김정일 집권기인 1990년대에 선군정치와 함께 점점 위상이 높아져 갔다. 국방위원장은 국가 통치권뿐 아니라 최고사령관, 인사권, 조약비준권, 특사권, 동원령 등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등 국방위원장 중심 정치체제가 김정일 시대에 완성되었다.

헌법 개정시기	국방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1972	- 중앙인민위원회 예하 위원회 - 중앙인민위원회의 국방 분야 임무 보좌
1992	- 국가 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 -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독립하며 확대, 개편
1998	- 국가 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 - 전반적 국방관리기관 -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국방위원회의 권한 대폭 강화
2009	- 국가 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 - 국방위원회가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부상 -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 및 국가 전반의 무력 지휘 통솔



## 인민재판(형벌제도)

연관어 재판소, 정치범수용소

북한도 재판에 의해 인민들이 형의 선고를 받는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이 지명한 참심원이 참여하는 재판부에 의해 인민재판이 이뤄진다. 인민재판은 공개된 장소에서 군중들을 모아 놓고 진행되기도 한다.

**북한 형벌제도의 특성** | 북한은 표면적으로 무법적인 인민재판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면서 죄형법정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에 북한의 형법에서는 형벌의 종류를 사형, 노동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동형 중 노동교화형은 남한의 징역형과 비슷하며 노동단련형은 남한의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유사한 형벌이다. 남한이 범죄자 격리에 중점을 두는 데 비해 북한은 범죄자의 노동력 제공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범죄를 노동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사회주의 질서를 침해한 범죄, 생명이나 재산을 침해한 강력 범죄 등에 대해서는 그 죄질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형벌

대한민국(남한)	북한
사형	
징역	노동교화형
-	노동단련형
-	선거권박탈형
벌금형	
몰수	재산몰수형
자격상실	자격박탈형
자격정지	

**최근 북한의 주요 사회 범죄** | 북한의 주요 사회적 범죄는 과거 주로 권력형 범죄였다. 권력형 범죄는 뇌물수수 등 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북한도 시장 경제가 사회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경제 범죄 등이 크게 늘고 있다. 경제 범죄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활동으로 절도죄, 밀수죄 등이 있다.

### 더 알아보기

#### 북한의 연좌제<sup>4</sup>

범죄자의 가족을 함께 처벌하는 것을 연좌제라고 한다. 북한의 형법에는 연좌제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에서는 정치범을 비롯해 사회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범죄자들에게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탈북자뿐만 아니라 남한 관련 콘텐츠를 보관하거나 시청한 사람들도 강력하게 처벌하면서 동거 가족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연좌제를 통해 공포를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한다.

# 일인지배체제

연관어 사상교육, 선거, 조선노동당

**북한의 최고지도자, 수령** |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수령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3대째 이어져오는 지위이다. 북한에서는 당, 군 등 국가의 주요 기관의 최고 직책을 수령 한 사람이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권력의 독점과 세습이 가능하다.

	남한	북한
최고지도자	대통령(선거에 의해 국민이 선출)	수령(세습에 의해 결정)
권력 분배	국회-법원-행정부로 3권 분립	당-군-국가체제 위의 구심점으로 수령이 군림

**사회주의 대가정** | 사회주의 대가정은 북한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어머니-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대가정에 따르면 수령이 은덕을 베풀면, 사회 구성원들은 수령을 향해 충성과 효성을 바쳐야 한다. 이것이 ‘아버지 수령’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충성동아’와 ‘효자동아’로 자라나야 한다는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상을 통해 북한에서는 수령의 권위를 확보하고 지배 권력을 강화하여 수령을 정점으로 사회를 하나로 묶고자 하였다.

## 더 알아보기

### 수령과 주석의 차이점

수령이 최고지도자에 대한 칭호라면, 주석은 정치 조직 내 특정 직위의 이름이다. 주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권한과 내각 수상 권한 중 중요한 권한 대부분을 지닌 직위이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신설되어, 김일성이 국가 주석직을 맡아왔다. 김일성의 사망 후 국가 주석직은 다른 사람이 맡지 않고 비워두었다. 이후 1998년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하였으며, 주석제를 폐지하였다. 김일성과 달리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의 직위를,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의 직위를 맡아왔다. 북한 정권에서 김일성이 유일하게 ‘주석’의 직위를 가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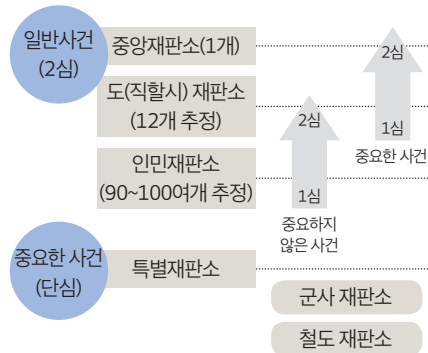
# 재판소

연관어 최고인민회의

북한의 재판소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 존속을 위해 존재한다.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어 자율적이고 중립적인 사법적 판단은 불가능하다.

**재판의 진행** | 재판은 일반적으로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진행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인민참심원이란 국민 가운데에서 선출되어 법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하며, 도(직할시) 및 인민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출 및 소환한다.

**2심제** | 북한의 최고 사법기관은 중앙재판소이며, 이는 전국의 재판소 사업을 감독하고 통제한다. 중앙재판소의 하급기관으로는 ‘도(직할시) 재판소’와 ‘인민재판소’가 있으며, 이외에 특별재판소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를 두고 있다. 북한의 재판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보통 1심은 인민재판소가, 2심은 도(직할시) 재판소가 담당하나 중요사건은 도(직할시) 재판소와 중앙재판소가 1심을 담당한다. 또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은 중앙재판소만이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보위성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재판은 단심제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 더 알아보기

### 북한에서 변호사의 역할

북한에서 변호사는 2018년 기준 약 500명이 등록되어 있다. 북한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법 부문에 종사하거나, 해당 부문 전문가 중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북한은 변호사를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익의 대변자라고 정의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변호사는 당의 정책과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다. 즉 북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의 정책에 맞게 재판소가 판단하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한다.

# 정치범수용소

연관어

북한인권, 주체사상, 선군정치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는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며 ‘관리소’라고 부른다. 주로 북한 정치 체제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사상범이라고 하여 그들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정치범수용소(관리소)는 ‘국가보위성’이라는 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구금 대상** | 1956년 이전까지는 친일파, 종교인 등 사회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을 격리하던 곳이었다. 북한에서는 정치사상범의 개념을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와 같이 모호하게 표현하여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죄목을 붙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잠재우고 정치적 행위를 막기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강제 노동 착취를 통해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서 수감하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생활** |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면 즉시 공민증을 박탈당하고, 선거권과 교육권 등도 보장되지 않는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감옥에 수용되거나 국가보위성의 보위원에 의한 처형이 이루어진다. 완전통제구역에서는 부모형제나 부부조차 떨어져 살아야 하며, 혁명화구역에서도 결혼 및 출산이 금지된다. 면회나 편지도 모두 차단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하다. 정치범수용소에서 수용자들은 휴일도 없이 강제노동에 시달리는데, 지역에 따라 탄광 노동, 공업, 농사 등에 참여한다. 정치범수용소 내의 영양·위생·의료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며, 이로 인해 구금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사망하거나 석방 직후 사망하기도 한다.

## 더 알아보기

### 정치범수용소의 시설과 종류

북한에는 그림과 같이 총 5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경에 인접한 22호 관리소가 2012년에 폐쇄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리소의 일부가 이전하거나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범수용소는 죄에 따라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아래 표와 같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밖에도 정치범수용소는 운영 형태에 따라 감옥과 같은 모습의 교화소 형태, 마을의 모습이지만 외곽철조망이 있어 일반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형태로도 구분될 수 있다. 또, 가족이 함께 수용되는 가족동반수용 관리소와 정치범 본인만 수용되는 단독수용 관리소로도 나뉘어진다.



구역 명	수감자	운영 방식
완전통제구역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나 해외도주 정치범	- 한번 수용되면 사회로 복귀할 수 없음(종신 수용) - 수용소에서 죽을 때까지 처참한 강제노동에 시달림
혁명화구역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한 정치범	- 일정기간(3~10년) '혁명화'라는 정치사상교육을 받음 - 사상이 개조되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회로 복귀 가능

# 조선노동당

연관어 내각, 주체사상, 일인지배체제

조선노동당은 북한에서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 기구이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며 북한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책은 노동당의 지도와 통제 아래에서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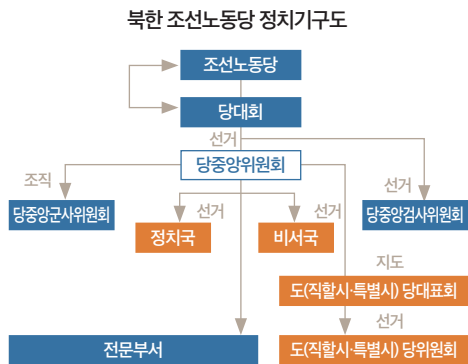
**조선노동당의 연원** | 북한은 1945년 10월 10일을 조선노동당 창건일로 공식화하여 1949년부터 ‘사회주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창당 이래 조선노동당은 여러 차례 성격변화를 거쳐 왔다. 1950년대 중반까지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당이념으로 설정하고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을 목적에 두었다. 1960년대 말까지는 당이념에 ‘혁명전통’이 추가고 한반도 전체에서의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목표로 규정하였다. 이후 1980년 당6차 대회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조선노동당의 역할과 위상** | 북한에는 몇 개의 정당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상 노동당이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유일 정당으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11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한다. 노동당의 당 규약에도 “노동당이 노동계급과 대중의 핵심 부대로서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사회의 영도적 정치조직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조선노동당의 조직 구성

조선노동당은 일당 지배체제가 제도화되어, 당원의 합의보다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향식 지시에 따르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당조직의 최고지도 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당대회가 선출한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이를 중심으로 지역 및 사업단위별로 하위 당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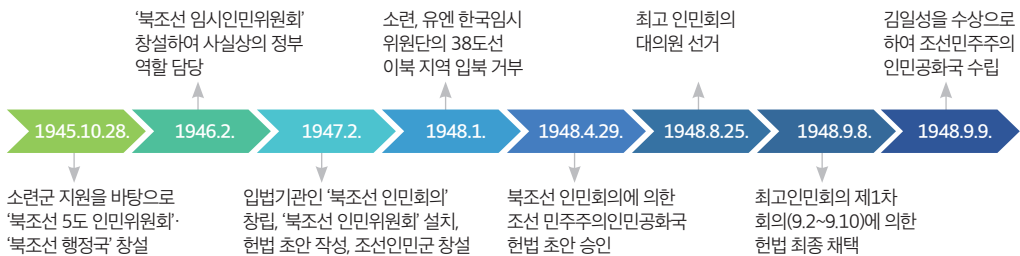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관어

집단주의, 신탁통치, 6.25전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8년 9월 9일에 선포한 북한의 공식 명칭이다.

**북한의 정부 수립 과정** | 광복 이후 한반도는 소련과 미국에 의해 지역적으로 분할되면서 분리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 지역에서 1948년 9월 9일에 북한정권이 수립되었다.



**일상생활에서의 국호 사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국 또는 자국민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활용된다. 또는 줄여서 '공화국'이나 '북조선'으로 지칭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북한의 국호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자국민을 표현할 때도 '공민'이라는 공식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호와 관련하여 '인민'으로 표현할 때가 많다. 나아가 다양한 사회단체나 조직의 명칭에서도 국호와 관련된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 북한을 상징하는 꽃과 노래

북한에서도 196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궁화를 국화로 여겼으나 이후에 목란으로 변경하였다. 목란이 정식으로 북한을 상징하는 꽃으로 지정된 날은 1991년 4월 10일이다. 목란은 북한에서 김일성이나 북한정권 관련 상징으로 두루 쓰이고 있다. 또한,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애국가가 존재한다. 북한의 애국가는 1948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첫 소절인 '아침은 빛나리'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 주체사상

연관어 선군사상, 핵, 미사일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와 주민가치 및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전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북한의 통치이념이다.

**주체사상의 형성 과정** | 주체사상이 처음으로 북한에 등장한 것은, 1950년대 이후 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김일성의 당내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되면서 부터이다. 그 뒤 1950년대 중반 이후로 북한에서 주체성 논의가 활발해지며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를 표명하였다. 1967년경 주체사상은 유일사상 체계 확립 차원에서 정립되기 시작했고, 1970년 제 5차 당대회를 통해 주체사상은 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1980년대 초반 김정일은 실질적 후계자로 등장하여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의 사상체계를 갖추게 했다. 여기서 김일성을 주체사상의 창시자로, 김정일을 구현자로 부각시켜 사상적 후계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주체사상의 한계** | 주체사상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이념적 지향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인민 대중은 진정한 주체가 아니라 수령의 지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 더 알아보기

### 주체사상의 영역별 구현

사상에서의 주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며, 국가의 혁명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짐
경제에서의 자립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함. 이는 곧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의미함
정치에서의 자주	노동계급과 인민 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권을 쥐고 주인이 되는 것이자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 것
국방에서의 자위	제국주의에 맞서 국가의 자위적 무장력을 가지는 것

# 집단주의

연관어

생활총화, 일인지배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집단주의란 조직과 집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개개인보다 사회, 집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이다.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조직을 기초로 생활한다.

**북한의 집단주의 생활양식** |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은 모든 생활방식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북한의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다. 북한은 집단주의를 생활이념으로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도록 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살아가는 동안 조직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다. 구체적인 생활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역	명칭	사례
정치·경제적 생활 방식	군중 노선	천리마 운동, 속도전, 청산리 방법 등 생산 과정에서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사회적 생활 방식	공산주의 미풍	고아 입양 및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영예 군인과의 결혼 장려 등

**집단주의의 사상적 배경,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 북한의 집단주의적 생활방식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주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란 사회정치적 존재인 개인이 수령을 중심으로 당의 지도에 따라 조직사상적으로 결속하면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수령은 인민 대중의 사회정치적 활동을 지휘하는 뇌의 역할을 하며, 조선노동당은 수령의 명령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중추의 역할을 한다. 인민대중은 이러한 수령과 조선노동당의 지휘에 따라 움직인다. 북한은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통해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전체주의를 정당화하였다.

## 더 알아보기

###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의 차이점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는 실제 사회에서는 결과적으로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근본적인 이론에는 차이가 있다. 집단주의가 개인보다 집단을 더 중요시하는 이념이라면, 전체주의는 개인이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개인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등장한 정치체제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모든 활동이 민족국가와 같은 전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발전했다.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등이 전체주의에 따른 정치체제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정당화되어, 경제활동이나 종교, 문화, 사상,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에서 국가 권력의 통제에 따라 강제적인 획일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 천리마운동

연관어 주체사상

천리마운동이란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천리마를 탄 기세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의미의 사회주의 경쟁운동이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을 촉진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천리마 운동을 활용했다.

**천리마 운동의 등장 배경** | 1950년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경제원조가 줄어들고, 내부적으로도 6.25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현저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노동자들에게 혁명적 열의를 강조하였다. 그 결과 강선제강소에서 기존 생산계획을 초과 달성하였다고 하여 이를 계기로 천리마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천리마운동 포스터

**천리마운동의 전개** | 강선제강소에서 시작된 천리마운동은 195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전국생산혁신자대회'를 계기로 북한 전체 근로자의 노력경쟁운동으로 본격화되었다. 북한은 천리마운동을 적극적 생산을 위한 운동뿐 아니라 사상 개조운동으로도 활용했다. 공장, 기업소 등 생산 현장을 비롯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와 연결하여 새로운 공산주의 인간형 창조를 목표로 하였다. 예를 들어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는 '영웅'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천리마운동의 전개사례

용어	지칭 대상
천리마기수	천리마 운동에 앞장선 사람
영웅	천리마 운동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
천리마공장	집단적인 기술 혁신을 이룬 공장
천리마체	천리마처럼 앞을 향해 달려 나가는 글자체

## 더 알아보기

### 김정은 정권에서의 속도전 - 만리마속도

천리마운동은 김정은 정권에 들어 만리마속도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만리마는 하루에 만 리를 달리는, 천리마보다 빠른 말이라는 뜻이다. 북한은 대표적으로 평양 여명거리를 만리마속도의 본보기로 삼고 있다. 실제로 여명거리 건설장의 건물은 약 20시간 만에 한 층씩 올라가는 등 엄청난 속도로 시공되었다고 선전하였다. 이외에도 만리마속도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공업발전 등을 위한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도 사용하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달성을 위한 독려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 최고인민회의

연관어

내각, 조선노동당, 출신성분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법을 만들거나 수정하고 다양한 직책을 임명하며 국가 예산을 승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최고인민회의의 특징** |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때 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주 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의 많은 업무를 대신해서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법제위원회나 예산위원회 같은 기구도 있다.

남한의 국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에 정해진 권한 보장 받음</li> <li>✓ 법을 만드는 기관이면서 행정부의 권한을 적절하게 견제하는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에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당의 주도에 따름</li> <li>✓ 법을 수정하는 기관이지만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지 못함</li> </ul>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과 선거** |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이 있듯이 최고인민회의에는 대의원이 있다. 총 680여명 가량이 대의원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4년의 임기 동안 최고인민회의에서 활동하게 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사람을 포함한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져, 1인1투표제·직접선거·비밀선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의원 후보자는 주로 당에서 추천한 단일후보가 출마하여 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다. 투표를 할 때 찬성의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으며, 반대할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 긋거나 X자를 표시한다. 이로 인해 100%에 달하는 투표율과 찬성률을 보이게 되는데, 이 점에서 북한에서 행정부, 법원, 국회의 권력이 나누어져 있다고 해도 형식적 권력 분립에 불과하다고 평가된다.

## 더 알아보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상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들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중일 때 최고주권기관의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북한의 첫 헌법에서부터 명시되어 있었던 상임위원회는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의 권한 일부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기능을 보유하게 되면서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현재 북한의 헌법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거나 최고인민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 제기된 다양한 국가적 사업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출신성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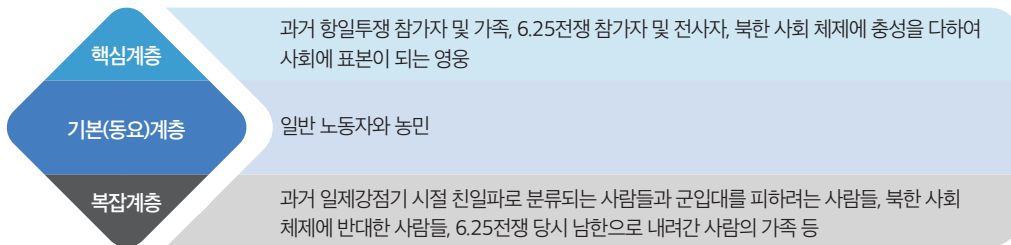
연관어

결혼, 대학입시, 배급제도, 외화별이, 조선노동당, 진로

출신성분이란 북한의 사회적 계층을 나누는 기준이며, 출신이나 사회적 지위, 사상성 등을 고려해 구분된다. 출신성분에 따라 규정되는 정치적 성분을 ‘토대’라고 한다

**출신성분의 등장 배경** | 북한은 1950년대 말 전후 주민들이 북한 사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사회 제도를 만들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가족의 계층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을 조사하였다. 이때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북한의 ‘출신성분’이다. ‘출신성분’을 다른 말로 ‘토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북한사회에서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

**북한의 계층구조** | 북한의 출신성분은 3계층(핵심계층·기본계층·복잡계층)으로 나뉘어져 있다. 세 계층은 의복·식량·주택의 배급, 대학 진학, 의료 혜택, 직장 내 승진, 결혼 등 실제 생활에서 차이를 보인다.



## 더 알아보기

### 북한 출신성분의 변화

최근 북한의 출신성분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도 돈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출신성분이 약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다.<sup>5</sup> 컴퓨터나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뛰어난 기술자들이나 외화별이 등에서는 출신성분보다는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이 능력만 있으면 돈을 벌며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정부 기관에 취직하는 등 ‘신분 세탁’을 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 출신성분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핵무기(미사일)

연관어 **선군정치**

북한은 2006년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22년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하며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평화위협**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집중하였으며 핵탄두를 최대한 작고 가볍게 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생존의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가 위협받고 있으며 남북 간을 비롯한 주변국가와의 군사안보적 위기와 그로 인한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일시

구분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일시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2017.9.3
지진파 규모(mb)	3.9	4.5	4.9	4.8	5.0	5.7
추정위력(kt)	약 0.8	약 3~4	약 6~7	약 6	약 10	약 50

**북한의 미사일 위협** | 남한을 비롯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주변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장과 더불어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사일을 개발하여 왔다. 최근에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 하였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다.



2022년 북한 미사일 발사일지<sup>6</sup>

#### 더 알아보기

####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연구는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로 이어졌다. 이를 위해서는 핵탄두를 싣고 목표하는 지점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인데 북한은 2017년 7월 4일,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4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에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화성-17을 공개하면서 대륙을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추진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하였다.

---

## 출 처

### [단행본 및 논문]

-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 (2011)
-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22)
-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1)
- 국방부, 『2020 국방백서』
- 김창희, 『북한의 정치권력 변천의 의미: 로동당과 국가기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제 42집 제 1호)
- 동방학지, 『연좌제와 출신성분의 규정력을 통해 본 해방 후 북한의 가족정책』 (2019)
- 『두산백과사전』
- 『북한문학사전』
- 북한연구소, 『자그마한 이야기』 북한의 국화, 진달래? No! 목란꽃』 (2004.04.)
- 북한연구소, 『북한의 국화 및 상징화에 대하여』 (2009.06.)
- 북한자료센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 교수참고서 2014』
- 북한자료센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어린시절, 혁명활동, 혁명력사』
- 북한자료센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혁명활동, 혁명력사』
- 북한자료센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어린시절, 혁명활동, 혁명력사』
- 외교부, 북한핵문제, 한국과 국제사회,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방향』
- 이수원,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 역할 변화 분석』 (통일과평화 8집 2호, 2016)
- 평화문제 연구소, 『꼭 알아야 할 통일북한 110가지』 (2011)
- 통일연구원, 『KINU통일+』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21)
- 평화재단,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2) 토대와 성분』 (2007)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동훈, 『북한의 사법조직 및 작용에 대한 법체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vol.45, no.1 (2021)
- 황인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론』 (2014)
- 휴먼라이츠워치(www.hrw.org), 2022년 보고서

### [블로그 및 홈페이지, 기타자료]

- 국립통일교육원, 자료마당
-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북한법령』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 [미주]

- 1 데일리NK, 『정세긴장에 '붉은청년근위대' 비상 소집 훈련 매주 진행』 (2022.10.21.)
- 2 NK경제, 『북한, 사상 교육도 SW로』 (2019.07.05.)
- 3 연합뉴스, 『북, 25년만에 청년단체명서 '김일성' 빼...』 (2021.4.30.)
- 4 데일리NK, 『북한판 연좌제』 (2021.09.16.)
- 5 연합뉴스, 『북한 신분제, '富' 등장에 변화 조짐』 (2012.12.28.)
- 6 연합뉴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일지』 (2022.11.19.)







**PART 7**



**사회생활**





# 가족제도

🔍 **연관어** 결혼

북한에서도 가정은 자녀 양육과 교육의 핵심 주체이자 사회제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북한 가족제도의 변천** | 북한의 가족제도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왔다. 북한에서는 호적제도를 봉건사회의 잔재라 하여 1947년에 폐지하고 이후 공민증 제도로 대체하였다.<sup>1</sup> 이후 유일사상체계 확립 시기, 경제난 등을 거치며 가족제도의 모습은 아래와 같이 변화했다.

시기	시기상의 특징	가족제도 변천 내용
1946년 ~ 1958년	가족 중심의 경제적 기반과 가부장적 위계질서, 대가족제도를 붕괴한 시기	호적제도 폐지(1947) → 공민증 제도로 대체
1960년 ~ 1980년	유일사상체계 확립 시기	-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김정일의 가부장제 부활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독려(1970년대) - '사회주의 가족' 강조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 여성근로자를 가정으로 회귀시킴 - 사회 부양 및 복지 의무를 국가로부터 가족 내부로 이전시킴

**북한 가정의 가부장적 분위기** | 194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가족관계에서의 남녀평등-남편과 아내의 평등, 부친과 모친의 평등 등은 우리 가족법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실제 북한의 가족생활에서는 가부장적 분위기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북한의 가족법에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량이나 주택 등의 공급에서 정기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때는 아버지가 대표해서 받는다는 점도 작용한다.

## 더 알아보기

### 북한의 상속법

북한에도 상속제도가 존재한다. 북한의 상속법에 의하면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에 의한 분배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2. 국가 또는 사회의 추가적 혜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3. 개인부업경영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4. 살림집, 도서, 화폐, 저금,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 승용차, 5. 각종 재산상청구권과 채무, 6. 그밖에 다른 공민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같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다.

북한에서도 결혼은 인륜지대사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매결혼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연애결혼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북한의 결혼 적령기** | 북한의 가족법에서는 남 18살, 여 17살부터 결혼을 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결혼 적령기는 여자는 23~25세, 남자는 27~30세 정도로 여겨졌다. 그런데 최근에는 결혼연령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에서 사는 고학력 여성들의 결혼은 더 늦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사회 진출을 원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이른 결혼으로 가사일과 육아까지 병행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비혼주의와 저출생도 북한의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결혼식 문화** | 전통적으로 결혼식은 신랑, 신부의 집에서 진행하고, 가족들이 음식이나 잔치상 등 결혼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준비한다. 신부는 한복, 신랑은 양복을 입는다. 음식은 보통 떡이며 국수 등이 잔치상에 오른다. 고난의 행군 이후로는 결혼식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 평양의 중상류층에서는 음식점을 많이 이용하고, 출장뷔페를 부르기도 한다. 보통 이런 결혼식에서는 신랑은 정장을,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주로 입는다. 전문 예술인들을 초청해 공연을 벌이는 결혼식도 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휴가를 얻을 수 있는데, 소속직장의 당 책임비서나 청년동맹 비서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북한의 웨딩 촬영의 경우, 많은 부부들이 김정일, 김일성 동상이 있는 광장에 가서 꽃다발을 바치고 기념사진을 찍는다.<sup>2</sup>



### 더 알아보기

### ‘열대메기’와 ‘현대가재미’

북한에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 우선 1등 신랑감 조건을 ‘열대메기’로 요약해 부르는데 그 뜻은 이렇다. **열**, 여자를 열렬히 사랑할 줄 알고, **대**, 대학을 졸업하고, **메**, 당증을 메고 있으며 **기**, 기술이 있는 남성을 뜻한다고 한다. 비슷하게 북한 남성들에게도 최고의 신붓감은 ‘현대가재미’라고 줄여 부르다고 한다. **현**, 현금이 많고, **대**, 대학을 졸업하고, **가**, 가족 출신 성분이 좋고, **재**, 재간이 많으며 **미**, 아름다운 여성을 뜻한다.<sup>3</sup>

## 고난의 행군

🔍 **연관어** 천리마운동, 장마당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 등으로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시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구호이다.

**두차례의 고난의 행군** |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유격대가 1938년 일본군의 토벌 작전을 피해 흑산과 굽주림 속에서 약 100일간 행군했을 때이다. 이후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시기를 의미할 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였다.

1차	1938.12 ~ 1939.3	일본군의 토벌 작전을 피해 압록강 연안 국경일대로 강행한 100일간의 행군
2차	1990년대	- 1990년대 계속된 심각한 경제난과 기아 문제 - 일반적으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 이 시기를 의미함

**제2차 고난의 행군** | 1990년대 제2차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산업은 군수산업 부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붕괴했다. 이렇듯 심각한 경제난은 같은 시기에 구소련 등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대외교역이 위축, 중단됨으로써 위기가 더욱 가중되었다. 북한은 1996년 공동시설 발표 이후 ‘고난의 행군 정신’을 강조하면서 군인 건설자들을 경제건설 전면에 내세웠다. 이 시기 청년들이 안변청년발전소와 원산-금강산 철도 등을 건설하였다. 이 외에도 체육, 과학, 예술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고난의 행군 정신을 강조하며 사회적 동원에 참여하였다.

### 더 알아보기

#### 고난의 행군과 북한의 시장화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전후하여 북한 사회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경제 위기로 배급제가 붕괴했고, 굶주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마당으로 나오면서 장마당은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경제 위기는 주민들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주어 장마당 세대의 등장을 촉진하였다. 이렇듯 북한 내 시장화의 확대는 1990년대에 집단주의, 사회주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다양한 개인주의 행위를 유발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 광명성절

🔍 **연관어** 태양절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광명성 혹은 백두 광명성은 김정일의 별칭이다. 이러한 광명성절은 김일성의 출생일을 기념하는 태양절과 함께 북한의 최대 명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광명성절이 북한에서 갖는 의미** | 북한은 그동안 태양절과 광명성절 등의 행사를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여 세습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열병식 등을 감행하여 군사력 과시와 함께 대내결속을 다지는 정치행사로 활용하였다. 즉 3개월에 가까운 ‘수령생일정치’를 통해 김씨 일가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광명성절 행사** | 광명성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김정일화축전, 체육행사, 경축공연 등이 진행된다. 특히 2022년에는 김정일의 생일 80주년을 맞아 성대하게 기념공연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sup>4</sup> 인민문화궁전과 동평양대극장, 봉화 예술극장, 청년중앙회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채로운 종목의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불꽃놀이와 춤을 추는 야회 등 주민참여형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 더 알아보기

### 광명성 이름의 유래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1942년 2월 백두산 밀영의 귀틀집에서 태어났으며 출생 당시 ‘백두 광명’이 떠올랐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김정일이 백두혈통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광명성’이 널리 알려진 것은 1992년인데, 당시 김일성은 김정일의 50세 생일을 축하하며 <광명성 찬가>를 썼다. 그 속에 김정일의 출생에 대해 ‘광명성탄’이라고 적고 있다. <조선말대사전>에도 광명성에 대해서 ① 환하게 빛나는 별 ② 항일혁명 투쟁 시기, 환하게 빛나는 별이라는 뜻으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높이 우러러 이르는 말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김정일의 ‘광명성’ 별칭은 김일성을 ‘태양’으로 부르는 것처럼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통해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구축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5</sup>

# 국제아동절

연관어 소년단

북한의 6월 1일은 국제아동절로 어린이들의 명절로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5월 5일 어린이 날과 비슷한 날이지만, 학교 입학 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국제아동절의 의미** | 국제아동절은 1949년 러시아에서 개최된 국제민주여성연맹 이사회에서 제정되었는데,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이날을 어린이들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최고지도자의 '어린이 사랑'을 부각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선전한다.

**국제아동절의 기념행사** | 북한에서는 매년 국제아동절이 되면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각 도·시·군에서는 어린이들의 예술소조 종합공연과 체육·오락 경기를 진행한다. ‘국제’라는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이날이 되면 평양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도 행사에 참여한다고 한다. 체육·오



락 경기는 밧줄당기기, 꽃줄넘기, 글자붙이기, 활쏘기, 체조, 달리기 계주, 자전거 경주, 축구 등의 경기를 한다. 그러나 실제 행사에는 북한 전체의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참가한다기보다는 평양의 소수만이 참가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아동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주민들이 휴일이 아닌 날에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행사를 즐기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 더 알아보기

### 소년단 창립기념일과 국제아동절

북한에서 국제아동절과 비슷한 날로 소년단 창립기념일이 있다.

	국제아동절	소년단 창립기념일
날짜	6월 1일	6월 6일
대상	만 7세 미만(소학교 입학 전)의 어린이들	만 7세 ~ 13세의 어린이들
특징	평양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도 행사에 참가함	소년단연합단체 대회를 열어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거대한 행사들이 진행됨

# 군복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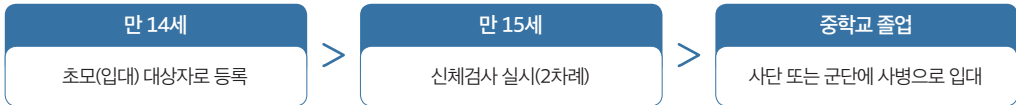
연관어 **선군사상**

북한은 선군사상을 내세우며 군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군대의 의미를 선전하고 있다.

**군 입대 과정** | 북한은 2003년 「군사복무법」을 제정해 군대에 지명하는 사람만 모집하여 뽑던 모병제에서 대상자 모두가 입영하는 징병제로 변경하였다. 이를 전민군사복무제라고 한다. 식량난 및 군 기피 풍조 등으로 병력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예외 없는 입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병력의 세대교체를 하기 위함으로 파악된다. 전문학교 진학자는 졸업 후에, 취업자는 근무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입대 대상으로 한다.



북한의 군인



**군복무 기간** | 남성, 여성의 군복무 기간은 다음과 같이 변화해왔다.

	기존 군복무 기간	「군사복무법」 제정 이후 변경된 기간	2021 이후 변경된 기간(국가정보원 발표)
남성	13년	10년	8년
여성	10년	7년	5년

## 더 알아보기

### 북한에서의 군면제 대상

북한에서는 군인을 우대하고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사회안전성 보안원, 과학기술·산업 필수요원, 유망 예술인과 체육인, 군사학 시험 합격 대학생, 노부모를 부양하는 독자 등에 대해서는 군복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정치적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위 '적대계층'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반동 및 월남자 가족 중 친가 6촌·외가 4촌 이내, 월북자, 형복무자 등의 성분 불량자는 의무징집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 노동신문

연관어 조선중앙텔레비전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의 입장을 대표하며, 노동신문사가 편집 및 발행하는 북한 최대의 일간 신문이다. 노동신문은 대내외 주요 현안 및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을 통해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총 6면 내외로 연중무휴로 발간되는데 신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노동신문의 구성

신문 각면	주요 내용
1~2면: 정치면	지도자의 현지지도나 활동상황, 북한 고위층의 활동상황, 찬양 관련 기사와 정책 사설
3면: 경제면	각 지역 경제 관련 소식
4면: 사회면	북한 내 사회·문화·체육 소식
5면: 남한 및 통일 관련 기사	남한 및 통일 관련 기사
6면: 국제 뉴스	세계 각국 뉴스



**노동신문의 특징** |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관련 기사는 통상 1면에 실리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이름이나 발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다른 글자보다 눈에 띄도록 크고 진하게 표기하고 있다. 사진과 활자는 거의 흑백으로만 인쇄됐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컬러인쇄를 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당국의 철저한 검열을 거쳐 편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비판하거나 북한 사회의 부정적인 기사들을 내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북한에는 실질적인 언론의 자유가 없는 셈이다.

### 더 알아보기

### 북한의 신년사

북한은 매년 초 신년사를 발표하여 그 해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946년 김일성이 '신년을 맞으면서 전국 인민에게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한 것이 북한 신년사의 시초이다. 신년사는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총 3개의 신문에 실리는데 각 신문은 일반 대중, 군인, 청년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기관지이다. 신년사에는 전년도의 분야별 사업에 대한 평가와 다가오는 한 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 목표가 발표된다. 신년사 발표 이후 북한에서는 신년사의 전체내용을 암기하게 하는 학습이나 경연대회가 열린다. 하지만 북한은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3번째 신년사 발표를 생략하고 있다.





# 대중교통

🔍 **연관어**

지하철, 남북도로연결, 남북철도연결

대중교통이란 일반 사람들이 일정한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북한에도 버스나 지하철을 비롯한 다양한 대중교통과 택시, 자전거 등이 사람들의 이동을 돕고 있다.

## 대표적 교통수단

교통수단	특징
무궤도전차	- 일정한 궤도 없이 공중에 설치된 전깃줄을 따라 움직이는 전차 - 전기를 이용하여 운행하며, 배기가스가 없고 건설비가 적게 들 - 수송 범위 : 50명 ~ 100명 - 평양, 청진, 원산, 함흥 등 주요 도시에서 운행
버스	- 북한의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 - 연료 부족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정확한 배차간격은 없음 - 노약자석, 임신부석, 군인석 존재
자전거	- 면허증과 번호판 부착 필수 - 대중교통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도시에서 필수적인 교통수단
궤도전차	- 평양시에서만 운행되고 있는 노면(지상) 전차 - 1호선부터 3호선 및 금수산선이 있으며, 주로 다른 국가에서 중고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

**택시의 등장** | 북한에서 택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이후이다.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급증한 택시는 2019년 기준 평양에 약 6천 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옥류관 식당 앞에는 항상 택시가 기다리고 있고, 평양에서만 볼 수 있었던 택시가 요즘은 북한과 중국의 접경 도시에서도 성업 중이다. 색상이 알록달록하다고 해서 ‘알락이’로도 불리는 ‘콜택시’도 등장했다. 택시의 기본요금은 2달러로 쌀 4kg을 살 수 있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일부 주민들의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이동의 편리함을 추구하여 수요는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sup>6</sup>

### 더 알아보기

### 새로운 교통수단 ‘벌이버스’

북한의 대중교통이 주민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열차가 전력·연료 부족으로 중단되는 일이 잦은 등 상황이 좋지 않자 등장한 것이 ‘벌이버스’다. ‘벌이버스’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교통수단으로, 20명 정도 탈 수 있는데 일반 대중교통보다 10배 이상 비싸다. 또한 벌이버스는 택배업으로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계층 사람들이지만, 당이나 기업소 간부 등 전통적인 상류층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전해졌다.<sup>7</sup>



# 독보

연관어 대학 생활, 방학, 사상교육, 소년단, 소학교, 집단주의

독보란 노동신문 사설이나 논설 등을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소리 내어 읽어주는 활동으로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 및 일반 직장에서도 이루어진다.

**독보 자료 내용** | 학교에서는 독보시간에 사상부위원장을 맡은 학생이 학급 학생들 앞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관한 자료나 노동신문 사설을 읽는다. 학교나 일반 직장에서 독보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 자료 중 하나는 『365일 교양안』으로 여기에는 날짜별로 북한 지도자들의 활동이나 각종 회의에서 내린 결정과 그 과정 및 이유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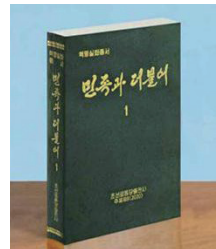
신문을 읽고있는 북한 학생

**독보활동 운영** | 독보는 방학에도 진행된다. 학급 친구 중 가까운 동네에 사는 친구들로 구성된 소년단반을 중심으로 아침 일찍 모여 독보를 진행한다. 대학생이나 성인은 독보 관련 자료를 읽고 난 후 서로 이야기하는 활동도 한다. 모든 학교나 기관, 단체에서 독보를 해야 하니 사실상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독보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교육의 일환으로 독보활동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 더 알아보기

### 독보 자료: 김일성 회고록

독보 자료로 많이 활용되는 것 중 하나가 김일성 회고록이다. <세기와 더불어>는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김일성의 회고적 자료를 모아 엮은 전집으로 총 8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김일성의 출생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의 활동이 담겨져 있다. 최근에는 해방 후부터 사망 전까지의 김일성의 행적을 다룬 <민족과 더불어>가 출간되었다.<sup>8</sup>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회고록을 통해 최고지도자의 지침 및 말씀을 학습하며 생활총화를 할 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강조한 지침-말씀을 인용하여 말한다. 예를 들면 대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강조한 김정일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비판한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대학생들은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는데 김철수 동무는 담배를 피워 조직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 문화어

🔍 **연관어** **겨레말큰사전**

북한의 표준어를 문화어라고 한다. 문화어는 지역적으로는 평양말, 계층적으로는 노동 계급의 말을 기본으로 하여 조성하였다.

**우리말 다듬기 사업** | 북한도 원래는 1933년에 제정된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따른 언어를 사용하였다. 이후 1966년 평양말을 표준어로 제정하면서 문화어라 명명하였고, 문화어를 다듬기 위해 한 자어를 고유어로 전환하는 말다듬기사업을 전개하였다. 한자어와 외래어 어휘들이 민족적 사상 교양의 수단으로서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없게 하며, 사람들 속에 사대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침투시키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 많은 한자어들이 다듬어지고 고유어로 대체되었다.

**문화어의 특징** | 우리나라 표준어와 구별되는 문화어의 특징과 각각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sup>9</sup>

문화어의 특징	문화어 예시	대응되는 우리나라 표준어
두음법칙 인정하지 않음	리유, 여자, 력사	이유, 여자, 역사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꿔 사용	구석차기	코너킥
된소리 현상이 두드러짐	아빠트	아파트
	핵심	핵심
여러 지역의 방언 수용	망돌	맷돌
	부루	부추
의성어, 의태어 발달	왈랑질랑 방울소리 씨엉씨엉 배를 몰았습니다	-

이 밖에도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며, 선동형, 감탄형 등의 문체를 사용해 전투력을 높이려는 점이 문화어의 특징이다.

## 더 알아보기

### 남북한의 다른 말

우리나라와 북한은 오랜 시간 나뉘어 지내 온 만큼 같은 듯 하면서 다른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말	문화어	우리말	문화어	우리말	문화어
괜찮다	일없다	도넛	가락지빵	계란	닭알
강낭콩	당콩	인터넷 검색	망검색	혈액형	피형

# 사회주의 명절

연관어 태양절, 광명성절

북한의 사회주의 명절은 북한의 지도자들의 탄생일이나 그들의 사회주의 체제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명절(7대 명절)과 설, 추석, 단오 같은 민속명절 3개까지 합한 10대 명절이 있다.

## 사회주의 7대 명절

명절	날짜	명절의 의미
태양절	4월 15일	김일성 탄생
광명성절	2월 16일	김정일 탄생
국제노동자절	5월 1일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쟁취 기념일
해방기념일	8월 15일	조국의 광복을 기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
조선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
헌법절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 채택 기념

**명절을 보내는 방법** | 사회주의 명절로서 대표적인 태양절과 광명성절은 이틀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며, 술과 과일 등의 특별 배급까지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숙의 동상이나 초상화 앞에 꽃다발을 바치면서 인사를 올리고, 당국에서는 체육행사, 예술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기념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 북한의 민속 명절

북한의 민속 명절에는 추석, 설, 단오가 있다. 이 중 설은 양력설과 음력설이 있는데, 음력설은 김일성이 봉건 잔재라 규정하여 자취를 감췄다가 1989년 부활하였다. 현재 양력설에는 1~2일, 음력설에는 3일간 쉬고 있다. 명절에 북한 주민들은 우리나라처럼 가족 간 인사를 나누며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하는 등으로 하루를 보낸다. 해를 맞이하는 양력설에는 웃어른을 찾아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눈다. 연날리기, 팽이치기 같은 민속놀이와 윷놀이, 씨름 등의 민속경기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동상이나 초상화 앞에 꽃다발을 바치고 인사를 올리는 것이 '새로운 세배 풍습'으로 전통화되고 있다.

# 생활총화

연관어

사상교육, 상벌, 소년단, 집단주의

생활총화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단체나 조직에서 주기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활동이다. 북한에서는 조선소년단에 가입하는 소학교 2학년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생활총화에 참여한다.

**생활총화의 종류** | 생활총화는 조직과 집단생활을 강조하는 북한의 집단주의를 대표하는 제도로 일주일간 생활을 반성하는 주간 생활총화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은 직장에서 생활총화가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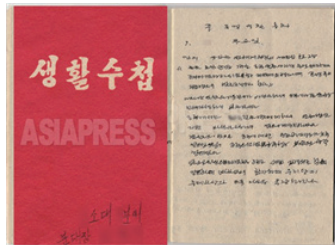
종류	내용
주간 생활총화	일주일애 한 번씩 실시
월간 생활총화	매월 한 번씩 실시
분기 생활총화	3개월에 한 번씩 실시
연간 생활총화	1년에 한 번씩 실시

**생활총화 과정 및 한계** | 생활총화는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주간 생활총화에서 한 주 동안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된 원인과 개선하기 위한 방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최고 지도자의 지침·말씀을 인용하여 비판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상호비판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상호 비판으로 인해 사람들 간 원한이 깊어지거나 싸움이 발생하는 등 생활총화는 여러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sup>10</sup>

## 더 알아보기

### 성찰 체크리스트: 생활수첩<sup>11</sup>

생활총화 시간에는 생활수첩에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의 내용을 기록한다. 북한의 한 여성 동맹원은 '당의 유일적영도체계의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의 8조 4항을 언급하며 자신이 도로 뒤통이에 붙성실하게 참가했고 맡겨진 구간을 제때에 끝내지 못했다고 자아비판한 내용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작업에 불참하거나 군복을 정돈하지 않고 취침했다는 이유로 서로 상호비판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생활총화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첩 역시 사상교육과 주민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휴대폰을 ‘손전화’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부른다. 북한의 스마트폰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며 북한이 자체 개발한 앱 프로그램만 사용이 가능하다.

**북한 주민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 | 북한의 스마트폰 사용 인구는 2021년 기준 6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북한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도 쉽게 접할 수 있다. 평양 같은 대도시 주민들은 휴대전화 가입률이 7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마당에서 일하는 상인들은 1인당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보유하기도 한다. 북한은 원칙적으로 1인당 1개의 번호만 사용할 수 있지만, 장마당 종사자들 중 2~3대의 휴대전화를 보유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sup>12</sup>

**북한 스마트폰의 종류와 기능** | 북한 주민이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는 중국 기업의 구형 모델을 현지화하여 출시한 것들이다. 북한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에는 ‘아리랑’과 ‘평양타치’ 등이 있는데,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평양2423’의 경우 사진, 동영상, 녹음기, 나침반, 달력, 기록장 등 20개의 유틸리티 외 23개의 앱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백두산 총서’와 ‘광명도서’ 등 체제선전용 앱도 있지만, 각종 사전이나 영어나 중국어 학습 앱,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무처리’ 앱과 날씨를 알리는 ‘기상정보봉사’ 앱, 오락 앱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영어 배우기 앱을 구동하면 “Be 동사”에 대한 학습 목록이 나온다.<sup>13</sup>



평양2423의 화면

## 더 알아보기

## 스마트폰의 앱 다운로드

북한 스마트폰은 운영체제로 안드로이드 OS를 적용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프로그램 등은 북한이 자체 개발한다. 북한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기 위해선 봉사소라는 곳에 직접 가서 금액을 내야 한다. 이때 내려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북한 당국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스마트폰 자체에 다양한 보안·통제 기능이 있어서 허가되지 않은 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sup>14</sup>

# 업간체조

연관어 생활체육

업간체조는 학교 및 직장에서 수업이나 업무시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체조활동이다.

**학교에서의 업간체조** | 학교에서는 3교시와 4교시 사이에 20분간의 체조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때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나와 ‘소년 율동체조’, ‘건강 태권도’ 등의 체조를 한다. 소년 율동체조는 유치원과 소학교 어린이의 육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10개 동작으로 4분 동안 할 수 있도록 만든 체조로 ‘우리 아버지는 김정일 원수님’이라는 노래에 맞춰 체조를 한다. 건강태권도는 1993년 태권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율동 식으로 개발된 것으로 어린이들도 음악에 맞춰 따라 하기 쉽도록 태권도의 기본동작을 단순하게 변형한 것이다.<sup>15</sup>



**직장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업간체조** | 직장에서는 보통 오전 10시 정도에 15분 정도 체조를 한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국민체조 등을 보급하고 국민들이 따라 하도록 지도했지만 지금은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현재도 체조를 만들어 대상별로 보급하고 있다. 어른에게는 ‘대중율동체조’를 노인에게는 ‘노인율동체조’를 보급해 따라 하도록 한다.<sup>16</sup>



**더 알아보기**

**소년 율동체조 및 대중 율동체조 동작 순서**

소년 율동체조	손목 운동 → 걷기운동 → 팔 운동 → 다리 운동①,② → 목 운동 → 가슴 운동①,② → 몸통 운동①,② → 뛰기 운동 → 팔다리 운동 → 숨쉬기 운동
대중 율동체조	발목 운동 → 팔다리 운동① → 가슴 운동① → 어깨 운동 → 목 운동 → 가슴 운동②,③ → 허리 운동 → 몸통 운동 → 허리몸통 운동 → 등배 운동 → 뛰기 운동①,②,③ → 팔다리운동②

# 의복

연관어 패션, 배급제도

북한당국은 공민들의 계층에 따라 의복을 배급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복의 개별적 구매의 증가와 함께 북한의 의복문화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복 배급** | 북한은 계층에 따라 중앙 공급 대상과 일반 공급 대상을 나누어 의복을 차별적으로 공급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의 경제위기 이후 중단되어 북한 주민들은 옷을 직접 만들거나 장마당에서 비싼 가격에 구입하고 있다.<sup>17</sup>

계층별 의류 보급 체계

대상	품목	수량(횟수)	옷감	가격
4호 대상 (시·군·당 비서) 이상 간부	양복지	연 1회 1벌	고급모직물 등	반액 공급
	기성복	2년 1회 1벌		
	내의류	무제한		
기자, 교원 등	양복지	3,4년 1회 1벌	좋은 옷감	염가 공급 또는 의류 특혜
학생	교복	연 1회 1벌		염가 공급
노동자	작업복	연 1~2회 1벌	포플린, 광목, 반모직 등	무상 공급
	런닝, 내의	연 1회 3매		
	양말	연 1회 4족		

**조선옷 장려** | 북한에서는 한복 대신 조선옷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북한에서 조선옷은 단순한 전통복장을 넘어 민족적 가치와 체제 존속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북한에서는 명절이나 휴일뿐만 아니라 뉴스를 진행하는 여자 아나운서나 대학의 여학생 교복에서도 조선옷을 자주 볼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남성들에게도 바지저고리 착용을 장려하는 등 조선옷을 널리 알리고 있다.

**더 알아보기**

**북한 여성들의 바지 착용**

일반적으로 북한 여성의 주된 옷차림은 치마저고리였으며 바지는 사회적으로 제한되었다. 북한 당국에서 여성들의 바지 착용이 민족적 정서를 흐리고 사회의 건전하고 혁명적인 분위기를 좀먹게 한다고 말하며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2005년 이후 공식적으로 바지착용이 허용되면서 북한의 여성들도 청바지나 땀빼바지(스키니진) 등을 즐겨 입는다고 한다.

# 이동(여행)

연관어 장마당, 금강산관광

북한 주민들의 이동은 자유롭지 않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행증을 비롯한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다.

**북한의 여행증** | 북한의 헌법은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행정 처벌법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이동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북한 당국에서 이렇게 여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관리를 위해서이다. 북한은 70년대 초에 '여행증'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북한의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동장소에 따라 일반여행증과 특수여행증으로 나뉜다.



북한 여행증 및 운전면허증

### 여행증의 종류

종류	내용	발급기관	
일반여행증	평양, 군사 분계선, 국경연선 등을 제외한 일반 지역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여행증	사회안전성	
특수여행증	평양시 출입 여행증	평양시에 출입할 때 필요한 여행증	국가보위성
	군사 분계선 여행증	군사 분계선 인근에 출입할 때 필요한 여행증	
	국경연선 여행증	국경지역을 출입할 때 필요한 여행증	

**북한 내 이동에 대한 인식 변화** | 최근 북한 내에서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해지며 개인의 이동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식량 구입이나 장사를 목적으로 열차를 타고 거주지 밖으로 움직이면서 여행증도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상인들이 뇌물을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아 이동하기도 한다.

### 더 알아보기

### 외국인의 북한 여행

코로나 이전에는 남한과 미국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북한을 여행할 수 있었다. 단, 북한 여행을 위해서는 단체여행의 형태로 북한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계획된 일정을 따라야 한다.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는 주로 중국이나 유럽에 있다. 이들 여행사는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등과 같은 문구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북한 여행시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신변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 등으로 북한 여행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 인민체력검정

🔍 **연관어** 생활체육, 업간체조

인민체력검정은 북한에서 주민 개인별 체력을 검사하는 제도이다. 북한에서는 인민체력검정을 하는 기간을 8~9월로 정하고 이 기간을 ‘인민체력검정월간’이라고 부른다.

**참여대상** | 북한에서는 주민 체력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남자 만10~60세, 여자 만10~55세에 해당하는 주민 모두가 인민체력검정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인들은 직장에서 인민체력검정을 실시한다.

**실시종목** | 인민체력검정의 종목은 20여 개가 있다. 달리기,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턱걸이 등처럼 우리가 아는 종목도 있지만 건강태권도, 대중울동체조, 수류탄 던지기 등 조금은 생소한 종목도 있다. 이렇게 종목별 개인 기록을 측정한 후 나이, 성별 등 세분화한 기준에 따라 성적을 채점하고 평가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군·학교 단체에는 모범칭호를 수여하고 성적이 부진한 개인과 단체는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PAPS,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가 있다. 북한과 달리 우리는 학생들만 참여한다.

남한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 실시종목	북한 인민체력검정 실시종목
왕복 오래달리기, 앉아 윗몸 굽히기, 팔굽혀펴기, 윗몸밀어올리기, 악력,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체질량 지수(BMI) 등	건강태권도, 대중울동체조, 달리기(100m, 800m, 1500m), 400m 장애물, 높이뛰기, 멀리뛰기, 수영, 턱걸이(남자), 팔굽혀펴기(여자), 수류탄 던지기, 등반줄오르기, 8km 강행군, 평행봉 등

## 더알아보기

### 군사력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국방체육은 노동과 국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의 체육정책이다. 1967년 김일성이 국방체육 위주의 체육대중화를 할 것을 지시하면서 북한은 국방체육을 적극 장려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국방 증진을 위해 인민체력검정에 수류탄 던지기, 8km 강행군과 같은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매달 둘째 일요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해 각 지역 및 단체별로 각종 체육경기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에서 체육의 날은 주민들의 집단주의 정신을 기르고 기초체력을 증진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sup>18</sup>



# 조선중앙통신

연관어

조선중앙텔레비전,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은 1948년 창립된 북한의 관영언론기관인 ‘조선중앙통신사’에서 제작된 출판물이며, 조선중앙통신사는 북한 내의 신문, 방송 매체들을 외부 국가들에게 제공한다.

**조선중앙통신의 현황** | 북한의 모든 신문사나 방송들이 조선중앙통신에서 제공하는 뉴스만을 내 보내거나 방송할만큼 조선중앙통신사는 북한의 절대적인 언론기관이다. 조선중앙통신사에는 기자를 포함해 약 2000여명의 직원이 있고 신의주, 해주, 원산, 함흥, 청진 등에 지사를 두고 있다. 해외로는 모스크바, 북경, 하바나, 자카르타 등 10여개국에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의 역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대내외의 정보를 통제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의 공식 대변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부터 공식 사이트를 열고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각종 소식을 대외에 알리기도 한다. 남한이 접하는 북한 관련 소식들은 대부분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것이다.



## 더 알아보기

### 남한의 연합뉴스와 조선중앙통신의 수신계약

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의 대표적인 대내외 홍보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시간동안 국내언론은 외신을 거쳐 번역된 기사를 다시 번역하거나 일본의 조선통신을 통해 지시간 소식을 수신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과 수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년부터 북한 관련 소식을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은 양측의 계약은 2002년 이래 2022년 현재까지 갱신을 통해 이어져 오고 있다.<sup>19</sup>

북한은 정보화를 강조하며 IT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984년부터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을 쏟았고 두 차례에 걸친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 | 북한의 초기 하드웨어 산업은 남한보다 앞서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남한보다 기술이 현저히 떨어지며 대부분 중국이나 대만 등지에서 컴퓨터 부품을 가져와 조립하는 수준으로 컴퓨터를 생산하고 있다. 컴퓨터 가격은 1200~2000달러 정도로 개인이 구매하기 힘들고 주로 기관 등에서 구입한다고 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 북한에서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상당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특히 음성인식, 지문인식, 암호화, 애니메이션 분야 등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북한은 2000년부터 전국대학생 컴퓨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며 청년들의 IT산업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북한의 인터넷** | 북한은 외부 세계와 연결된 인터넷 대신 주로 북한 안에서 연결되는 인트라넷을 사용한다. 북한의 인트라넷 이름은 광명망으로 웹브라우저와 이메일 시스템, 검색엔진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각 행정기관과 주요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까지 약 1300여 개의 기관이 연결되

어 있다고 한다. 광명망에는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신문 방송 사이트도 링크되어 있으며 간단한 게임과 교육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북한 네티즌들은 광명망을 통해 커뮤니티 활동과 온라인 게임, 음악 듣기, 채팅 등을 비롯해 여가시간 활용이나 인터넷 강의, 연구 자료를 다운받는 등의 활동을 한다. 북한 당국은 한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 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였으나 최근에는 모든 주민들에게 3G 모바일 수준의 인트라넷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 더 생각해보기

북한에서는 왜  
판형컴퓨터 개발을 강조할까요?  
북한에도 통신회사가 있을까요?

**북한의 판형컴퓨터** | 북한에서는 태블릿PC를 판형컴퓨터라고 부른다. 북한에서는 최근 판형컴퓨터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2010년부터 태블릿PC 개발을 시작해 아리랑, 삼지연, 아침, 룡흥 등을 출시하였다. 주로 안드로이드 체제를 기반으로 하며 주체사상에 관한 앱들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 삼지연 같은 경우 게임, 외국어사전, 전자책 등 다양한 앱들이 무료로 설치되어 있고 가격은 약 200~250달러 정도 된다고 한다.<sup>20</sup>



북한의 판형컴퓨터 사양 비교<sup>21</sup>

분야 \ 기기	아침	아리랑	삼지연	룡흥	묘향
무게	300g	520g	315g	250g	400g
화면크기	7인치	7인치	8인치	미상	10인치
하드크기	8GB	16GB	8GB, 16GB 2종	8GB	16GB
램 속도	512MB	DDR3 1GB	미상	512MB	DDR3, 2GB
출시년도	2012	2012	2012	2013	2015

더 알아보기

북한 내 인터넷 사용

북한 내에도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기는 하나 연구원이나 고위급 공무원, 외국인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 쓸 수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공급은 북한에 있는 외교공관이나 외국 기업 등에 한정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3G 이동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사용하기 어렵고 인터넷 요금 또한 월 600유로 정도로 상당히 비싼 편이다.

# 조선중앙텔레비전

연관어 조선중앙통신, 드라마

조선중앙텔레비전은 북한의 대표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북한 전 지역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상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한다.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 | 현재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국은 조선중앙텔레비전을 비롯해 총 4개가 있으며 여전히 선전·선동의 성격이 강하지만 최근 방송의 소재와 내용에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사

방송채널 이름	대표적 특징	방송채널 이름	대표적 특징
조선중앙텔레비전	북한의 국영 방송국으로 선전프로그램 비중이 높음	만수대	오락 프로그램 중심 방송
용남산	북한의 교육방송	체육	북한의 국제체육경기 녹화중계

**조선중앙텔레비전 방송 특징 및 변화** | 조선중앙텔레비전은 1963년 개국하였고 북한 최고지도자 중심의 방송들이나 정치적인 내용의 방송물을 많이 방영한다.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 방송에는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뉴스에 있다. 아나운서의 복장이 밝은색 양장으로 바뀌고 진행자의 강한 말투와 굳센 표정 또한 부드럽고 밝게 변화되었다. 현대적으로 꾸민 스튜디오에서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내보내며 보도를 진행한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가상현실기법도 뉴스에 도입하였고 제목이나 자막에 쓰이는 서체도 세련되고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이와 함께 TV 드라마의 주제도 다양화되고 영화와 스포츠 중계 등도 증가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 남한과의 공동제작 작품

남북교류가 활발하던 2000년대 초반에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들이 다수 있었다.

제작시기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종류
2000년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산과 한라산 전파 연결	뉴스 프로그램
2000년	북녘 땅, 고향은 지금	북한의 자연과 문화유적 소개	다큐멘터리
2003년	평양노래자랑	평양에서 열린 전국노래자랑	노래경연 프로그램
2005년	휴대전화 광고	남북 스타의 합작광고	TV 광고
2007년	사육신	최초의 남북합작 드라마	드라마

# 지하철

연관어 대중교통, 이동

북한의 지하철은 평양에만 있고, 동서(혁신선)와 남북(천리마선·만경대선)으로 노선이 운영되며 전우역 및 전승역에서 환승도 가능하다. 평양의 지하철역은 각 역이 상당히 호화롭게 치장되어 있어 ‘지하궁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하철 건설** | 평양의 지하철은 1968년부터 본격적으로 소련과 중국의 기술 지원 아래 공사가 개시되었다. 지하철 공사에 대한 인력은 주로 북한의 군대가 동원되었다. 평양의 지하철역은 유사시 방공호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하 100~150미터 이상을 파고 들어가 공사를 하였으며 내부는 대리석과 벽화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 2019년에 개선역과 통일역을 새롭게 현대적으로 재건하였고 현재 각 노선마다 2개역씩 연장을 논의하는 등 지하철에 적극 투자하며 대내외적으로 평양의 지하철을 홍보하고 있다.

**전동차의 변화** | 북한은 지하철 개통 초반에 중국에서 차량을 수입해왔다. 그러다 2000년대에는 독일에서 생산한 신형객차를 수입하여 운행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자체 기술력으로 생산한 신형전동차가 운행되고 있다.

전동차 이름	특징	최고속도	도입연도
DK4	가장 오래된 전동차, 중국에서 수입, 2007년 전량 퇴역	90km/h	1973년
BVG GI	독일에서 수입	70km/h	1997년
BVG D	독일에서 수입, 평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동차	70km/h	1999년
북한 개발 전동차 (신형)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개발, TV모니터 장착, 노약자 전용 좌석 설치		2015년 제작

## 더 알아보기

### 평양 지하철의 또다른 목적

평양의 지하철은 비상사태시 주민의 대피소로도 활용할 목적으로 아파트 40층 높이의 지하로 깊숙이 건설되었다. 그래서 평양의 주민들은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곳으로 지하철역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목적은 지하의 비밀군사기지 연결과 함께 전쟁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하 군사시설이 있는 곳으로 지하철 노선 확장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 주택

연관어 배급제도, 광복거리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이 건축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은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주택을 배급받고 임대형태로 거주하게 된다.

**북한의 주택 유형** | 북한 사회는 직장과 지위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주택을 배급한다. 먼저 특호는 독립 고급 주택으로 최고위 관료층이 입주한다. 4호는 정부의 높은 관리나 대학교수 등이 입주하며 신형 고층 아파트로 평양의 유명거리에 있다. 여기에는 방 2개 이상에 목욕탕, 베란다, 냉온수 시설, 현대식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3호 주택은 중급 단독주택이나 신형 아파트이고, 2호 주택은 일반 아파트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1호 주택이 바로 문화주택이다.



북한의 대도시 고층 아파트

구분	주택 유형	입주 대상자
특호	독립 고급 주택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4호	신형 고급 아파트	대학 교수 등
3호	중급 단독 주택 및 신형 아파트	중앙기관 지도원 등
2호	일반 아파트	소·중학교 교원 등
1호	집단 공영 주택	말단 노동자 및 사무원
	농촌 문화 주택	협동 농장원
	구옥	변두리 농민

**일반주민들의 주택** |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은 문화주택이다. 문화주택은 주로 농촌 지역에 사는 일반 주민들에게 보급되는 주택이다. 보통 말단 노동자, 사무원이나 협동 농장원 등이 배정받게 되며 전체 주민의 60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 문화주택은 방 1~2개와 부

엍이 딸린 집단공영주택이나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하모니

### 더 생각해보기

북한의 하모니카집은 왜 생겼을까요?  
북한 사람들은 다른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까요?



카 주택이라 불리는 집도 있다. 집 한 채를 여러 칸으로 쪼개 생활하며 마치 하모니카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집의 넓이는 대략 11평 정도 되며 하나의 부엌을 여러 가구가 공유하는 형태도 있어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불편도 있다. 또한 북한 공동주택의 경우 60% 이상이 여전히 석탄을 활용하여 취사와 난방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매연 발생이 심한 편이다. 보통 신혼부부들이 이런 하모니카 집에서 시작하여 돈을 마련해 아파트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북한의 농촌문화주택

**북한 사람들의 주택 거래** | 북한 당국은 주택의 개인 소유와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주택난이 악화되면서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식으로 입사증을 받아 주택을 배정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동거인으로 등록하여 세대주를 변경하는 편법 등으로 주택을 거래하고 있다. 주택을 옮기는 과정에서 본래 사용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 이처럼 북한의 주민들은 비록 주택의 소유권은 없지만 일부 주민들은 돈 거래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입사증

북한에서는 주택에 입주하려면 입사증을 받아야 한다. 입사증은 2009년 북한의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북한 당국에서 모든 거주자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주택 사용권이다. 입사증에는 만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용자의 이름, 살림방 수, 살림지 주소 외에도 직장 지위, 가족 수까지 나와 있다.



북한의 입사증



# 직업

연관어 외화별이꾼, 진로

북한에서 직업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주게 된다. 개인의 희망과 적성이 반영되기 힘들고 한번 정해진 직장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다.

**직업 배치 과정** | 북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출신성분과 당의 방침에 의해 전공에 따라 직업이 결정된다. 보통 처음 배정받은 직업이 평생 직업이 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직업배치 과정

진로	구분	배치과정	대상
직업배치	간부	도, 시, 군 등의 간부부에서 배정	대학졸업자, 국가 사무원 등
	노동자	도, 시 등의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일률적으로 배치	일반 공민(주로 출신성분에 따라 배치)
대학 진학	대학 졸업 후 직업배치		
군입대	제대 후 직업배치		

**인기직업의 변화** | 남한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약 16,800여개의 직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북한은 상대적으로 직업 수가 적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직업 또한 남한과 차이점을 보인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당 간부, 의사, 보안원, 교사 등이 인기직업이었다. 북한 사회의 지도층인 당 간부가 되는 것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는 외국과 교류하며 외화를 벌 수 있는 외화별이 일꾼이나 호텔 등에서 일하는 것이 선호된다. 악화된 경제 사정으로 인해 큰돈을 벌 수 있고, 의식주 걱정이 적은 직업이 각광받는 것이다. 택시 운전사나 외화 상점, 호텔, 음식점 등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 북한 사람들의 연금제도

북한은 국가에서 직장을 배치해주는 명목상 취업률 100%의 국가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에서 노동을 전 주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남성은 만 60세, 여성은 만 55세가 되면 직장에서 은퇴하게 된다. 은퇴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연로연금을 받게 된다. 연로연금의 액수는 2015년 기준 북한돈 1500원~2000원 정도인데 이는 북한에서 두부 한 모, 담배 한 갑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다. 최근에는 연금 수혜연령이 남성 65세 여성 60세로 조정되었는데 해당 연령이 되면 연로연금과 함께 매일 소량의 식량이 배급된다.

# 태양절

🔍 **연관어** 사회주의 명절, 광명성절

태양절은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을 기념하는 북한의 최대 명절이다. 1974년부터 북한의 명절로 지정되었고 김일성 사후 태양절로 불리게 되었다.

**태양절의 역사** | 김일성의 생일은 유일지도체계를 강조하면서 1968년부터 북한의 정식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을 태양에 비유하며 4월 15일을 태양이 솟은 날이라는 의미를 지닌 태양절로 명명하였다. 북한이 공휴일로 지정한 19개의 기념일 중 최대의 명절이 바로 태양절이다.

시기	명칭	의미
1968년	4.15절	정식 공휴일 지정
1974년		북한 최대 명절로 지정
1997년	태양절	김일성 사망 3주기에 태양절로 격상
2012년		김일성의 100번째 생일로 사상 최대 규모 행사

**태양절 행사** | 태양절에는 보통 이들의 연휴가 주어지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대적인 축하 행사가 진행된다. 충성의 편지전달 이어달리기, 평양미술축전, 김일성화 전시회, 만경대상 체육축전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행사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으로 김일성 탄생 70주년에 시작되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와의 문화교류를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4월 15일을 전후하여 10여 일 동안 개최된다. 북한의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예술단체 및 연예인 등도 초청되며 2001년과 2002년에는 우리나라 가수 최초로 김연자씨가 초청되기도 했다.



## 더 알아보기

### 북한주민에게 주어지는 태양절 선물

북한 당국은 태양절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특별 선물을 준다. 학교에서는 사탕 등이 담긴 선물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가정마다 쌀과 술, 고기 등의 특별공급도 이루어진다. 김일성의 100회 생일 때에는 평양시 주민들에게 식량 배급과 함께 식용유 1kg과 통닭 한 마리, 굴 10개, 설탕가루 1kg, 술 한 병과 과자, 심지어 신발이나 화장품 세트 등을 공급하기도 하였다.<sup>22</sup>

**[단행본 및 논문]**

국립통일교육원, 『교과서에 안 나오는 북한의 교통 이야기』(2014)  
국립통일교육원, 『패션&메이크업으로 본 북한사회』(2020)  
국립통일교육원, 『2022 북한이해』(2022)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2021)  
국립통일교육원, 『청소년 통일사전』(2018)  
NK조선,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간식을 먹을까요?』(2013)  
월간조선, 『북한 탁아소의 실제』(2013.10.)  
육아지원 연구, 『북한 탁아소의 운영관리와 일과운영』(2019)  
통일연구원, 『북한 내 아동의 자유』(2017)  
평화문제연구소,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선호직종은?』(2013)  
한국주택금융공사, 『북한주택시장의 현황과 전망』(202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블로그 및 홈페이지, 기타자료]**

국립통일교육원, 자료마당  
국립통일교육원, 청소년 지식사전 홈페이지 (2022.10.)  
대한민국 통일부 공식 블로그, 『북한에도 가족법이 있을까?』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통일부 공식 블로그, 『평양 2423』 북한 최신 스마트폰 파헤치기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미주]**

- 1 KBS 통일방송연구, 『호주제가 없는 북한의 가족제도』(2006.3.19.)
- 2 KBS WORLD, 『북한의 결혼문화』(2021.12.02.)
- 3 KBS WORLD, 『변화하는 북한의 결혼풍속도』(2021.12.09.)
- 4 대한경제, 『통일부, 김정일 생일 80주년 행사 “예년보다 다채롭고 규모있게 진행”』(2022.2.17.)
- 5 오중석, 『북, 태양절과 광명성절 사전분위기 조성에 주력』(자유아시아방송) (2022.01.24.)
- 6 KBS WORLD 한반도 A to Z, 『북한의 대중교통』(2019.06.13.)
- 7 연합뉴스, 『<북한판 ‘시장경제’> ③억대 재산 ‘중산층’ 뜬다』(2014.09.10.)
- 8 통일뉴스, 『북, 『세기와 더불어』 후속편 『민족과 더불어』 제1권 출판』(2020.07.10.)
- 9 NK조선, 『남북한 언어의 차이 (1) 어휘』(2013)
- 10 데일리NK, 『北 “생활총화 비판 아닌 긍정적 부분 강조하라”, 속내는?』(2018.03.16.)
- 11 국민일보, 『“김정은 수첩 등장했다?” 北 생활총화 수첩 통해 자아 비판 강화』(2015.04.13.) | 사진출처: 아시아프레스
- 12 mbn, 『세상돋보기』 북한 주민들 ‘스마트폰 중독’…김정은은 ‘아이폰 매니아’ (2021.03.03.)
- 13 한겨레, 『북한 최신스마트폰 ‘평양2423’ 써보니 깜짝』(2019.03.11.)
- 14 동아일보, 『北 도시 휴대폰 가입률 70%…스마트폰 韓에 1~2년 뒤져』(2021.09.24.)
- 15 NK조선, 『북한 어린이들이 하는 국민체조, ‘소년올동체조’와 ‘건강태권도’』(2013)
- 16 장휘, 『북한에도 국민체조가 있다?』(2018.10.22.)
- 17 통일뉴스, 『북한주민들의 의복 변천사』(2000.12.04.)
- 18 뉴스1, 『北 올해 첫 ‘체육의 날’… 노동신문 “온나라가 열기로 들끓어”』(2020.01.13.)
- 19 The JoongAng,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기사 수신 계약』(2002.12.11.)

- 
- 20 VOA, 「북한 태블릿 삼지연 호평 잇따라」(2013.11.7.)
  - 21 NK TECH, 「북한이 올해는 어떤 태블릿 PC를 출시할까?」(2016.11.21.)
  - 22 노컷뉴스, 「북, 태양절 기념 주민들에게 배급한 물품은…」(2012.04.16.)

ㄱ

가요	84
가족제도	148
간편 먹거리	85
강과 산	114
개성공단	8
개성만월대	86
게임	87
겨레말큰사전	9
결혼	149
경연(경시대회)	44
계획경제	34
고급중학교	45
고난의 행군	150
공동어로구역	10
광명성절	151
광물자원	115
교복	46
교원	47
국제아동절	152
군복무	153
군사분계선(휴전선)	11
금강산관광	116
김일성종합대학	49
꼬마 과제	48

ㄴ

남북도로·철도연결	12
남북정상회담	14
내각	124
노동신문	154
놀이	88
놀이공원	89

ㄷ

대중교통	155
대학	50
대학입시	52
독보	156
드라마	90

ㄹ

만경대혁명학원	53
만화영화	92
문화어	157
문화재	94

ㅁ

반려동물	91
방학	54
배급제	35
북한대표음식	96
북한이탈주민	17
북한인권	126
분단비용	16
분조관리제	36
붉은청년근위대	128
비무장지대	19

ㅂ

사교육	55
사상교육	129
사회주의 도덕	56
사회주의 명절	158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130
상벌	58
생활총화	159
서해교전	20
선군정치	131
소년단	59
소년단 야영소	60
소조 활동	61
소학교	62
스마트폰	160
스포츠	97
시험	63
신용카드(나라카드, 전성카드)	37
신탁통치	21

ㅇ

업간체조	161
여가생활	98
연예인	99
영재교육	64
영화	102
영화촬영소	101
예술학원	66
외국어교육	68
외식 문화	100
외화벌이꾼	38
유치원	70
6.25전쟁	22
음악단	104
의복	162
이동(여행)	163
이산가족	23
인민대학습당	105
인민재판(형벌제도)	132
인민체력검정	164
일인지배체제	133
입학식과 졸업식	67

ㅈ

재판소	134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72
정보통신	166
정치범수용소	135
제1중학교	71
조선노동당	1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37
조선중앙텔레비전	168
조선중앙통신	165
종교	106
종합시장	39
주요 도시	118
주체사상	138
주택	170
지하철	169
직업	172
직통생	73
진로	74

집단주의	139
집단체조	107

ㄷ

천리마운동	140
체육교류	30
초급중학교	76
최고인민회의	141
출신성분	142
7.1 경제관리개선조치	40

ㅋ

컴퓨터교육	77
-------	----

ㅌ

태양절	173
통일방안	25
통일편익	26

ㅍ

판문점	28
패션	108
평양거리	119
평양학생소년예술단	78

ㅎ

학생소년궁전	79
핵무기(미사일)	143
행정구역	120
현장체험학습	80
화장품	109
화폐	41

---

## MEMO

---

## MEMO





청소년  
통일사전